세종시의 출범으로 자칫 단절될지도 모를
연기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기록해 두기 위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이 책에서는 전의면 · 전동면 · 소정면 세지역의 마을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주민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왔고,
그동안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 보았다.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Ⅱ

Ⅱ

전의면 · 전동면 · 소정면

연기문화원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Ⅱ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기문화원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Ⅱ)

-전의면·전동면·소정면-

비암사 전경

금이산성

대곡리 장승

전의초수

세종시립 민속박물관

운주산성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I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임선빈 외

연기문화원

❑ 발간사

이제 며칠 후면 '연기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당당하게 첫발을 내딛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꼽혀 온 연기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어 새롭게 출범합니다. 종전의 조용한 시골 '연기군'이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많은 인물들이 물밀 듯이 몰려드는 역동적인 행정도시 '세종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타운 지역이 되면 전통시대의 토속적인 지명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부처가 속속 들어오고, 새로운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자칫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연기군의 뿌리가 어떠했는지 망각 속으로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조사사업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충청남도와 연기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작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작년에 세종시 행정타운이 들어오게 될 금남면, 남면, 동면 지역을 1차

년도 사업으로 설정하여 진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연기군 북부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치원읍과 서면에 해당하는 연기군 중부지역은 향후 세종시가 출범하면 공주시로부터 편입될 장군면과 청원군으로부터 편입될 부강면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3차년도 사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번에도 1차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향토사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차년도에 이어 임선빈 박사와 강현숙, 남정환 향토사가의 수고가 컸으며, 특히 전의면 출신의 전 도의원이며 연기 북부지역의 사정에 해박한 황우성 전 의원님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의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중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2012년 6월 20일

연기문화원장 임 영 이

❑ 머리말

지난해에 세종시 건설의 중심지역인 연기군 남부지역의 3개면을 조사하여『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Ⅰ을 발간한 데 이어, 올해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연기군의 북부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3개면을 조사했다. 본 조사는 연기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이 그동안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 왔고,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핀 것이다. 이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자칫 단절될지도 모를 연기지역의 유구한 역사성을 기록해 두기 위함이기도 하다.

필자는 2012년 3월에 연기문화원으로부터 본 사업을 의뢰받아 6월까지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 및 원고 집필을 진행했다. 조사는 필자의 책임하에 연기군 향토사가로 1차년도의 조사에 참여했던 강현숙, 남정환 선생과 전의면 출신의 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연기군 북부지역에 해박하신 향토사가 황우성 선생께서 참여했다. 사업의 진행은 문헌조사 및 정리와 현지조사 및 원고 집필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호구총수』등 조선시대 지지류와,『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연기지』등 일제강점기의 자료,『한국지명총람』4,『연기군 충·효·열 유적』,『연기군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기지역의 성씨'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현지조사는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현지조사는 시종일관 임선빈, 강현숙, 남정환, 황우성 등이 함께 다녔다. 특히 현지 사정에 밝은 황우성 전 도의원님의 안내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한 마을의 성씨조사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료 제공 및 족보 열람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을 이 책의 말미에 수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조사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연기군 북부지역 3개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족한 면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연기군 지역은 며칠 후인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어 새롭게 출발한다. 통일신라 때부터 사용되어 온 연기라는 지명은 사라지고, 1세기 전에 종전의 연기군(현)과 전의군(현)이 합쳐지고, 공주군(목)에 해당하던 금남면 지역을 포함하면서 윤곽이 이루어진 현재의 연기군 경역도 달라질 것이다.

세종시 경역은 공주시 장기면의 일부와 청원군 부용면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지금의 연기군보다 더 넓어진다. 7월 1일부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중부지역은 조치원읍과 서면 외에도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고, 충북 청원군의 일부가 편입되어 장군면과 부강면이 신설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세종시 경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사사업이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도 후속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사와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문화원 임영이 원장님과 길미숙 사무국장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6월 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임 선 빈

❑ 목차

발간사 10
머리말 12

제1장 조사지역 개관/ 17

1. 전의 지역의 연혁과 행정편제 ····· 19
2. 전의 지역의 토성과 사마현황 ····· 24

2장 전의면의 터전과 뿌리/ 33

전의면 관정리 ····· 40
전의면 금사리 ····· 53
전의면 노곡리 ····· 57
전의면 다방리 ····· 62
전의면 달전리 ····· 77
전의면 동교리 ····· 84
전의면 서정리 ····· 92
전의면 신방리 ····· 98
전의면 신정리 ····· 104
전의면 신흥리 ····· 114
전의면 양곡리 ····· 118
전의면 영당리 ····· 125
전의면 원성리 ····· 135
전의면 유천리 ····· 143
전의면 읍내리 ····· 158

3장 전동면의 터전과 뿌리/ 163

전동면 노장리 ····· 168
전동면 미곡리 ····· 175
전동면 보덕리 ····· 188
전동면 봉대리 ····· 195
전동면 석곡리 ····· 199
전동면 송곡리 ····· 207
전동면 송성리 ····· 211
전동면 송정리 ····· 220
전동면 심중리 ····· 231
전동면 청남리 ····· 240
전동면 청송리 ····· 252

4장 소정면의 터전과 뿌리/ 255

소정면 고등리 ····· 259
소정면 대곡리 ····· 269
소정면 소정리 ····· 279
소정면 운당리 ····· 287

참고문헌 293
도움을 주신 분 294
조사후기 295

제1장 조사지역 개관

고지도를 통해 본 조사지역 『조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전의현과 청주목(일부) 합성

조사지역 개관

1. 전의 지역의 연혁과 행정편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Ⅱ는 연기군의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을 다루었다. 이 지역은 1914년의 군면 통폐합에 의해 연기군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전의군(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전의는 삼국시대 백제 강역에 속하였다. 본래 백제의 구지현仇知縣이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덕왕 대에 금지현(金池縣, 또는 金地縣)으로 고쳐서 대록군大麓郡(지금의 천안시 목천면)의 영현을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전의현으로 고치고 청주목에 속하였다가, 조선이 건국된 후인 1395년(태조 4)에 처음으로 감무를 두었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초까지 전의지역에는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있었다.

전의현에 파견되던 감무는 1413년(태종 13) 10월에 종전의 감무를 종6품 현감으로 고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때에 전의현 감무도 현감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1414년(태종 14) 8월에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의와 연기를 합쳐서 전기全岐라 고쳐 불렀고, 전기현감이 파견되었다. 이때 전기현감의 근무처는 전

전의면사무소

전의역

기현의 고을명 앞 글자에 전의의 '전'자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종전 연기현의 치소가 아닌 전의현 치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만 2년만인 1416년(태종 16) 7월에 다시 합병하였던 군현을 나누어 예전대로 하면서 전의와 연기가 분리되어 각각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에 한때 전의와 연기가 병합되어 전기현으로 일컬어졌던 것은 두 고을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전기 전의현의 경역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치소를 중심으로 한 사방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의현의 경역에 대해 동쪽으로 청주에 이르기까지 13리, 서쪽으로 천안天安에 이르기까지 7리, 남쪽으로 연기에 이르기까지 11리, 북쪽으로 목천木川에 이르기까지 6리라고 하였다(『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전의현).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쪽으로는 청주목淸州牧 경계까지 18리, 서쪽으로는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11리, 남쪽으로는 연기현燕岐縣 경계까지 18리, 북쪽으로는 목천현木川縣 경계까지 12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43리(『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충청도 전의현)라고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사이에는 4면 경계가 모두 차이가 있다.

즉 전의현의 경역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동서의 거리가 20리, 남북의 거리가 17리인데 반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서의 거리 29리, 남북의 거리 30리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사이에 경역의 변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기 보다, 단순한 리수 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조선전기 전의현의 규모가 매우 작았음은 알 수 있다.

따라서 면리제가 실시되는 조선후기에도 전의현의 면 명칭은 동서남북의 방위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읍내면, 동면, 남면, 소서면, 대서면, 북면의 6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충청도 전의현은 1895년에 8도제가 바뀌어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공주부 전의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자 충청남도 전의군이 되었다. 이 전의군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연기에 병합되어 연기군의 전의면, 전동면 등을 구성하게 되었다.

고려후기까지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가진 구획으로 존재했던 향·소·부곡은 군현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14세기 말 15세기 초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속이 이루어졌다. 이때 그들은 하나의 지역단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속할 때에 분할하거나 그 명칭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속의 형태는 주현 또는 속현으로서 승격되는 경우, 소속이 변동되는 경우, 혁파되어 직촌화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었다. 조선초기의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전의현의 향·소·부곡으로는 현 북쪽 6리에 대부향大部鄕이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충청도 전의현 고적조). 대부향은 현재의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에 있었다.

이외에도 가을정처加乙井處가 현 북쪽 5리에 있었고, 포곡역蒲谷驛 옛터가 현 동쪽 18리에 있었다.

조선후기에 실시된 전의현의 면리제 구성을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통해 보면 〈표 1〉과 같다.

한편, 연기군 소정면 지역은 덕평부곡이 있었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청주목의 월경처로 없어진 덕평부곡德平部曲이 전의로 넘어들어가 있다고 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는 덕평향德平鄕이 전의현 서쪽을 넘어서 들어간다고 했다. 이 덕평은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시될 때 청주목 덕평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여지도서』 방리조에 의하면, 덕평면은 중암리, 신리, 당리, 삼평리의 4개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위치가 모두 청주목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80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호구수는 중암리 23호(남 38구, 여 41구), 신리 22호(남 53구, 여 53구), 당리 40호(남 97구, 여 96구), 삼평리 10호(남 52구, 여 56구)로 모두 95호, 486구(남자 240구, 여자

246구)였다. 『호구총수』 청주목 덕평면도 중암리 신리 당리 평리의 4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구수는 원호 144호, 인구 541구(남 251구, 여 290구)였다.

〈표 1〉 조선후기 전의현의 면리 구성

면명	『여지도서』(1759년)		『호구총수』(1789년)	
	리명	호수(구수 남/여)	리명	호구
읍내면 (현내면)	서부리	81(106/112)	서부리, 북부리, 동부리, 남부리	172호 630구 (359/271)
	북부리	75(88/131)		
	동부리	67(87/118)		
	남부리	50(67/114)		
동면	수구동리	77(105/159)	수구동리, 대치리, 서방동리, 노장리	296호 1189구 (535/654)
	대치리	89(167/215)		
	상노장리	100(244/233)		
	서방동리	72(115?152)		
남면	보평리	108(160/189)	심천리, 송곡리, 남포리, 송치리	291호 1275구 (976/699)
	상송동리	52(94/124)		
	남포리	67(120/167)		
	송치리	91(167/216)		
소서면	돈지리	46(94/78)	돈지리, 양지리, 사기소리, 마산리, 압곡리	314호 1268구 (510/758)
	양지리	45(83/136)		
	사기소리	93(147/187)		
	만노곡리	55(87/122)		
대서면	생송리	64(118/166)	생송리, 천서리, 가덕동리	241호 1026구 (444/582)
	산음리	125(187/220)		
	덕평리	44(67/104)		
북면	유점리	88(156/166)	고등리, 대부리, 갈정리, 거노곡리, 신대리	295호 1314구 (589/725)
	상타우리	82(131/129)		
	갈정리	69(118/129)		
	거노곡리	79(136/141)		
6면	23리	1730호 (2878/3775)	25리	1609호 6702구 (3013/3689)

이외에도 소정면에는 조선후기의 천안군 소동면 일부(역리, 궁리, 대사동 등)가 포함되어 있다.

2. 전의 지역의 토성과 사마현황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기 전의현의 토성土姓으로 이李·유兪씨, 망성亡姓으로 하河씨, 차성次姓으로 전全씨가 수록되어 있다.

토성의 수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씨는 전의이씨를 지칭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물조에는 전의이씨에 대한 고려시대의 인물이 다음과 같이 이도, 이혼, 이언충 등 3명이나 수록되어 있다.

이도(李棹) : 전의이씨의 시조이다. 고려의 태조(太祖) 왕건이 남으로 정벌하러 금강(錦江)에 이르렀을 때 물이 범람하였는데, 이도가 태조를 보호해 건너는 데 공이 있어 도(棹)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벼슬은 태사 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에 이르렀다.

이혼(李混) : 이도의 7대손이다. 원종(元宗)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충선왕(忠宣王)까지 계속 섬기면서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첨의정승(僉議政丞)으로 치사하였으며, 호는 몽암(蒙菴)이다. 일찍이 영해부(寧海府)로 좌천되어 바다 가운데 뜬 나무등걸을 가지고 무고(舞鼓)를 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악부(樂府)에 전해지고 있다.

이언충(李彦沖) : 이혼(李混)의 형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쳐서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물조에 실려있는 전의이씨의 조선시대 인물은 이정간, 이사관, 이예장, 이함장, 이효장, 이서장, 이수남, 이의흡, 이신효, 이원효, 이계맹 등이 있다.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간(李貞幹) : 이혼(李混)의 아우 이자화(李子華)의 증손이다. 어머니 김씨(金氏)의 나이 1백 2세 때에 이정간은 당시 80세였는데, 어머니 앞에서 새 새끼를 가지고 희롱하여 노래자(老萊子)와 같은 어리광을 부리니, 세종(世宗)이 글을 내려 표창하였다. 벼슬은 중추원사(中樞院使)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이사관(李士寬) : 이정간(李貞幹)의 아들로 벼슬이 부윤(府尹)에 이르렀으며, 그 아들 이지장(李智長)·이예장(李禮長)·이함장(李諴長)·이효장(李孝長)·이서장(李恕長)은 문과에 오르고, 이의장(李義長)은 무과에 오르니 이는 세상에 드물게 있는 일로서 선비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이예장(李禮長) : 세조(世祖) 때의 정난 좌익공신(靖難佐翼功臣)이고, 벼슬이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이르렀다.

이함장(李諴長) : 벼슬이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이르렀다.

이효장(李孝長) : 벼슬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이르렀다.

이서장(李恕長) : 세조 때의 적개공신(敵愾功臣)이며, 벼슬이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 이르고, 전성군(全城君)에 봉해졌다.

이수남(李壽男) : 이함장(李諴長)의 아들로 문과에 등과하였다. 성종(成宗) 때의 좌리공신(佐理功臣)이며, 전산군(全山君)에 봉해졌다.

이의흡(李宜洽) : 문과에 올라 벼슬이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이르렀다. 아들 이신효(李愼孝)는 형조 참의를 역임하였고, 이원효(李元孝)는 과거에 올라서 첨지중추(僉知中樞)에 이르렀다.

이계맹(李繼孟) : 『신증』, 성격이 호방하고 기개가 있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고,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 전의현에서는 전의이씨가 매우 번창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의이씨는 이미 1476년에 족보를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후대에 간행된 전의이씨족보에 이하의 손자 이린李麟의 서문만 실려 있다. 이 서문에 따르면, 이하李賀는 전의이씨를 중

심으로 그 외파들의 족보까지 아울러서 초보를 작성했다고 한다. 외파 중에는 월성김씨月城金氏, 공암허씨孔巖許氏, 동주최씨銅州崔氏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소 소략했던 이씨 세계를 청주부원군 한확韓確의 집에서 족보를 구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본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족보는 초보草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의이씨 내에서는 '전의이씨 성화초보成化草譜'로 불리고 있다.

전의의 토성인 유兪씨와 망성인 하河씨, 차성인 전全씨 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에도 이씨와 함께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에는 오늘날의 소정면에 해당하는 청주목 덕평의 성씨로 신申씨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내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 가운데에는 방목에서 전의현이 거주지로 수록되어 있는 인물을 수십명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이들을 급제(입격)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방목에 전의현이 거주지로 수록된 과거 급제자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가족관계 및 관력	비고
1	1447	생원	김승존 (金承尊)	善山		金永倫(부, 承議郎 工曹佐郎)	
2	1531	생원	정방 (鄭昉)	海州		鄭宗憲(부, 生員)	
3	1534	진사	임자중 (任自重)	豊川		任蕃(부, 醫書習讀官)	
4	1602 (32)	무과	홍직 (洪稙)	南陽	1571	洪翼淸(부), 洪穊・洪稷(제)	장원, 정려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가족관계 및 관력	비고
5	1605 (24)	무과	김제정 (金濟鼎)	安東	1582	金鏐(부,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金君鼎(형)	
6	1606 (26)	진사	김인길 (金仁吉)	安東	1581	金昇(부)	
7	1612 (43)	진사	염득중 (廉得中)	坡州	1570	廉璟(부, 定略將軍), 廉進中(제)	
8	1633 (33)	생원	신익 (愼益)	居昌	1601	愼崇謙(부, 通訓大夫行廣興倉奉事), 愼盈・愼盛(형), 愼孟・愼盤(제)	
9	1646 (40)	진사	송회길 (宋誨吉)	礪山	1607	宋騁(부, 通訓大夫知製敎), 宋鎭吉(형)	
10	1650 (25)	진사	김원후 (金元厚)	安東	1626	金曄(부, 通訓大夫行活人署別提), 金從厚(서형), 金謹厚(서제)	
11	1683 (32)	진사	홍은 (洪蔇)	南陽	1652	洪近湖(부, 從仕郎), 洪葰(제), 洪荇(서형), 洪蔩・洪著(서제)	문과(1714)
12	1689 (21)	진사	임양 (任敭)	豊川	1669	任弘緖(부), 任徹・任攷(제)	
13	1690 (28)	생원	이성 (李珹)	順天	1663	李守眞(부, 通德郎), 李珽(형), 李璜・李玒(제)	
14	1708 (35)	생원	홍이서 (洪履敍)	南陽	1674	洪蔇(부, 進士), 洪泰敍・洪益敍・洪濟敍・洪觀敍(제)	
15	1714 (32)	진사	임철 (任澈)	豊川	1683	任弘式(부)	생원(1714) 문과(1723)
16	1714 (32)	생원	임철 (任澈)	豊川	1683	任弘式(부)	진사(1714) 문과(1723)
17	1717 (38)	생원	신의조 (愼儀朝)	居昌	1680	愼萬最(부, 通德郎), 愼喜朝(형), 愼後三・愼紀朝(제)	
18	1723 (47)	생원	홍태서 (洪泰敍)	南陽	1677	洪蔇(부,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 洪履敍(형), 洪益敍・洪恒敍・洪觀敍(제), 洪九敍(서제)	
19	1723 (38)	생원	신만중 (愼萬重)	居昌	1686	愼之逸(부, 通訓大夫三水縣監), 愼萬迪・愼萬吉・愼龜重(형)	
20	1725 (27)	무과	김우 (金瑀)	安東	1699	金殷聲(부), 金玲(형)・金琠(제)	
21	1725 (39)	무과	박진태 (朴震泰)	咸陽	1687	朴仁善(부,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 朴震觀・朴震恒(형)	
22	1728 (34)	무과	이저 (李柢)	禮安	1695	李道膺(부, 折衝將軍 行蒜山鎭兵馬僉節制使), 李楗(형)・李樑(서제)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가족관계 및 관력	비고
23	1728 (35)	무과	이덕구 (李德耉)	順天	1694	李瑀(부, 通德郎), 李玠(생부, 通德郎)	
24	1728 (39)	무과	홍우필 (洪禹弼)	南陽	1690	洪夏臣(부, 通政大夫 三和都護府使兼清南水軍防禦使), 洪禹九・洪禹楫(형)・洪禹圭(서제)	
25	1728 (26)	무과	박유검 (朴由儉)	咸陽	1703	朴起祖(부, 副司果), 朴守儉(형)	
26	1729 (39)	생원	이여령 (李輿齡)	全州	1691	李震選(부, 成均生員), 李震遂(생부)	
27	1730 (27)	무과	김형 (金珩)	安東	1704	金殷聲(부)	
28	1750 (32)	생원	조진권 (趙鎭權)	豊壤	1719	趙脩(부, 進士), 趙鎭洙・趙鎭杓・趙鎭樞(형)	
29	1763 (27)	무과	박봉득 (朴奉得)	密陽	1737	朴重信(부, 副司勇)	
30	1768 (37)	진사	유협기 (柳恊基)	晉州	1732	柳顯章(생부, 嘉善大夫忠武衛副司直), 柳遠章(계부), 柳業基・柳甲基・柳集基(형)	문과(1774) 중시(1796)
31	1774 (43)	문과	유협기 (柳協基)	晉州	1732	柳炳然(증조부) – 柳星河(조부) – 柳顯章(부)	갑과 2위 진사(1768) 중시(1796)
32	1774 (43)	생원	한익세 (韓翼世)	淸州	1732	韓宏(부), 韓綱世・韓範世・韓顯世・韓憲世(형)	
33	1784 (25)	무과	김광혁 (金光赫)	安東	1760	金得淳(부, 通德郎)	
34	1784 (26)	무과	최계현 (崔啓鉉)	朔寧	1759	崔濟敬(부, 通德郎)	
35	1784 (35)	무과	윤성좌 (尹聖佐)	坡平	1750	尹宣敬(부)	
36	1796	중시	유협기 (柳協基)	晉州	1732	柳炳然(증조부) – 柳星河(조부) – 柳顯章(부)	진사(1768) 문과(1774)
37	1803 (44)	생원	윤광선 (尹光善)	坡平	1760	尹東喆(부)	
38	1804 (32)	생원	신중권 (愼重權)	居昌	1773	愼始泰(부), 愼得權・愼守權(형), 愼履權(제), 愼達權(서제)	
39	1805	진사	신득권 (愼得權)	居昌	1757	愼始復(부), 愼始泰(생부), 愼守權・愼重權・愼履權(제), 愼達權(서제)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가족관계 및 관력	비고
40	1809 (45)	진사	유진학 (柳鎭學)	晉州	1765	柳甲基(부, 通政大夫 承政院右副承旨), 柳鎭默・柳鎭穆(형)	
41	1813 (52)	생원	신지권 (愼持權)	居昌	1762	愼始泰(부), 愼得權(형), 愼重權(제)	
42	1827 (37)	생원	김영수 (金永壽)	慶州	1791	金思尙(부), 金永耆・金永根(제)	
43	1850 (27)	진사	김흥집 (金興集)	慶州	1824	金永壽(부, 成均生員), 金永根(생부), 金亨集(형), 金京集・金秉集(제)	
44	1852 (32)	문과	권섭 (權燮)	安東	1821	權國鼎(증조부) – 權溍(조부) – 권채(부)	
45	1858 (28)	진사	윤경구 (尹敬求)	海平	1831	尹應善(부), 尹繼善(생부), 尹聖求(형), 尹會求(제)	
46	1861 (50)	문과	남헌진 (南憲珍)	宜寧	1812	南泰寬(증조부) – 南泓(조부) – 南惠采(부)	개명 남계헌(南啓憲)
47	1873 (33)	문과	권봉집 (權鳳集)	安東	1841	權承益(부)	
48	1877 (27)	문과	신기선 (申箕善)	平山	1851	申羲朝(부)	
49	1882 (29)	생원	오한응 (吳翰應)	寶城	1854	吳相吉(부), 吳相集(생부), 吳翊應・吳○應(제)	
50	1882 (28)	진사	신과영 (申果永)	平山	1855	申鍾善(부)	
51	1885 (35)	진사	서병준 (徐丙俊)	大丘	1851	徐相健(부, 通仕郞 行繕工監假監役)	
52	1885 (39)	생원	이홍재 (李興在)	韓山	1847	李羲銓(부,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	
53	1885 (25)	생원	김정표 (金正杓)	慶州	1861	金敎昇(부, 通仕郞 前行康陵參奉), 金正斗・金正奎・金正台(제)	
54	1888 (18)	진사	심창섭 (沈昌燮)	靑松	1871	沈相穆(부,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55	1888 (35)	생원	이정구 (李鼎九)	牛峰	1854	李元用(부)	
56	1891 (17)	진사	홍사영 (洪思永)	南陽	1875	洪學裕(부)	
57	1891 (27)	진사	이용화 (李容華)	全州	1865	李秉冕(부, 通仕郞 行義禁府都事)	

〈표 3〉 전의 거주 생원 진사 성관별 입격 상황[( )안은 문·무과 급제자수]

입격 연대 / 성씨	1447 ~1500	1501 ~1550	1551 ~1600	1601 ~1650	1651 ~1700	1701 ~1750	1751 ~1800	1801 ~1850	1851 ~1891	합계
선산김씨	1									1
해주정씨		1								1
풍천임씨		1			1	1(양시)				3
안동김씨				2(무1)		(무2)	(무1)			2(무4)
파주염씨				1						1
거창신씨				1		2		3		6
여산송씨				1						1
남양홍씨				(무1)	1	2(무1)			1	4(무2)
순천이씨					1	(무1)				1(무1)
함양박씨						(무2)				(무2)
전주이씨						1			1	2
풍양조씨						1				1
예안이씨						(무1)				(무1)
진주유씨							1(문1)	1		2(문1)
청주한씨							1			1
파평윤씨							(무1)	1		1(무1)
밀양박씨							(무1)			(무1)
삭녕최씨							(무1)			(무1)
경주김씨								2	1	3
안동권씨									(문2)	(문2)
의령남씨									(문1)	(문1)
평산신씨									(문1)	(문1)
해평윤씨									1	1
보성오씨									1	1
평산신씨									1	1
대구서씨									1	1
한산이씨									1	1
청송심씨									1	1
우봉이씨									1	1
합계	1	2		5	3	7	2	7	1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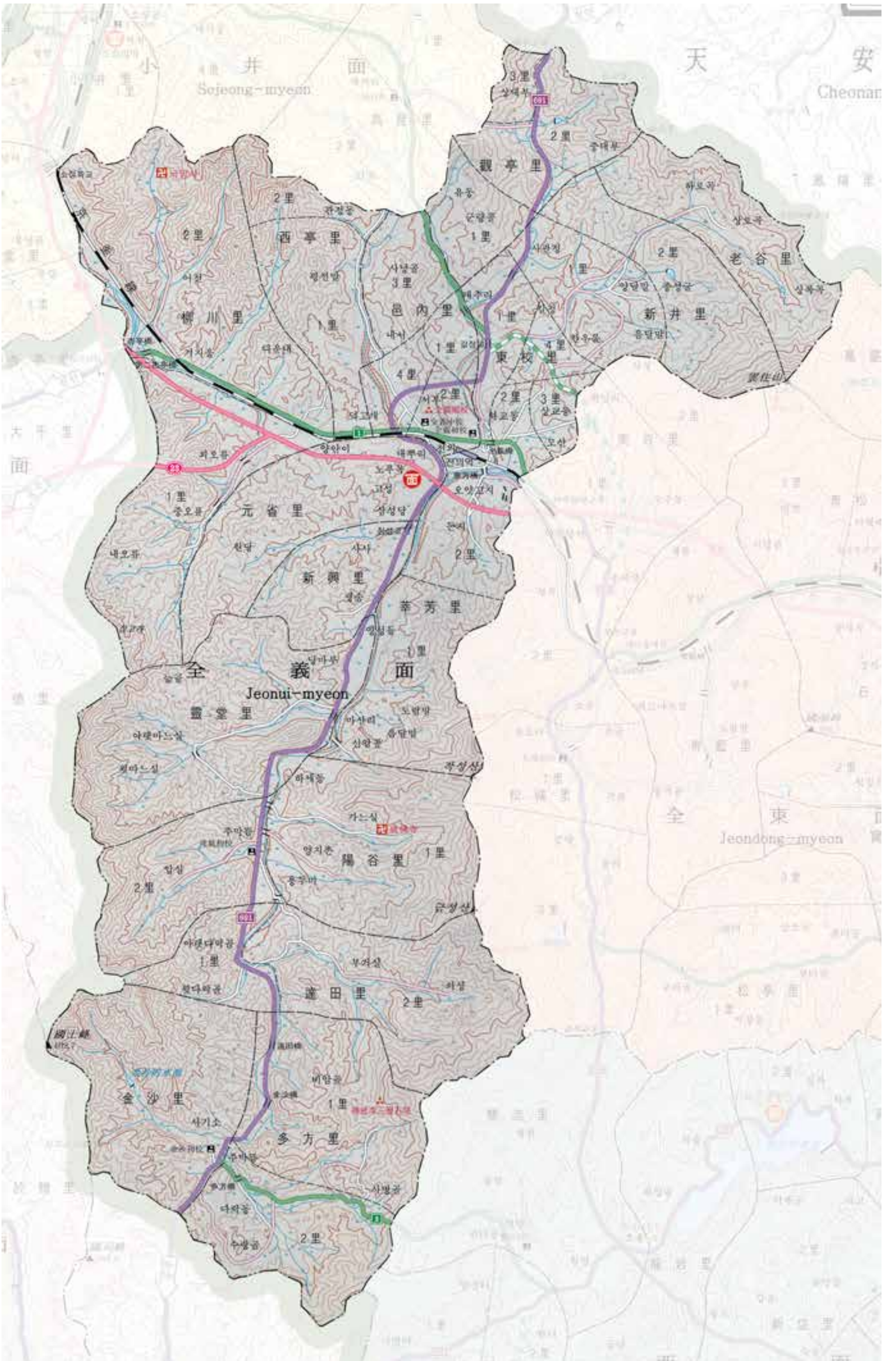
조선시대 전의현에서 배출한 사마司馬 즉 생원진사들의 명단을 검토해 보면, 조선 중후기 이 지역 유력성씨들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인 거주지가 전의로 되어 있는 사마방목 등재 인물은 모두 37명이다(동일인 제외). 이들 전의 거주 생원 진사를 성씨별로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바탕으로 시기별 등재인물수를 살펴보면, 조선전기 사마급제자는 1447년의 선산김씨 1명과 16세기 전반의 해주정씨 1명, 풍천임씨 1명 등 3명뿐이다. 현재 알려져 있는 사마방목의 전산자료가 조선전기의 방목은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 성씨가 다른 성씨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의지방에 정착하여 사족기반을 확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풍천임씨는 조선후기에도 계속 전의에 거주하는 사마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후기의 경우에는 17세기 전반 5명, 17세기 후반 3명, 18세기 전반 7명, 18세기 후반 2명, 19세기 전반 7명, 19세기 후반 10명 등이다.

가문별 등재 인원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거창신씨(6), 남양홍씨(4), 풍천임씨(3), 경주김씨(3), 안동김씨(2), 전주이씨(2), 진주유씨(2) 순이다. 이 외에 선산김씨, 해주정씨, 파주염씨, 여산송씨, 순천이씨, 풍양조씨, 청주한씨, 파평윤씨, 해평윤씨, 보성오씨, 평산신씨, 대구서씨, 한산이씨, 청송심씨, 우봉이씨 등 15개 성씨가 1명씩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거창신씨가 가장 많은 입격자인 6명을 배출하였다. 무과 급제자수까지 고려한다면, 안동김씨와 남양홍씨 등도 6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이다.

제2장 전의면의 터전과 뿌리



小井面
Sojeong-myeon
天安
Cheonan
觀亭里
西亭里
老谷里
柳川里
邑內里
新井里
東校里
元省里
新興里
莘芳里
全義面
Jeonui-myeon
雲堂里
陽谷里
達田里
金沙里
多方里
全東面
Jeondong-myeon

전의면의 터전과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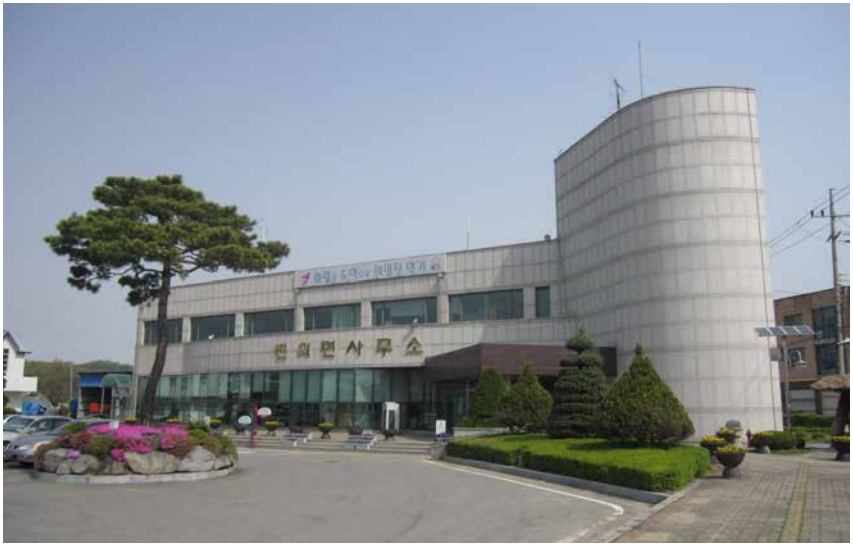
전의면全義面은 1914년까지 전의현(군) 고을의 중심지였다. 전의현 지역은 원삼국시대에는 마한馬韓의 54개국 중 하나였고 백제시대에는 구지현仇智縣인데, 신라에서 금지현金池縣으로 고쳐 대록군大麓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전의현으로 고쳐 청주淸州 임내에 붙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에 처음으로 전의현을 통치하는 감무를 두었고, 태종 14년에 연기현과 합쳐서 전기현으로 고쳤다가, 태종 16년에 다시 나누어 전의현으로 하고 수령으로 현감을 파견하였다.

조선후기 전의면 지역은 전의현 관내의 읍내면 대서면 소서면 북면 지역에 해당한다. 『여지도서』 전의현 방리조에는 읍내면에 4개리, 소서면에 4개리, 대서면에 3개리, 북면에 4개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호구총수』에는 현내면에 4개리, 소서면에 5개리, 대서면에 3개리, 북면에 5개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말의 마을명을 수록하고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마을명이 대폭 증가하여 군내면에 11개 동리, 소서면에 23개 동리, 대서면에 18개 동리, 북면에 18개 동리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전의면 마을의 면리 변천

	여지도서	호구총수	한말
읍내면 (현내면, 군내면)	서부리(西部里) 북부리(北部里) 동부리(東部里) 남부리(南部里) [4]	서부리 북부리 동부리 남부리 [4]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북부리 덕현리 동교리 상산직리 중산직리 모산리 구교동 하북부리 [11]
소서면	돈지리(頓地里) 양지리(陽地里) 사기소리(沙器所里) 만노곡리(萬老谷里) [4]	돈지리 양지리 사기소리 마산리(馬山里) 압곡리(鴨谷里) [5]	돈지리 영성리 당리 신암리 마산리 상만곡리 하만곡리 압곡리 상세곡리 하세곡리 양지리 용지리 부거곡리 하달전리 상달전리 하사기소리 상사기소리 신리 양방이동 음방이동 금성동 사방동 다락동 [23]
대서면	생송리(生松里) 산음리(山陰里) 덕평리(德坪里) [3]	생송리 천서리(川西里) 가덕동리(加德洞里) [3]	장항리 고성리 삼성리 원당리 사사리 생송리 양안리 다운천리 어천리 피덕리 내삼천리 외삼천리 천서리 산음리 외오류동 내오류동 가덕동 관정동 [18]
북면	유점리(鍮店里) 상타우리(上打愚里) 갈정리(葛井里) 거노곡리(居老谷里) [4]	고등리(高登里) 대부리(大夫里) 갈정리 거노곡리 신대리(新垈里) [5]	갈정리 한정리 음한곡리 양한곡리 신대리 상노곡리 중노곡리 하노곡리 중대부리 하대부리 고등리 삼기리 아야목리 맹곡리 역리 유동 내동 상대부리 [18]
덕평면			당리 광암리 평리 요곡리 운강리 양리 부곡리 주점리 내동 [9]

전의면 사무소



1	2
3	4

1 애국지사추모비 전면
2 애국지사추모비 후면
3 전의면사무소 각종공적비들
4 전의면사무소 독립유공자 비

1914년에는 연기군과 전의군이 합쳐지면서 연기군 전의면이 처음 등장한다. 이때의 전의면은 종전의 전의군 군내면, 북면, 대서면, 덕평면 등이 합쳐지면서, 노곡리 관정리 신정리 고등리 읍내리 동교리 서정리 유천리 원성리 신흥리 운당리 소정리 대곡리의 13개리로 구성되었으며, 읍내리에 면사무소가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에 연기군 전동면의 금사리, 다방리, 달전리, 신방리, 양곡

리, 영당리가 전의면으로 이속되어 현재의 전의면은 15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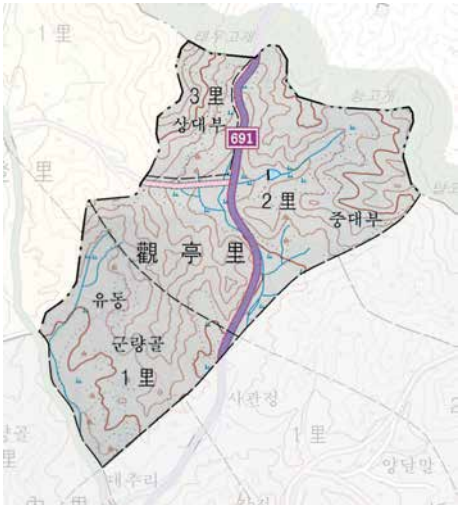
전의면 15개리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등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전의면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1995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관정리	북면 상타우리(上打愚里)	북면 대부리	전의군 북면 상대부리 중대부리 하대부리 유동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전의면 관정리
2	금사리	소서면 사기소리(沙器所里)	소서면 사기소리	전의군 소서면 상사기소리 하사기소리	연기군 전동면 금사리	전의면 금사리
3	노곡리	북면 거노곡리(居老谷里)	북면 거노곡리	전의군 북면 상노곡리 중노곡리 하노곡리	연기군 전의면 노곡리	전의면 노곡리
4	다방리			전의군 소서면 다락동 신리 사방동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	전의면 다방리
5	달전리			전의군 소서면 용지리 상달전리 하달전리 부거곡리 금성동	연기군 전동면 달전리	전의면 달전리
6	동교리			전의군 군내면 동교리 상산직리 중산직리 구교동 모산리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전의면 동교리
7	서정리		대서면 천서리	전의군 대서면 천서리 산음리 관정리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전의면 서정리
8	신방리	소서면 돈지리(頓地里)	소서면 돈지리	전의군 소서면 돈지리 양방이동 음방이동 신암리 장산리 남면 도산리	연기군 전동면 신방리	전의면 신방리
9	신정리	북면 갈정리(葛井里)	북면 갈정리	전의군 북면 갈정리 한정리 양한곡리 음한곡리 신대리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전의면 신정리

10	신흥리	대서면 생송리(生松里)	대서면 생송리	전의군 대서면 사사리 생송리	연기군 전의면 신흥리	전의면 신흥리
11	양곡리	소서면 양지리(陽地里)	소서면 양지리	전의군 소서면 압곡리 상세곡리 하세곡리 양지리	연기군 전동면 양곡리	전의면 양곡리
12	영당리	소서면 만노곡리(萬老谷里)		전의군 소서면 영성리 당리 상만곡리 하만곡리	연기군 전동면 영당리	전의면 영당리
13	원성리			전의군 대서면 장항리 고성리 삼성당리 원당리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전의면 원성리
14	유천리			전의군 대서면 양안리 내오류동 외오류동 다운천리 어천리 덕평면 주점리(일부)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전의면 유천리

전의면 관정리



조사대상 강릉김씨 송오공파, 순천박씨, 거창신씨 감정공파, 우봉이씨 감찰공파

관정리觀亭里는 1914년에 전의군 북면 상대부리 중대부리 하대부리 유동이 합쳐져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가 되었다. 관정리라는 지명은 이곳에 있는 사관정에서 유래한다.

사관정은 뇌암서원터 아래에 있는 정자로 효종 때의 학자인 타우 이상이 창건하였다. 타우打愚 이상李翔이 산을 바라보고[觀山], 농사짓는 것을 바라보고[觀農], 내를 바라보고[觀水],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을 바라보아[觀漁] 사관정四觀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정리의 '대부'라는 지명은 그 연원이 매우 오래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고적조에는 대부향大部鄕이 전의현 치소로부터 북쪽으로 6리의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이 대부향에서 대부리라는 지명이 기원한 것이다.

대부향은 고려시대에 '향, 소, 부곡' 등으로 일컬어지던 특수 행정구역 중 하나인 '향'이었다. '향'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집단의 정착지, 촌락 본래의 형태인 공동체의 보존과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른 예속관계와의 대립·모순, 또는 반역죄인

관정리 느리골 마을전경

느리골 입구의 장승

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마을,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향에는 대부천이 있었다. 대부천은 구리옹 고개에서 발원하여 고산의 작은 냇물과 합류하고, 또 호암을 지나서 생졸천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한편, 관정3리는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인 박팽년의 부친 박중림 삼형제가 살았던 마을로, 그들이 모두 대부 벼슬을 하였으므로 마을 이름도 '대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향'이 후대에 미화되고 윤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향은 '태우향' '타우향'으로도 불린 듯 하다. 관정리에 살았던 우봉이씨 이상의 호 '타우'는 여기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 방리조에는 북면에 상타우리上打愚里가 전의현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82호, 인구는 남자 131명, 여자 129명이다. 『호구총수』에서는 전의현 북면에서 '대부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향이 태우향 타우향으로도 불리웠고, 조선후기의 면리제 실시에서 '타우리' 또는 대부리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취촌」은 일명 「대추리」라고도 하는데 취금헌 박팽년의 호를 따서 「취촌」이라 했다 한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관정리의 여러 마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 태우[大夫, 大部]이고, 태우 위쪽에 있는 마을이 상태우[上大夫], 태우 중앙에 있는 마을이 중태우[中大夫], 태우 아래 쪽에 있는 마을이 하태우[下大夫]인데, 사관정이란 정자가 있어서 사관정四觀亭이라고 하였고, 사관정 옆에 있는 마을인 대추리[醉村]는 큰 가래나무가 있었다 하며, 이곳에 술이 많이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시루성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옛날 태우향이 있을 때 시루

성을 쌓고 이곳에 군량을 두었다는 군량골[良谷]은 1914년까지 이곳에 전의군 북면사무소가 있었으며, 땅을 파다가 수백년된 진창미陳倉米가 나왔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군량골 부근에 있는 마을로 느릅나무가 많이 있는 느릿골[楡洞], 시루봉 동북쪽 밑에 있는 마을로 찬 우물이 있고 절이 있는 찬샘골 등이 실려 있다.

관정리 강릉김씨 송오공파

전의면 관정리에는 강릉김씨江陵金氏 송오공파松塢公派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파조 및 입향조는 두문동杜門洞 72현의 한사람인 김승로金承露(1359~1438)로 자는 천뢰天賚, 호는 송오松塢이다. 그의 아버지는 고려 말 왜구 토벌에 공훈이 있는 충절공忠節公 김사혁金斯革, 어머니는 군기시사軍器寺事를 지낸 김영리金英利의 딸 광산김씨光山金氏이다. 김승로의 부인은 안유安裕의 증손녀인 순흥안씨順興安氏이다.

김승로는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이 두 형제와 함께 태학太學에서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두 스승으로부터 고려의 앞날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관직에 나가서는 헌사憲司의 형부刑部와 4개 주현州縣에서 벼슬을 지내면서 치적이 많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다. 그러나 지인주사知仁州事로 있을 때, 고려의 기운이 쇠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김휴金休, 최호崔浩, 원천석元天錫, 서견徐甄 등과 함께 송악강사松岳講舍에서 강론을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김승로는 고려가 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강론을 하던 김휴, 최호 등과 함께 관복을 찢어 동문 밖에 걸고 서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는 통곡하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전의면 관정리 느리골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
2

1 느리골 강릉김씨 조사모습1
2 느리골 강릉김씨관련 자료들

태종이 그 청절淸節을 가상히 여겨서 김승로에게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제수하고 여러 차례 조정으로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전의현의 부로곡扶老谷(현재의 전동면 청남리)에 장사를 지냈다. 1439년에 우의정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충의忠義이다.

김승로의 묘소는 전동면 청남리 산 35-1에 있고, 묘 앞에는 1439년에 세

느리골 강릉김씨 종중묘역

워진 구묘갈과 1986년에 세워진 신묘갈, 그리고 1961년에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후손으로는 결성현감을 지낸 김백훈金伯塤, 참의參議를 지낸 김맹아金孟雅, 청양현감靑陽縣監을 지낸 김중아金仲雅를 비롯하여 김소金韶, 김수례金守禮, 김익金翼, 김상택金尙宅 등이 두루 벼슬을 하였고, 효행으로 이름 난 김계홍金啓洪, 김병의金秉儀, 김연희金演熹 등이 있다. 강릉김씨 송오공파는 관정리 외에 전동면 석곡리, 서면 쌍류리에도 거주하고 있다.

관정리 순천박씨

전의면 관정리 순천박씨 입향조는 박안생朴安生(1400년대 초반)이다. 그는 사육신 중의 한명인 박팽년의 조부이다. 호는 학석정學石亭으로 순천박씨 중시조인 박숙정朴淑貞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고려조에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박원상朴元像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이다.

1670년(현종 11)에 간행한 순천박씨족보(일명 : 상주초보)에 의하면, 박안생의 아버지인 박원상朴元象이 원래 회덕 홍룡리에 살았다는 기록이 전하고, 박원상의 묘소는 유성 동쪽 별대리 둔이동에 있다고 정조 9년에 간행한 순천박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주 유성에 자리잡고 살았던 듯하다.

박안생은 전의현의 안동김씨로 한성윤漢城尹을 지낸 학당 김휴金休의 둘째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순천박씨가 전의면 관정리 박동에 입향하게 되었다. 즉 박안생은 혼인한 이후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

박안생은 슬하에 4남을 두었는데, 관정리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성씨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장남 박맹림은 상대부에, 박중림은 중대부에, 박계림은 하대부에 거주하였기에 상・중・하 삼대부리三大夫里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중 박중림은 안동김씨와 혼인하였으

1
2 3

1 박안생묘소 전경
2 박안생 옛묘비. 글씨가 잘보이지 않을만큼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3 박안생 신묘비

며, 그 장남이 바로 세조조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가 화를 입은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1417~1456)이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의 묘는 박동에 있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박팽년 조부모 묘역은 위에 조모를 모시고 아래에 조부를 모신 위아래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전성지』에 기록되어 있다. 관동리에 박동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순천박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전의면 관정리 박동 중대부에는 박안생이 지었다는 한석정寒石亭의 유허가 남아있다.

관정리 거창신씨 감정공파

전의면 관정리 취촌에 세거해온 거창신씨居昌愼氏는 양간공파襄簡公派로 입향조는 공조좌랑工曹佐郞을 지내고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증직 받은 신재愼在(1537~1605)이다. 자는 효길孝吉이며, 아버지는 울산군수蔚山郡守,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지낸 신방좌愼邦佐, 어머니는 사직司直을 지낸 곽문형郭文亨의 딸인 청주곽씨淸州郭氏이다. 부인은 첨정僉正을 지낸 이변李忭의 딸인 고성이씨固城李氏다. 신재가 군자감정에 증직되었기 때문에 신재의 후손을 감정공파라고도 한다.

입향유래는 중종반정으로 낙향한 신재의 조부(양조부) 신수정愼守正(1474~1520)이 관정리의 인접마을인 현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농골)에 정착했기 때문에, 말년인 1600년대 무렵에 선영이 있는 전의면 관정리 취촌에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후손으로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를 지낸 신수호愼秀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지낸 신수준愼秀埈,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신경윤愼景尹,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總管을 지낸 신익흠愼益欽,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지낸 신후윤愼後尹, 1691년(숙종 17)에 익위사翊衛司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지낸

신이의愼爾儀 등이 있다.

관정리 취촌에는 입향조 신재를 비롯한 신후윤, 신이의의 묘와 묘갈이 있으며, 다인동(천안시 성남면 대흥리) 묘위전 문건 등을 보존하고 있다.

이후 신재의 아들대(신수호, 신수준, 신수웅)에 이르러 전의면 관정리와 전동면 석곡리 일대로 분파한 것으로 추측된다.

관정리 우봉이씨 감찰공파

전의면 관정리의 우봉이씨牛峰李氏는 감찰공파監察公派로 이 마을의 입향조는 이상李翔(1620~1690)이다. 이상의 자는 운거雲車, 숙우叔羽이며, 호는 타우打愚이다. 그의 아버지는 참의參議를 지낸 이유겸李有謙이다.

이상은 송시열과 김집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유일遺逸로 벼슬에 올라 1661년(현종 2)에 자의諮議가 되고, 이어 정언・지평・진선・보의를 역임했다. 숙종이 즉위한 해인 1674년에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자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을 입는 문제로 제2차 예송논쟁이 일어났을 때, 서인의 입장을 취하고 있던 그는 대공설을 주장하다가 송시열 등과 함께 파직되었으며, 이듬해 영해寧海로 유배되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거세되자 다시 기용된 그는 형조・호조참의를 거쳐 대사헌을 지내고 이조참판에 올랐다가 1689년 기사환국(숙종 15)때 옥에 갇혀 사망했다. 사후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며, 저서로 『타우유고打愚遺稿』가 있다. 전의全義의 뇌암사雷巖祠에 제향祭享되었다.

이상이 관정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1642년이라고 전해지는데, 당시의 자세한 입향사유는 밝혀지지 않는다. 묘는 전의면 관정리 하대부에 있고, 묘소 앞에는 신도비와 재실이 있다.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교지敎旨가 있다.

문목사 정문

문목사 측면

1	2
3	4

1 문목사 내부 모습
2 문목사 문목공 위패
3 문목사 내부에 걸린 교지 강희 47년에 받은 것이다.
4 문목사 내부에 있는 현판 예전에는 뇌암서원이던 것이 훼철후 사당의 기능만 남고 이름도 문목사가 되었다.

↑ 사관정

→ 사관정 현판

전의면 금사리

조사대상 신천강씨 곡산파

금사리金沙里는 1914년에 전의군 소서면 상사기소리(위사기소)와 하사기소리(아래사기소)를 병합하여 이 부근에 있는 금성산과 사기소의 이름을 따서 금사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에 전의면으로 이관되었다.

사기소沙器所는 금사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고려초부터 조선조까지 이곳에 사기소를 두고 사기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여지도서』에도 전의현 소서면에 사기소리沙器所里가 수록되어 있다. 위치는 전의현 치소 관문官門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의 거리이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編戶가 93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147명, 여자 187명이라고 한다. 『호구총수』에도 소서면에 사기소리가 수록되어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사기소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위사기소[上沙器所]이고, 사기소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사기소[下沙器所]인데, 주막이 있어서 주막뜸[酒幕村]이라고도 했다. 사기소(마을)에서 공주군 의당면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사기소고개[沙器所峙]이고, 사기소에서 공주군 정안면 어무실로 넘어가는 고개는 어무실 고개이다.

금사리 마을 모습

1

2

3

4

1~4 금사리를 알리는 마을입구 조형물들

금사리 주민들이 모아 놓은 공덕비군

군수 영세불망비(19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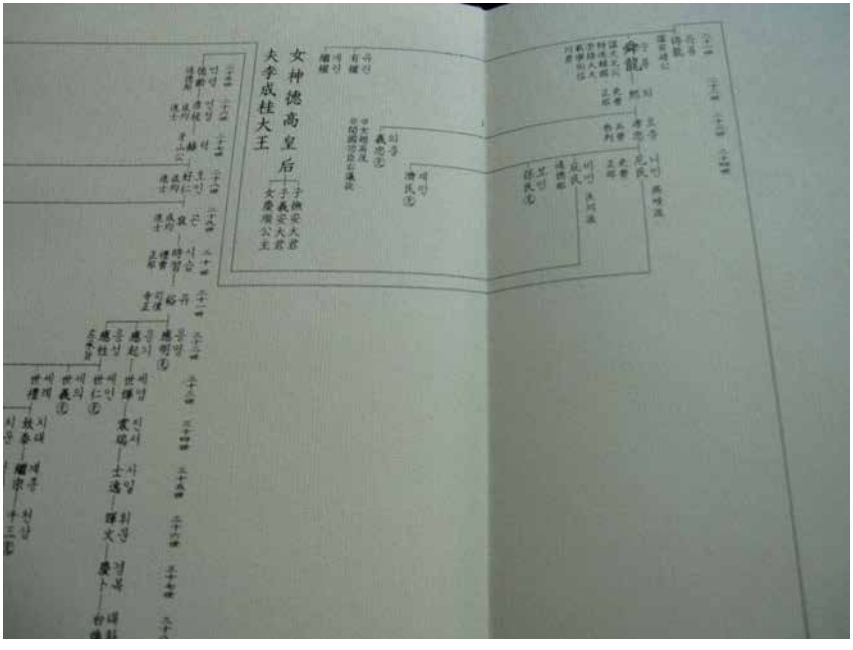
이장 공적비(1975년)

상수도 관련 공덕비(1999년)

신천강씨 족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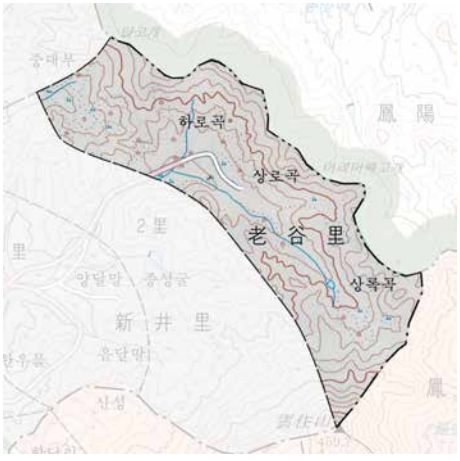
금사리 신천강씨 곡산파

금사리에 거주하는 신천강씨는 곡산파이다. 신천강씨 곡산파는 15세기 후반에 강진경康晋卿이 금남면 발산리에 입향하여 세거하였고(연기파), 16세기 중엽에 강혁康赫(27세손)이 남면 고정리에 이거하여 살았다고 한다. 묘소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남면 고정리에 살던 강혁의 고손자 강징康澄(31세손)이 전의면 다방1리로 옮겨왔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다방리에 살고 있어서 연기 다방파라고 불린다. 이 후손의 일파가 공주 의당으로 이주했다가, 금사리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신천강씨 족보
내용중 신덕황후가 보인다.

전의면 노곡리



조사대상 결성장씨 연기파, 밀양박씨 연안공파

노곡리老谷里는 1914년에 전의군 북면 상노곡리, 중노곡리, 하노곡리를 병합하여 노곡리라 하여 연기군 전의면에 편입하였다. 노곡리는 갈실, 가리실, 거리실이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노곡蘆谷이라고 썼다. 신정리의 갈우물(가나물) 위쪽 골짜기가 되므로, 갈실 또는 가리실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거리실이 되었으며, 또는 갈실을 노곡이라 하였다 한다. '蘆'는 갈대를 뜻하니, 갈실의 뜻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전에 사람이 먹는 백토가 나왔는데, 조사한 결과 상고 때 쌓아 두었던 쌀이 흙에 묻혀 백토로 된 것이라고도 전한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북면에 거노곡리(거노곡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79호, 인구는 남자 136명, 여자 141명이었다. 거노곡리는 『호구총수』 북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거리실 중앙에 있는 마을이 가운데거리실[中蘆谷]이며, 거리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위거리실[上蘆谷], 거리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거리실[下蘆谷]이다.

노곡리(상노곡)

노곡리(하노곡)

노곡리 표지석

또한 거리실에서 천원군 성남면 밤실로 넘어가는 고개가 어리미재[冰峴]인데, 고개가 높고 골이 깊어서 도적이 많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넘어 다녔다고 한다. 거리실에서 성남면 중실로 넘어가는 고개가 중실고개이며, 거리실 뒤에 있는 산은 산봉우리 둘이 쌍으로 있는데, 위 봉우리는 좀 높고, 아래 봉우리는 좀 낮아서 형제봉兄弟峯이라 불린다.

노곡리 결성장씨 연기파

전의면 노곡리의 결성장씨 연기파는 연기지역 입향조인 장효충張孝忠(1470~1572)의 후손이다. 장효충의 호는 노은蘆隱으로, 평장사平章事 장하張夏

의 후손이다.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관직은 집의執義를 지냈다. 김굉필金宏弼과 김종직金宗直, 정여창鄭汝昌 등과 교류하였으나 사화를 피해 낙향하였다. 조정에서 남효온南孝溫, 유호인兪好仁 등을 보내 초빙하였으나, 끝까지 나가지 않고 임천林泉에서 자적自適하였다. 장효충의 일가는 전동에서 세거하다가 증손자 장훈張訓에 이르러 동면으로 이거하였으며, 동면 3대 성의 하나로 일컬을 만큼 성장하였다. 장효충의 묘는 전동면 상노장 원직리에 있다.

노곡리 밀양박씨 연안공파

전의면 노곡리에 거주하는 밀양박씨密陽朴氏 연안공파延安公派의 파조는 연안도호부사延安都護付使를 지낸 박승조朴承祖(1564~1640)이다. 연안공파의 다방리 입향조는 박승조의 여섯째 아들 박자동朴自同(1500년대)으로 자는 인길仁吉, 호는 노계老溪이다.

밀양박씨 연안공파는 소정면 대곡 4리 대사동에 처음 입향하였는데, 이후 후손들은 근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파한 것으로 보인다. 박자동의 어머니는 감찰監察을 지낸 구극인具克仁의 딸 능성구씨綾城具氏이고, 부인은 남원양씨南原梁氏이다.

박자동이 입향한 시기는 1600년대 초반으로 추측되며, 입향유래는 상노곡에 거주하고 있던 처가인 남원양씨를 따라 분가分家한 것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박자동의 묘는 전의면 다방리 사방동에 있다.

전의면 다방리

조사대상 제주고씨 문충공파, 경주김씨 송애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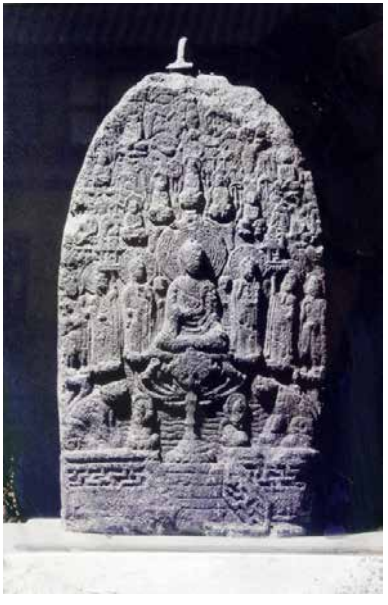
다방리多方里는 1914년에 전의군 소서면 다락동 신리 사방동이 합쳐져 다락과 사방의 이름을 따서 다방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이 되었다가, 1995년에 전의면으로 편입되었다.

다방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사방골[舍方洞]로, 북동쪽에 높은 산이 있고 서쪽이 트이었다. 사방골 서쪽에 있는 마을은 지형이 다락같이 생겼다고 다락골[多樂洞]이라고 불리며, 다락골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앞에 수렁 논이 많이 있어서 수랑골[水涼洞], 새로 된 마을이라 신리[新里]라고도 불린다.

사방골 북쪽에 비암사碑岩寺라는 절이 있으며, 다락골에서 공주시 의당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의당면에 동혈사가 있어서 동혈재[銅穴峙]라 불린다.

'비암사의 저녁종소리[碑岩晩鐘]'는 연기팔경燕岐八景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졌다.

사방골 마을 모습



1	
2	3

1 비암사 소장 괘불탱화
2 비암사 출토 기축명 아미타여래 제불보살석상
3 비암사 출토 미륵보살 반가석상

비암사 부도

비암사 종각

비암사 전경

비암사 극락보전

다방리 제주고씨 문충공파

전의면 다방리 제주고씨濟州高氏 문충공파文忠公派는 파조인 문충공 고경高慶의 13세손인 고여우高汝雨(1500년대 후반)가 입향조로 알려져 있다. 선조가 제주도에서 전라도로 옮겨와 살다가 고여우에 이르러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고여우의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낸 고백원高伯元,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그의 부인은 김제조씨金堤趙氏와 단양우씨丹陽寓氏가 있었으며,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다.

현재 고여우의 묘는 서면 쌍류리에 있으나, 원래는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마가산에 있던 것을 1995년 3월에 이장한 것이다. 그런데 고여우와 배위 단양우씨, 아들 고경행高擎行 등 3위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복식服飾, 만사輓詞, 명기明器, 토기土器, 한지韓紙, 삽翣(부채) 등 80여 점의 부장품이 나왔다. 이중 복식류는 현재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제주고씨 문중 조사

고여우는 무과에 급제했다고 한다. 벼슬은 보사공신保社功臣 중부주부中部主簿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고, 정삼품 통정대부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선조실록』에서도 1604년(선조 37) 윤9월 3일에 감찰에 제수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혹 다른 기록에서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 행전라수군절도사行全羅水軍節度使를 지냈고,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고도 한다. 그는 임진왜란 때 첨사僉使로 적병을 죽이고 생포하여 그 공적이 『삼강록三綱錄』에 기록되어 있다.

고여우가 전의면 다방리에 입향한 계기는 피난처라는 점 외에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묘소의 위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천안 풍세에 살다가 고손자인 고춘영高春永 즈음에 전의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토유물 가운데 만사를 검토해 보면, 서울에 살다가 호서에 내려와 산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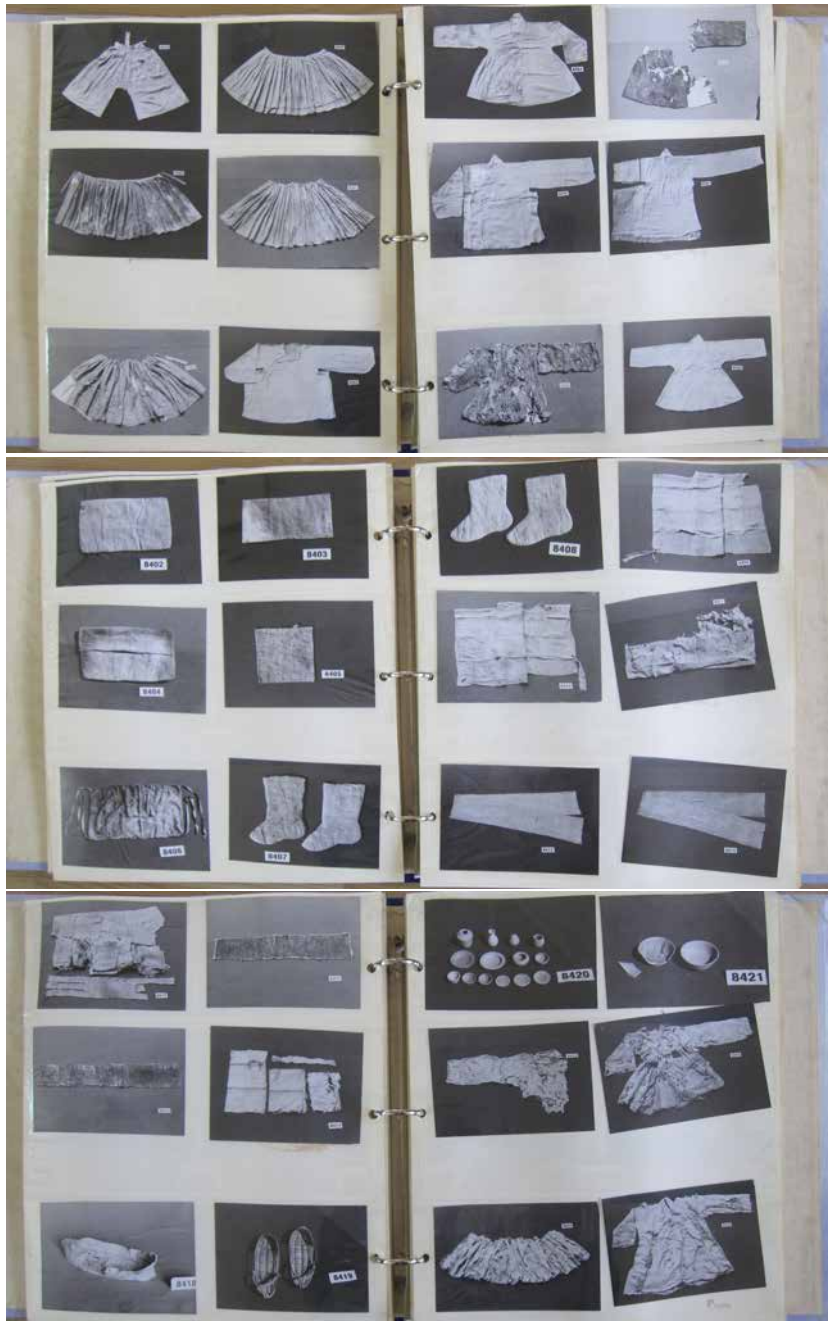
제주고씨의 후손들

제주고씨
다방리
입향조로
추정되는
고춘영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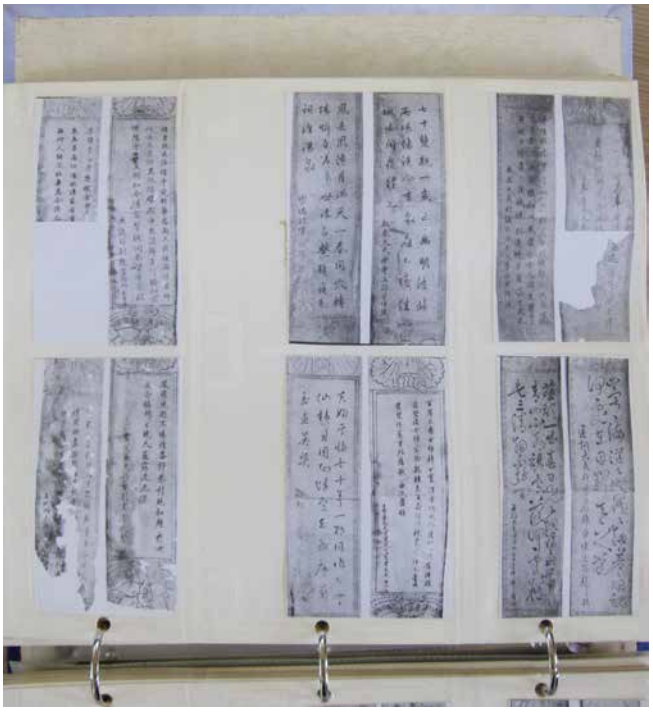
제주고씨
선산

←↑ 제주고씨 고여우의 묘

제주고씨 문중 족보



제주고씨 문중 출토복식 관련 사진과
관련 연구논문이 실려 있는 학술지



제주고씨 문중 출토복식 관련 사진과 보도자료

수랑골 김씨 재실

다방리 경주김씨 송애공파

전의면 다방2리의 경주김씨慶州金氏는 송애공파松涯公派로 김경여金慶餘(1596~1653)를 파조로 한다.

입향조는 김경여의 증손자인 김사상(1600년대 중반)으로 아버지는 김순석金順錫(1644~1710)이며 어머니는 박의순朴義淳의 딸인 충주박씨忠州朴氏이다.

김사상은 증조부인 김경여가 1637년 벼슬을 버리고 회덕으로 낙향한 이후, 아버지 김순석대에 이르러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내의랑內義浪 마을로 분가하여 살았는데 이때 큰 화재로 인해 1600년대 말경 공주를 떠나 전의면 다방2리 수랑골로 이주하였다고 전해진다. 김순석의 묘는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에 있으며, 경주김씨 송애공파 재실인 낭금사浪金祠가 1999년에 건립되었다.

다락골 풍경

다락골의 경로당

다락골의 아주머니들

다방2리 마을회관

1 수랑골의 공동우물
2 수랑골 공동우물 수랑정과 새마을 사업 기념비

수랑골 새마을 사업 기념비

수랑골 우물옆에 세워진 출향인사 명단

수랑골 정자 안심정

수랑골에서 다락골로 가는길

수랑골 진주유씨 재실

전의면 달전리

조사대상 전주이씨 덕천군파, 효자 박이명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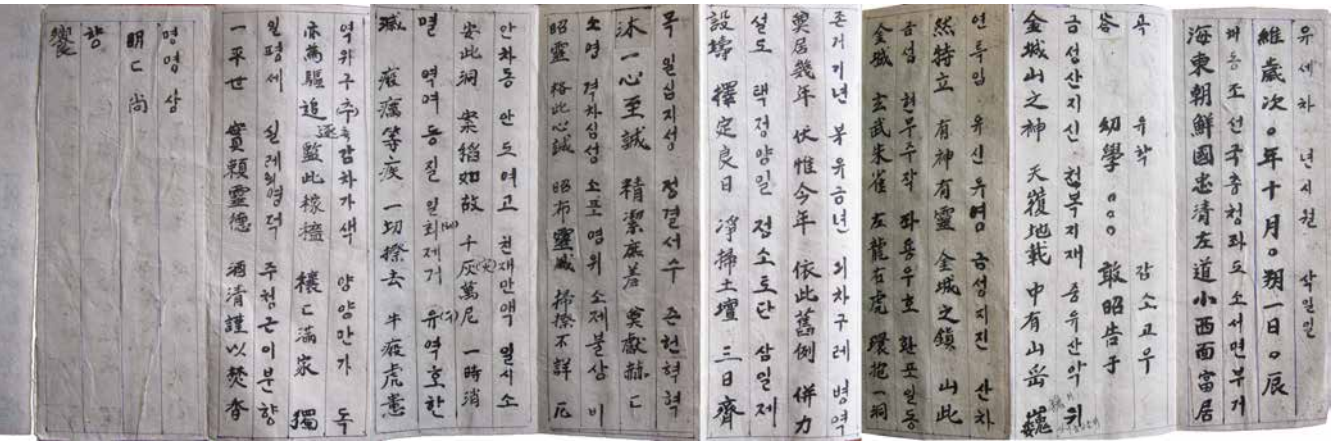
달전리達田里는 1914년에 전의군 소서면 용지리 상달전리 하달전리 부거곡리 금성동이 합쳐져 연기군 전동면 달전리가 되었고, 1995년에 전의면으로 편입되었다.

달전리[다락골, 달전]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다락과 같으므로 다락골, 또는 달전이라 하였는데, 다락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위다락골[상달전], 다락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 다락골[하달전]이다. 부거실[부개실, 富居谷]은 쇠성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어떤 부자가 좋은 산수를 찾아 이곳에 살았다고 전하며, 쇠성골[金城洞]은 금성산 남쪽 밑에 있는 마을이다.

부거실에서는 예전부터 산제를 지내왔다. 원래는 생기복덕을 가리고 좋은 날을 잡아서 산제를 지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는 생기복덕 닿는 사람이 없어서, 음력 10월 1일 밤(12시에서 1시)에 지내고 있다고 한다. 부거실 아랫동네와 윗동네가 따로따로 지냈다. 아랫동네는 남자들만 참여하고, 윗동네는 방까지 마련해 놓고 여자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비암골에서 서면 쌍류리의 권텃골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가 권텃골 고개[서면고개]이고, 부거실에서 다방리의 사방골로 넘어가는 고개가 사방골 고

부거실 마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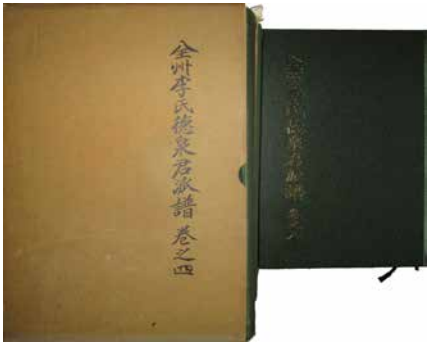
부거실 산제 제문

개, 부거실에서 다방리의 비암사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비암골[碑岩谷]이며, 쇠성골에서 서면 쌍류리의 솔티로 넘어가는 고개가 솔티고개이다. 또한 아래다락골 북동쪽에 있는 산은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용두미[龍頭尾, 용못, 龍池]라고 불린다.

달전리 전주이씨 덕천군파

달전리에 살고있는 전주이씨는 덕천군德泉君파이다. 덕천군(1397~1465)은 정종定宗의 10남으로 모친은 성빈지씨誠嬪池氏이며, 배위는 고택군부인高澤郡夫人 장수이씨長水李氏이다. 덕천군의 이름은 이후생李厚生이다. 1444년(세종 26) 명선대부 덕원정德原正으로, 이후 덕천정德川正으로, 1460년에 덕천군德泉君으로 봉해졌다. 덕천군은 경서經書의 대

전주이씨 족보 표지



의大義를 통달하였다는 걸로 보아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덕천군파의 전의 입향조는 덕천군의 9세손인 이운망李雲望으로 알려져 있다. 입향동기는 피난처를 찾아 왔다고 한다.

달전리 효자 박이명 정려

달전리達田里 윗다락골 안쪽으로 국사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동남향사면 하단부에 효자 박이명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정려는 1891년(고종 28)에 명정을 받았다.

박이명朴履命(1823~1890)의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성지性之이다. 영성군 박문수朴文秀의 증손이며, 박승규朴勝圭의 아들로 배위는 전의이씨全義李氏 이대장李大將의 딸이다. 박이명은 1857년(철종 8) 무과에 급제하고 남포현감을 역임한 후에 이곳 전의로 입향했다고 전해진다.

박이명은 어려서부터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등 효성이 지극하여 주위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전한다. 자라서는 남의 집 잔치에 갔다가 돌아 올 때면 항상 음식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기 위해서 종이를 달라고 하여 음식을 싸갖고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예를 다하여 장사지내고 반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반은 부친의 묘에서 시묘를 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라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모친상을 당하여서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길가의 사람들이 감동하여 길을 쓸어 주었다. 이에 사림에서 이 사실을 알리자 1891년(고종 28)에 정문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남포현감을 역임한 뒤 남포에서 선정비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충남 보령시 웅천면 대천리에 남아 있다고 전한다. 정려의 뒷쪽에 있는 산에 박이명의 묘소가 있다.

박이명 정려

박이명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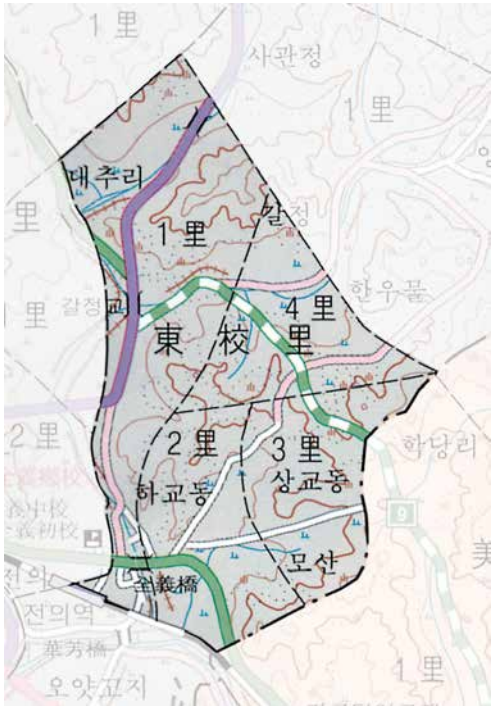
박이명의 묘

이 정려는 원래 종가집의 대문에 정문으로 걸려 있었는데, 종가 건물이 퇴락하여 보존이 어렵게 되자 박이명의 손자 박동빈朴東彬이 1946년에 현재의 정려를 건립하였고, 1994년 단청 보수하였다.

정려는 정·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화강석재의 원형 초석 위에 둥근기둥을 올리고, 정려의 3면은 시멘트로 막아서 마무리 하였으며, 전면에만 홍살을 돌렸다. 창방 위에는 5개의 소로를 올려 놓았으며, 양측면의 박공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려의 내부 중앙 상단부에는 효자 박이명에게 1891년 명정했음을 나타내는 현판(孝子 通政大夫行藍浦縣監 兼 洪州鎭管兵馬節制都尉 朴履命之門 上之卽阼 二十九年 辛卯 十二月日 命旌, 217cm×21cm)이 있다.

전의면 동교리



조사대상 거창신씨 대사헌공파, 김해김씨 안경공파, 판서 홍억의 묘소와 신도비

동교리東校里는 1914년에 전의군 군내면의 구교동 동촌 상산직리 중산직리 모산리가 합쳐져 동촌과 구교동의 이름을 따서 동교리라 하여 연기군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옛날 이곳에 향교가 있었다 하여 동촌 마을과 구교동의 이름을 따서 동촌리라 부르다가 동교리가 되었다. 조선초기부터 이곳에 있던 전의향교는 1649년에 전의현 관아 남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1683년에 현재의 위치인 관아 서쪽으로 이건하였다.

생골[구교동(舊校洞)]은 동교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이곳에 전의 향교가 있었으며, 생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생골[下校洞], 생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 산직집이 있어서 산직말[山直里, 上校洞], 전의 읍내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 동촌東村, 동촌 동남쪽 산 모퉁이를 돌아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도람말이다.

동교리 거창신씨 대사헌공파

동교리 거창신씨 대사헌공파는 족보에 의하면, 거창신씨 15세손인 신승복愼承福이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다. 묘소의 위치를 추적해 보면, 신승복의 묘소는 풍양에 있으며, 16세손 직장공 신수정愼守正의 묘소와 17세손 판관공 신방보愼邦輔, 군수공 신방좌愼邦佐의 묘소는 목천 남면 다인동에 있다. 그런데 신방좌의 계자인 신재愼在(1537~1605)의 묘소는 전의 관정리 취촌에 있고, 19세손 신수호愼秀豪는 관정리 군량골, 신수준愼秀俊은 전동면 보덕리 심천, 신수웅愼秀雄은 전동면 송성리 수회동에 있다. 따라서 신방좌의 계자인 신재부터 전의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재의 친아버지는 신방좌의 6촌인 신희복愼希復(1493~1566)이며, 신유愼有, 신존愼存은 형제이다. 거창신씨는 신승복의 동생인 신승선의 딸이 연산군의 비이며, 신수근(1450~1506)의 딸(신승선의 손녀)이 중종비인 단경왕후이다.

신수웅의 초배는 밀양박씨이고 후배는 전의이씨이다. 신수웅의 아들 가운데 신영망은 김집 송준길 정호와 동문으로 친교를 맺었다고 하며, 신영망의 조카인 신태윤은 송시열로부터 강호의 호걸지재라며 제세경륜지재라고 칭찬받았다고 한다.

동교리 김해김씨 안경공파

전의면 동교리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안경공파安敬公派로 파조는 김영정金永貞이다. 그동안 김해김씨 안경공파 동교리 입향조는 김희설金希契(1541~1609)이라고 하였다. 그의 자는 경양敬良이고, 아버지는 김이수金頤壽,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김희설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과 낙안군수樂安郡守를 지냈다고 한다. 김희설는 원래 충주 북촌北村 산척면山尺面 도동道洞에서 태어나 자란 후 한양에서 관직을 지내다가 만년에 전의면 동교리로 낙향한 것으로 추측되며, 자세한 입향 내용은 전

해지지 않는다. 후손으로 숙종 조에 우의정을 지낸 김우항이 있다.

그런데 후손들은 묘소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이전의 묘소가 주로 공주 의당에 있으며, 150여년전쯤 사셨던 분들부터 전의에 묘소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교리에 온 것을 1840년대에서 1850년대 쯤으로 보기도 한다.

김해김씨 안경공파는 전의면 동교리 외에 소정면 소정리에도 거주하고 있다.

동교리 판서 홍억의 묘소와 신도비

전의면 동교리에는 판서 홍억洪檍(1722~1809)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홍억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판 숙璹이고, 아버지는 충청도관찰사를 지낸 용조龍祚이며, 어머니는 이창령李昌岭의 딸이다.

1753년(영조 29)에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지평이 되었으며, 이듬 해 전적・정언・이조좌랑 등을 거쳐 교리가 되었으나, 왕세자(莊獻世子)에게 극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흥해에 유배되었다.

그 뒤 풀려나 1765년 부수찬에 기용되었다. 이어 병조번고어사兵曹反庫御史가 되어 훈련도감의 재고부상목在庫腐傷木을 군사들에게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그 해에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정사 순의군順義君 항恒, 부사 김선행金善行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그의 조카이던 담헌 홍대용도 군관 직책으로 동행하여 청나라 과학자들과 사귀었으며, 담헌의 지구자전설이 청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홍억 묘 예전에는 이곳에 홍억의 묘 한기만 있었고 잔디가 잘 조성되어 전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소풍 장소였다고 한다. 지금은 홍억의 묘 아래로 3기의 묘가 더 조성되어 있다.

홍억 묘와 묘비 서향한 묘 앞에 묘비가 옆으로 세워져 있다.

홍억 묘비의 전면과 후면

동교리 비석거리에 세워진 홍억 신도비 전면

동교리 홍억 신도비를 조사하는 모습

홍억은 1767년에 부응교가 되었으며, 강원도암행어사로 다녀와 탐욕이 많고 비루한 회양부사 김광국金光國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1768년 보덕·집의 등을 거쳐 응교가 되었으며, 이 때 응제에 수석해 대녹피大鹿皮 한 장이 하사되었다. 이듬 해 의주부윤이 되어 사상私商 가운데 범법자를 잡아 참형에 처하였다. 1771년 강계부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간에 이어 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대사간으로부터 강계부사 재직시의 탐학을 이유로 탄핵을 받고 충군充軍되었다. 1787년 다시 대사간에 기용되었으며, 1789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영·호남 사이의 교통을 사사로이 차단해 면포綿布 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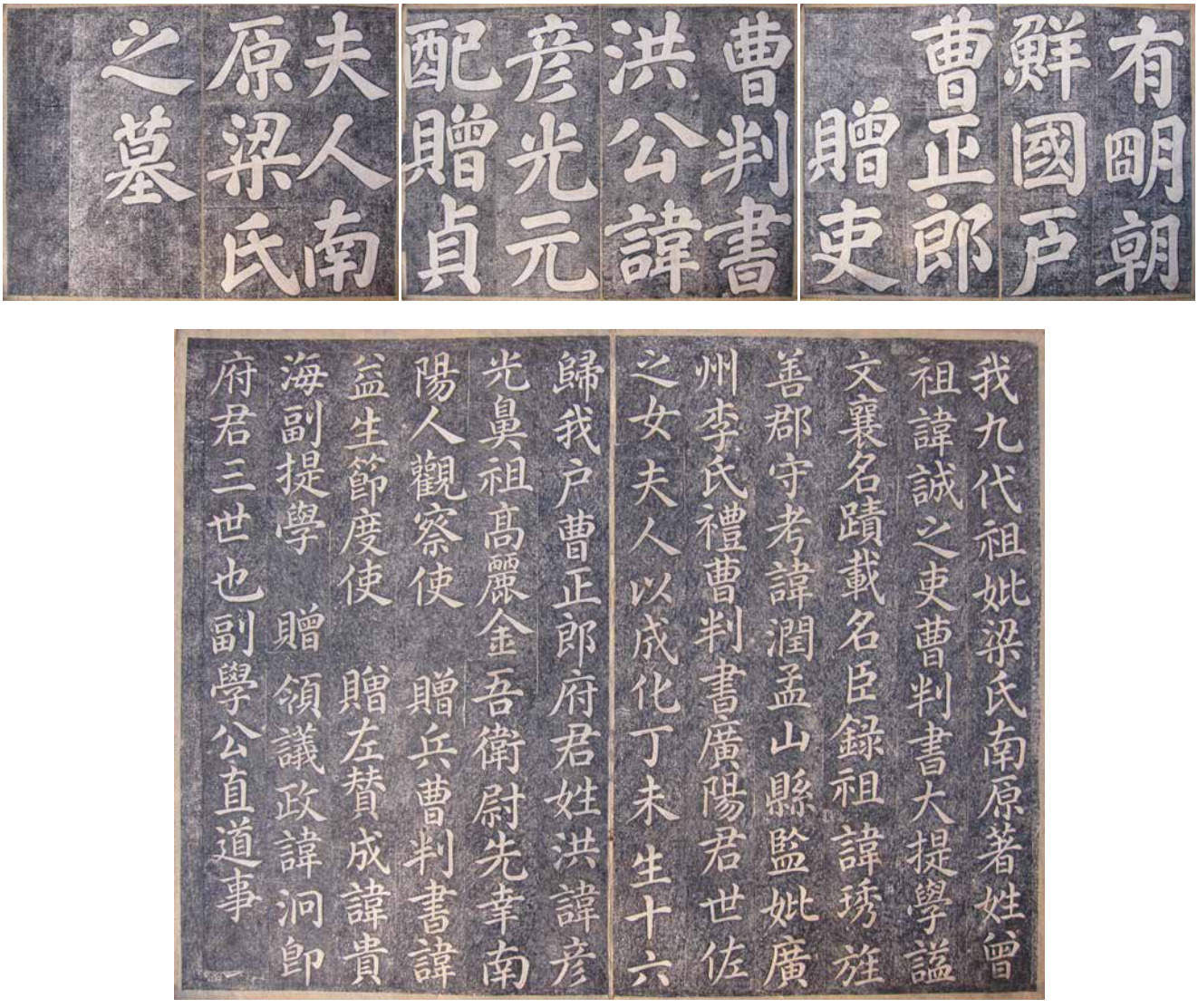
앙등시킨 죄로 파직당하였다.

이듬 해 대사헌이 된 뒤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한성부판윤, 예조·형조·공조 등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793년 판의금부사에 이어 지경연사를 겸하였다. 1798년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를 거쳐, 1804년(순조 4) 지의금부사가 된 뒤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홍억의 신도비는 홍석주가 글을 짓고, 이익회가 글씨를 썼으며, 이지연이 전서를 써서, 1822년(순조 22)에 건립하였다.

남양홍씨 후손가의 소장 자료

남양홍씨 후손가의 소장 자료


有明朝鮮國戶曹正郎贈吏曹判書洪公諱彦光元配贈貞夫人南原梁氏之墓

我九代祖妣梁氏南原著姓曾祖諱誠之吏曹判書大提學謚文襄名蹟載名臣錄祖諱琇旌善郡守考諱潤孟山縣監妣廣州李氏禮曹判書廣陽君世佐之女夫人以成化丁未生十六歸我戶曹正郎府君姓洪諱彦光臬祖高麗僉吾衛尉先葦南陽人觀察使贈兵曹判書諱益生節度使贈左贊成諱貴海副提學贈領議政諱洞卽府君三世也副學公直道事

남양홍씨 후손가의 소장 자료

전의면 서정리

조사대상 남양홍씨, 충신 홍직 정려

서정리西亭里는 1914년에 전의군 대서면의 천서리 산음리 관정리가 합쳐져 천서와 관정동의 이름을 따서 서정리라 하여 연기군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에서는 관련 마을 명칭을 찾아볼 수 없으나, 『호구총수』에서는 전의현 대서면에서 천서리를 찾을 수 있다.

서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관정골[감실, 강실, 강정골, 관정리]이다. 비룡산 밑으로, 처음에는 감실 또는 강실이라 하다가, 마을 앞에 늙은 느티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으므로 강정골 또는 관정觀亭골로 변했다고 한다.

내서[川西]는 시루성 서쪽 기슭에 있는 마을로 시내가 서쪽에 있어서 내서라고 부르며, 산양골[山陽]은 평전말 건너 산 양달쪽에 있는 마을이고, 평전말[山陰]은 관정골 아래 응달쪽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관정골 앞에 있는 들이 강실들[감실들], 강실들에 있는 내가 강실내[감실내], 관정골에서 유천리 거즐로 넘어가는 고개가 거즐고개, 관정골에서 군량골

서정리 남양홍씨 홍직의 후손들이 살고있는 서정리의 마을 모습

로 넘어가는 고개가 서래재고개이다. 서래재고개는 전의 읍내리의 주룡이 되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산맥을 끊는데 소리가 났다고 전하고 있다.

평전말 남쪽에 있는 바위는 여수바위[여우바위, 狐岩]로 모양이 여우와 같다. 1904년 경부선 철로를 놓을 때, 이 바위를 떨어내려고 하는데, 주관자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호령하므로 중지하였다고 전한다.

서정리 남양홍씨

전의면 서정리 남양홍씨 입향조는 홍익청(洪翼淸)으로 병자호란(1636년) 때 전의에 낙향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홍익청은 고려조 태사太師 홍은열洪隱悅

서정리 마을에서 정려로 가는 길

의 후손으로,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이조판서를 증직받은 홍사부洪士俯의 손자이며, 음직으로 군수를 지낸 홍이정洪李靜의 아들이다.

홍익청은 진사로서 호조참의를 증직 받았으며, 전의지역에 세거하고 있던 거창신씨 신몽상愼夢祥의 딸과 혼인 한 후, 그 인연으로 남양에서 전의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한다.

홍익청의 아들 홍직洪稙(1571~1637)은 1602년선조 35에 32세의 나이로 별시무과에서 장원급제하였는데, 방목에 그의 거주지가 전의全義로 기록되어 있다. 홍직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일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정묘호란 때 공을 세워 통정대부에 올랐다. 이후 병자호란에 문의현령으로 정방산성에서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였다. 전의면 서정리에 충신정려가 있다.

충신 홍직 정려

서정리 충신 홍직 정려

서정리 내서마을의 동쪽으로 향하여 뻗은 능선의 서향사면 낮은 야산 구릉에 위치한다. 1713년(숙종 9) 명정받아 건립되었다.

홍직洪稙(1571~1637)의 본관은 남양이고, 자는 치경稚卿이다. 연기지역 남양홍씨 입향조 홍익청洪翼淸의 아들이다. 동생은 홍욱洪稶·홍직洪稷이다.

무예에 출중하여, 1602년(선조 35)에 별시 갑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문화현령文化縣令·삼등현령三登縣令·순안현령順安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청렴하여 청백리淸白吏로 칭송을 받았다.

삼등현령으로 재직 중 1624년(인조 2)에 이괄의 난이 발생하여 장만張晩을

정려의 내용을 적은 현판

도와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적을 세웠다.

순안현령으로 재직 중 1627년(인조 5)에 정묘호란이 발생하여 관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였다. 다수의 포로를 잡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문화현령으로 재직 중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여 황해북도 정방산성正方山城에서 적군의 남하를 막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적 열세로 박종산 등이 딴 곳으로 퇴진할 것을 종용하자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마땅히 한 골목이라도 지킬 것이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로 단호히 거부하고 몰려오는 적을 맞아 싸우다 13발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으니, 1637년(인조 15) 1월 7일 토산현 남산에서였다. 『연기지』에 의하면 죽을 당시 늠름한 기상과 생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전의현에 장사지냈으며, 묘는 전의 비암동碑庵洞(현 전의면 다방리)에 있다.

그의 충절과 의열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죽은 지 76년이 지난 1713년(숙종 39)에 조정에 알려져서, 숙종이 공의 충절을 치하하는 글을 내리고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하였으며, 정려를 세워 추모하도록 했다.

정려는 1908년에 중건되었고, 1974년 9월에 중수되었다. 정·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있다. 화강암 석재를 가공한 8각 고주 초석위에 둥근기둥을 올렸으며, 4면에는 홍살을 돌렸다. 정려 양옆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여 비바람을 막게 시설해 놓았다. 현재 정려 주위로는 낮은 토담과 같은 둔덕이 보호시설처럼 돌려져 있으며,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면의 상단부에는 '충신문忠臣門'이라는 현판을 써서 걸어놓았으며, 정려 내부에는 1713년(숙종 9)에 홍직에게 증직하여 명정을 내린 것과 중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현판(忠臣 贈通政大夫兵曹參議 行通訓大夫文化縣令黃州鎭管兵馬節制都尉 洪稙之閭 肅宗 癸巳 三月日 命旌 今上 戊申 五月 日 重建, 180cm×38cm)이 있다. 뒷면에도 음기가 되어 있는데 홍직의 충행을 기록한 것으로 1974년 9월에 대표 홍재순洪在舜, 홍두표洪斗杓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001년 5월 31일에 연기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전의면 신방리

조사대상 이태사 유허비, 진주유씨 충의공파

신방리華芳里는 1914년에 전의군 소서면의 돈지리 양방이동 음방이동 신암리 장산리와 남면의(동면의) 도산리가 합쳐져 신암골과 방이동의 이름을 따서 신방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시켰다가 1995년에 전의면으로 이관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소서면에 돈지리頓地里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5리의 거리에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46호이고, 인구는 남자 94명, 여자 78명이었다.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소서면 돈지리가 수록되어 있다.

돈지[頓地, 돈대, 돈디, 頓地里, 項地里]는 오야꼬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돈대 위에 있으므로 돈대, 돈디라 하던 것이 변하여 돈지, 돈지리가 되었다. 지도를 만들 때 '돈頓'자를 '항項'자로 잘못 적어서 항지리라고도 한다.

방잇골[芳耳洞]은 돈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방 같아 아늑하다. 방잇골 양달쪽에 있는 마을은 양달말[양방이동, 陽芳], 방잇골 응달쪽에 있는 마을은 음달말[음방이동, 음방]이다.

신암골[莘岩洞]은 음달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변두리에 크고 넓은 바위가 많이 깔려 있으며, 오야꼬시[왯고지, 도산, 도산리]는 신방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산줄기가 냇가로 뻗었는데, 옛날 기와집이 있었다.

신방리 이태사 유허비

신방리에는 전의이씨의 시조인 고려태사 이도의 유허비가 이성산성 정상에 있다. 전면에는 '장대지將臺址 고려태사高麗太師 전의全義 이도李棹 수거이성守據李城'이라고 적혀 있다. 후면은 풍화작용에 의하여 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유허비 남쪽 60m지점에는 '남정지南亭址 고려태사高麗太師 전의全義 이도李棹 수거이성守據李城'이라고 새겨진 석물이 있으며, 북쪽 35m지점에는 '북정北亭址지 고려태사高麗太師 전의全義 이도李棹 수거이성守據李城'라고 새겨진 석물이 있다.

이도가 이곳에 살면서 집을 남북 두 곳에 두어, 여름에는 서늘한 남쪽 집에, 겨울에는 온화한 북쪽 집에 거처하였다고 전한다.

함평현감 유성하의 초상화

신방리 진주유씨 충의공파

전의면 신방리에는 진주유씨 충의공파가 거주하고 있다. 충의공은 유충걸柳忠傑의 아들인 유병연柳炳然(1625~1681)이다. 유병연의 아들인 유성하柳星河(1657~1712)는 현재의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에서 태어나 전라도 함평현감 등을 지냈다. 함평현감 재임시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고을 사람들이 그의 선정善政을 기려 화상畵像을

함평현감 유성하의 묘

진주유씨 함평현감 유성하의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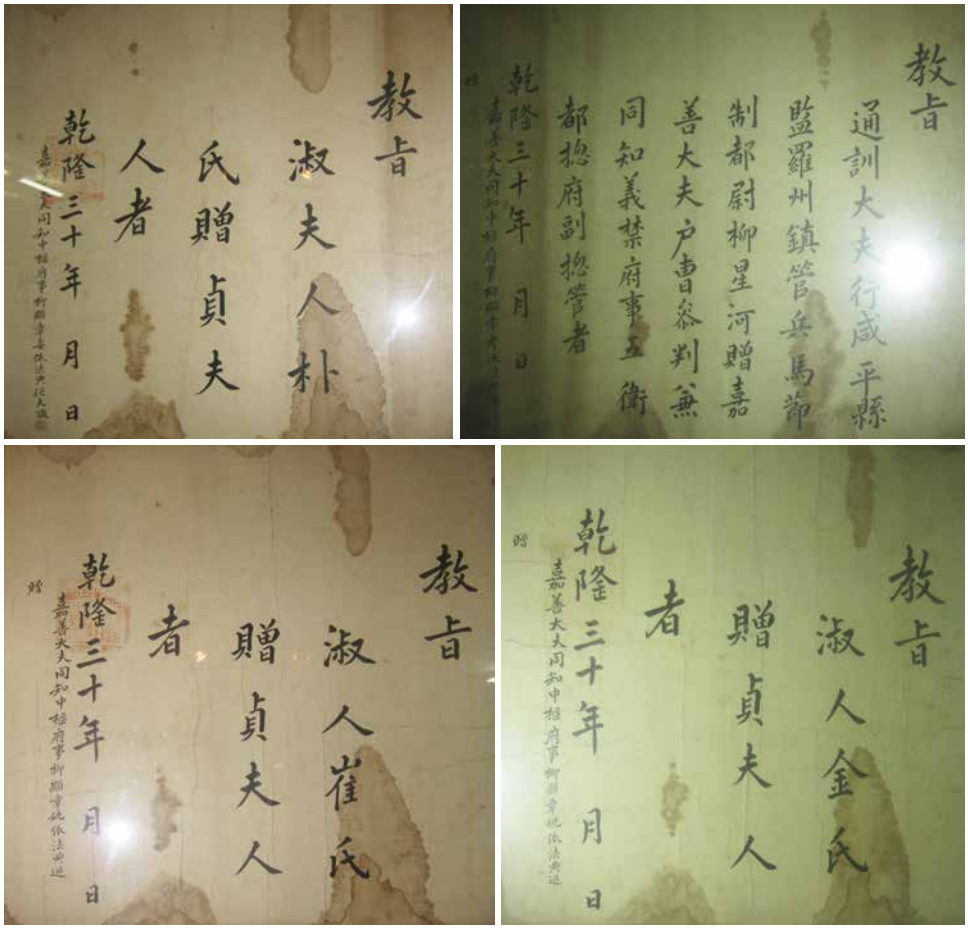
봉안한 생사당生祠堂과 비석을 세웠다고 전한다. 후손들이 장기면 송문리의 고향으로 옮겨와 문성영당에 봉안하였는데, 지금은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다. 송문리 문성마을 북쪽 언덕에 그가 강당講堂을 열고 글을 읽던 곳이라 전하는 초당바위가 있다. 묘소는 전의면 신방리 돈지에 있다. 유

유현장의 묘

유현장의 묘비

병연의 손자이며 유성하의 아들인 유현장柳顯章(1696~1770)은 1735년(영조 11)에 40세의 나이로 생원에 입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병조참판, 한성부 우윤에 이르렀으며, 75세로 졸하였다. 유현장의 묘소도 유성하와 함께 신방리 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유현장의 아들인 유협기는 계부季父인 원장柳遠章에게 입양되었으



진주류씨 문중 소장 교지들

며, 유년시절에 아버지에게 수학하였다. 성대중成大中・조중진趙重鎭 등과 교유하였으며, 1768년(영조 44)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74년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옹원직장司饔院直長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그의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의 거주지가 전의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 이 시기는 공주 장기면에서 전의로 이미 이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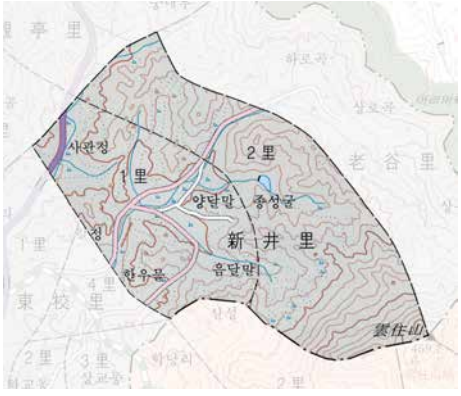
유협기는 1775년의 한림소시翰林召試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어

조상의 유지를 정성껏 받들고 계신 진주유씨 후손

성균관전적・예조좌랑・병조정랑 등을 역임한 뒤 사간원정언으로 있으면서 홍국영洪國榮의 세도에 합세하던 예조판서 구윤옥具允鈺, 이조참판 이의익李義翊 등을 탄핵하였다. 1786년(정조 10)에 이동형李東馨의 부정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고 고향인 충청남도 공주에서 은거하다가 1793년에 다시 서용되어 예조・이조의 참의, 성균관대사성을 포함한 요직을 두루 지냈으며, 외임으로 무안현감・순천부사順天府使 등을 지냈다.

재임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장례를 사비로 도와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해주유생들을 대신하여 청성사淸聖祠에 병자호란 무렵 척화를 주장하다 심양瀋陽에서 처형당한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을 배향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800년 정조의 명으로 선조 진동辰仝・형珩 등 8인의 시장諡狀・행장・전傳 등을 수록한 『진양충의세편晉陽忠義世編』을 편찬하였다. 저서로 『만롱유고』 7권 7책이 있다.

전의면 신정리



조사대상 파평윤씨 소정공파,
열녀 윤신규처 인동장씨 정려 터와 관련 문서,
신정리 연일정씨 정원공파

신정리新井里는 1914년에 전의군 북면의 갈정리 한정리 양한곡리 음한곡리 신대리를 합쳐서 신대와 갈정의 이름을 따 신정리라 하여 연기군 전의면에 편입시켰다.

옛날 이곳에 가을정처加乙井處라는 행정관청이 있었다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의현 고적조에도 가을정처加乙井處가 전의현 북쪽 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북면에 갈정리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리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69호이고, 인구는 남자 118명, 여자 129명이었다.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북면에 갈정리가 수록되어 있다.

신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인 가나물[가을우물, 갈우물, 葛井里]은 앞에 큰 우물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가을정처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한우물[寒井里]은 거무논들 위쪽에 있는 마을로 크고 찬 우물이 있었으며, 양달말[陽閑谷]은 가나물 양달쪽에 있는 마을, 음달말[陰閑谷]은 가나물 음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나물마을 모습

1	2
3	4

1 신정리 입구 돼지코 바위
2 하나물 우물자리 이곳은 하나물이라 불리던 마을의 우물터이다 향나무가 그 위치만을 알려주고 있을뿐 우물은 없다.
3 가나물 우물 1 신정리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한 우물. 마을에 있던 3개의 우물 중에 이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지금도 맑은 물이 샘솟고 있다.
4 가나물 우물 2

양달말 옆에 새로 된 마을이 신대新垈(종성골, 종성동)인데, 처음 개척한 사람이 꿈에 종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가나물 위 북쪽에 있는 고개가 북문고개[北門峴]로, 예전 가을정처 때 이곳에 북문이 있었다고 하며, 가나물 건너 동쪽에 있는 들인 선창에는 가을정처 때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신정리 파평윤씨 소정공파

전의면 신정1리의 파평윤씨坡平尹氏는 소정공파昭靖公派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윤곤尹坤을 파조로 한다.

1 240년 된 파평윤씨 족보
2 족보를 보관 중인 파평윤씨 후손

입향조는 윤곤의 8세손인 윤해尹垓로 자는 자문子文이다.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윤해는 원래 경기도 파주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당파싸움에 염증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은둔생활을 하기 위해 300여년 전 쯤 신정리 음달말로 낙향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윤해의 묘는 전의면 노곡리 운주산에 있으며, 재실이 있다. 알려진 후손으로는 진사進士를 지낸 윤광선尹光善을 비롯하여 효행이 있는 윤동일尹東逸, 윤동고尹東枯, 윤동수尹東壽, 윤승규尹勝圭, 윤동고 처 진주강씨晋州姜氏 등이 있다. 또한 열녀로는 포상을 받은 윤광달 처 동래정씨東萊鄭氏, 윤신규의 처 인동장씨仁同張氏가 있다.

윤광선(1760~)은 1803년(순조 3)에 44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입격하였는데, 방목에서 그의 거주지가 전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녀 윤신규처 인동장씨 정려 터와 관련 문서

신정1리에는 파평윤씨(坡平尹氏) 윤신규尹信圭(1878~1817)의 처 인동장씨仁同張氏(?~1817)의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던 정려가 있었으나, 현재 건물은 허물어져 남아 있지 않고 정려 터만 있다. 그런데 후손 집안에 관련 고문서가 10여점 보관되어 있다.

『전성지』에 따르면 열녀 인동장씨는 파평윤씨 윤신규의 처이다. 윤신규는 파평윤씨 소정공파 윤해의 후손이다. 인동장씨는 파평윤씨 가문에 출가한 후,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공경으로 대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남편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죽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어 보았지만 살릴 방법이 없었다. 이에 장씨는 천명이니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말았다. 묘소는 전의 갈정리 광암廣岩 서쪽 기슭에 합장하였다.

산업단지 가는 길목 예전 정려가 있던 터

파평윤씨 문중 인동장씨 정려사적기

정려와 관련하여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군수 및 관찰사에게 올린 유생들의 연명 천장과 정려를 내릴 때의 예조입안, 명정으로 인하여 제반잡역을 면제받은 혜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장 등이다. 이 자료들은 정려를 받는 과정과 그 후의 처리문제 등 광범위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축년 8월 천장 : 1877년 8월에 전의현 유생 신시수(愼始壽) 등 8인이 현감에게 올린 것이다. 전의현의 사인 윤신규 처 장씨는 충효열을 모두 배출한 가문 출신으로 그 열행이 매우 뛰어나므로, 이에 대하여 포장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뎨김[題音]은 장씨의 열행이 그와 같이 뛰어나다 하니 마땅히 감영에 알릴 일이라고 하였다.

② 정축년 9월 천장 : 1877년 9월에 신득권(愼得權)을 비롯한 전의・청주・연기・천안・목천의 충청도 유생 76인이 관찰사에게 올린 것이다. 장씨의 열행을 천거하고 있으나, 정려 포장을 받는 일은 성공하지 못했다.

③ 기축년 11월 천장 : 1889년 11월에 홍양섭(洪陽燮) 등 10인의 전의 유생들이 군수에게 올린 것이다. 열행이 뛰어난 장씨에게 정려를 내려줄 것을 청하고 있다.

④ 경인년 정월 천장 : 1890년 정월에 전의유생 홍양섭(洪陽燮)을 비롯한 전의・목천・온양・천안・청주・아산 등지의 충청도 유생 62인이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것이다. 장씨의 포장을 청하고 있다.

⑤ 예조입안 : 1892년 4월에 내려진 예조의 입안이다. 동부승지 이남규(李南圭)가 올린 계에 의하여 윤신규의 처 인동장씨에게 정려를 내리면서 재목과 공장들을 내어 정려를 짓게 하고 자손들의 제반 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⑥ 임진년 5월 소장 : 1892년 5월에 전의현 북면 갈정리에 사는 열녀 인동장씨의 손자인 유학 윤자정(尹滋鼎) 등이 올린 것이다. 인동장씨에게 명정을 내리면서 후손들의 제반 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절목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후손들의 잡역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에 대한 뎨김은 예조의 입안에 의거하여 후손들의 제반 잡역을 면제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⑦ 임진년 7월 소장 : 1892년 7월에 윤자정 등이 올린 것이다. 임진년 5월에 소를 올려 후손의 제반 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여 예조의 입안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뎨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다시 소를 올린 것이다. 5월에 올린 소장과 마찬가지로 예조의 입안에 의거하여 후손들의 제반 잡역을 면제하라는 뎨김이 내려졌다.

⑧ 계사년 12월 소장 : 1893년 12월에 윤자정이 올린 것이다. 조모인 인동장씨의 정려가 세워진 땅 1부(負)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정려가 세워진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⑨ 계사년 12월 소장 : 1893년 12월에 윤자정이 올린 것으로, 자료 ⑧과 같은 내용이다.

⑩ 을미 7월 소장 : 1895년 7월에 윤자정이 올린 것이다. 조모인 인동장씨의 정려 창립 이후 후손들의 제반 잡역이 면제 되었는데 금년 가을에 호포를 징수하는 관리가 또 세금을 거두어 가므로 또다시 소를 올려 이를 금해 달라고 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877년 8월에 전의현 유생 신시수愼始壽가 군수에게 천장을 올리고, 그 해 9월에 다시 신득권愼得權을 비롯한 충청도 유생 76인이 관찰사에게 장씨의 포장을 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이때 정려 포장을 위한 움직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12년 후인 1889년 11월에 홍양섭洪陽燮 등 10인의 전의 유생들이 현감에게 글을 올리고 1890년 정월에 홍양섭洪陽燮을 비롯한 충청도 유생 62인이 관찰사에게 상서하여 1892년 명정을 받아 마침내 정려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정려는 신정리 산-96번지에 세워져 있었으나 1946년경에 신정리 산-5번지 갈정의 동북쪽 큰길가로 이건하였다. 그러나 이건 당시 정려는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얹는

등 허술하였으며, 1960년 후반에는 이것마저도 유지가 어려워져 정려를 해체하고 현판을 따로 보관하였으나, 현재는 현판마저도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신정리 연일정씨 정원공파

전의면 신정리의 연일정씨延日鄭氏는 정원공파이다. 입향조는 파조인 정원공靖元公 정진鄭鎭의 7세손인 정현득鄭賢得(?~1604)으로 알려져 있다. 정현득 부친인 정린鄭麟(?~1592)은 무과로 입사하여 훈련원 정을 지냈는데,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전사하여, 1706년에 병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고 한다. 정린의 묘소는 장단 이목동에 있고, 정현득의 묘소는 전의면 신정리 운주산에 있다. 정현득의 아들인 정연鄭挻(1598~1646)도 무과에 급제하였고, 병자호란 때 군공이 있어서 『강도록江都錄』에 기록되어 있으며, 관직은 칠

연일정씨 묘역

연일정씨 입향조 정현득 행적비

연일정씨 신정리 입향조 정현득의 묘

정현득의 묘비

곡부사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연의 묘소도 운주산 아래에 있다. 신정리 연일정씨는 무과집안이라고 한다.

전의면 신흥리

조사대상 순천이씨

신흥리新興里는 1914년에 전의군 대서면 사사리와 생송리를 병합하여 연기군 전의면 송사리가 되었다가, 1929년 새롭게 흥하는 지역이라 하여 신흥리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사사리沙士는 신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모래가 많으며, 사사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 생송生松이다. 사사리 앞에 있는 길인 물방아거리에는 전에 물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대서면에 생송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위치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7리되는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가 64호, 인구가 남자 118명, 여자 166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대서면에 생송리가 수록되어 있다.

신흥리 순천이씨 후손이 살고있는 마을, 사사리

1	2
	3

1 순천이씨 문중 소장의 상례비요
2 순천이씨의 족보
3 향목. 순천이씨의 문중에서는 제사에 쓰는 향을 지금도 향나무를 깎아서 사용하고 있다.

신흥리 순천이씨

전의면 신흥리 순천이씨는 이사고李師古의 10세손인 이희李喜(1590~1675)의 묘소부터 전의에 있다. 족보에 의하면, 이희는 공릉참봉, 경안찰방, 장흥직장, 첨지중추부사를 지내고, 86세로 졸하여 전의 대서면 사사리沙士里에 묻혔다. 후손들은 이희를 직장공이라고 부르며, 족보에도 묘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 아들인 이수익, 손자인 이박의 묘도 사사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손들이 신흥리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외에도 순천이씨 족보에는 연기지역에 묘소가 있는 판사공 이용李容(전동면 영당리 대부곡), 승지공 이수겸李守謙(서면 위양동), 영광공 이수항李守恒(전동면 사기소), 통덕랑공 이수일李守一(전동면 양곡리 입곡), 승지공 이수진李守眞(전동면 사기소) 등의 묘도墓圖가 실려 있다.

순천이씨 승지공 이수겸 묘도

순천이씨 승지공 이수진 묘도

순천이씨 영광공 수항 묘도

순천이씨 직장공 이희의 묘도

순천이씨 통덕랑공 수일 묘도

순천이씨 판사공 이용의 묘도

전의면 양곡리

조사대상 안동김씨 전서공파, 양곡리 효자 김익정 · 김사준 정려, 열녀(烈女) 김환(金瓛) 처(妻) 남양홍씨(南陽洪氏) 정려(旌閭)

양곡리陽谷里는 1914년에 전의군 소서면 압곡리 상세곡리 하세곡리 양지리를 병합하여 양지와 압곡의 이름을 따서 양곡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시켰다가, 1995년에 전의면으로 이관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소서면에 양지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위치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호구수는 편호가 45호, 인구수가 남자 83명, 여자 136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도 소서면에 양지리와 압곡리가 수록되어 있다.

압실[압곡, 암곡, 암실]은 양지촌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큰 바위가 있으며, 가느실[細谷, 細洞]은 양지말 북동쪽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가느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위가느실[상세곡, 상세동]이고, 가느실 아래에 있는 마을이 아래가느실[하세동, 하세곡, 봉두미]이다.

위양지말[陽場里]은 양지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지도를 만들 때 잘못 적어 양장리라 하였으며, 주막뜸[주막촌]은 상세동 서쪽 길가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주막이 있었다.

양곡리 마을모습

양곡리 안동김씨 전서공파

전의면 양곡리의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전서공파典書公派로 김성목金成牧(1300년대)을 파조로 한다. 이 마을 입향조는 김성목의 증손 김형金泂이다.

김형은 진사進士를 지냈으며, 아버지는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낸 김익정金益精, 어머니는 부윤府尹을 지낸 권담權湛의 딸인 안동권씨安東權氏이고, 부인은 언양김씨彦陽金氏로 1남 1녀를 두었다.

안동김씨 전서공파가 연기군에 처음 들어온 곳은 전동면 미곡리 학당마을이다. 입향조는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에게 수학하고 검교근시檢校近侍를 지낸 김휴金休(1350~?)이다. 김휴는 조선이 개국 한 이후 은거하였는데, 이후 후손들이 연기지역 곳곳으로 분가하였다. 김휴의 손자인 김형 역시 분가하여 양곡리 양지촌에 터를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양곡리에 김형의 묘와

재실이 있다.

후손으로 사직司直을 지낸 김부녕金富寧, 현감을 지낸 김구년金龜年 등이 있으며, 김형의 4세손인 김사준金師俊은 효행으로 명종 대에 정려를 받았다.

양곡리 효자 김익정 · 김사준 정려

양곡리 양지촌 마을 입구의 동남쪽 언덕에 효자 김익정金益精 · 김사준金師俊 정려가 있다.

김익정金益精(?~1436년)은 전의지역 입향조인 김휴金休의 아들로 호는 운암雲庵이다.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에서 태어나 1396년(태조 5)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삼사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사헌부 대사헌에 재임 중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관직을 사직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각각 3년씩 6년간을 시묘하는 등 효행이 지극하였다. 그 후 세종이 즉위하자 외직으로 나아가 충청, 전라, 경기의 관찰사를 지냈다. 후에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1425년 대사헌, 1431년 이조참판, 형조참판을 지냈고, 1435년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죽었다.

전의를 떠나 벼슬길에 올랐기 때문에 묘는 경기도 양주군 고령산 고령사高嶺寺 서남쪽 3리 지점에 있었으나 실전하였다고 하며, 전의면 양곡리 압실에 설단하였다. 김익정은 영월군사로 있을 때 청렴하고 홍학에 공이 커서 지금까지도 칭송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후기의 여러 읍지에 그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김사준金師俊(1439~1520)은 김익정의 현손玄孫이며, 양곡리 입향조인 김형의 증손이다. 자는 명숙明叔이고, 호는 은암처사恩庵處士이다. 1439년(세종 21)에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지낸 김구년金龜年의 5형제 중 2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 이씨는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아들 의성군誼城君 이채李采의 딸이다. 그러니까 김사준은 효령대군의 손녀요, 태종의 증손녀이다.

김익정 정려

1455년(단종 3)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12세인 단종을 상왕上王으로 올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정변이 일어나고, 다음 해에 피비린내 나는 사육신死六臣 처형이 단행되자, 김구년은 이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로 낙향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김사준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

김사준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벼슬은 물론 과거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오직 효행과 덕을 쌓는데만 노력했다. 부친이 부스럼으로 고생하자 연근을 구해드려 병을 낫게 했으며, 75세에 사망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러한 효성이 인근 사림들에게 알려져 1469년(예종 1)에 예종이 친히 칙사를 보내어 위로하고 능참봉陵參奉 벼슬을 주었으나 사양하였고, 전의 추하楸下(현재의 양곡)에 은거하여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평생을 효행과 교육에만 힘쓰다가 1520년 81세의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죽은 후 명종대(1546~1567)에 이르러 '그의 출천지효出天之孝는 영세불망永世不忘이라' 치하하여 명정했다. 양곡리 동구 밖에는 김사준을 기념하는 '효자거리'가 있다고 한다.

현재의 정려 건물은 1820년에 중건된 것으로, 중수기는 1824년 송치규宋穉圭가 찬하였고, 영춘永春 현감 유한지兪漢芝가 썼다. 이 중수기에 의하여 1820년에 '처사공의 유지가 있던 곳'인 현재의 위치로 정려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한 원형초석 위에 둥근기둥을 올렸으며, 4면에는 홍살을 돌렸다. 정려의 각칸 하방은 시멘트로 고멱이 하였으며, 창방 위에는 각각 1개씩의 화반대공을 놓았다. 양측면 박공 밑에는 비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판을 설치해 놓았다.

정려의 왼쪽에 김익정이 세조조에 명정받고 1820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현판(有明朝鮮國 孝子 嘉善大夫 行司憲府大司憲 金益精之閭 世祖朝 命旌 今上二

十年庚辰三月 日 重建, 145cm×48cm)이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김사준이 명종조에 명정받고 역시 1820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현판(有明朝鮮國 孝子 處士 金師俊之閭 明廟朝 命旌 今上二十年庚辰三月 日 重建, 145cm×48cm)'이 걸려 있다.

열녀烈女 김환金㺭 처妻 남양홍씨南陽洪氏 정려旌閭

남양홍씨(?~1736)는 홍처한洪處漢의 딸로 출가하기 전에 양친을 잃고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길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웃마을에 사는 안동김씨 전서공의 14세손인 김환金㺭에게 출가하여 시부모를 정성껏 섬겼다고 한다. 그러던 중 1736년(영조 12) 6월에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자신도 따라 죽은 것이, 여러 읍지와 『안동김씨 삼강록』에 기록되어 있다. 죽은 지 2년 후인 1738년에 열행이 알려져 명정 받아 정려가 건립되었다. 묘소는 정려 바로 뒷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1988년경 달전리 수대에서 이장했다고 한다.

원래 양곡리 텃골 종가집 대문에 명정된 현판이 걸린 정문으로 있었으며, 종가사당에서 남양홍씨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홍씨의 4대 봉사가 끝나 사당의 제사가 시제로 바뀌게 되면서 정려를 지었다고 한다. 현판에 최초 건립 후 150여 년이 지난 1894년(고종 31)에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정려 건물이다. 1992년에 보수하였다.

정·측면 1칸의 홑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석재로 된 네모난 초석 위에 둥근기둥을 올리고 있으며, 전면을 제외한 3면은 시멘트로 벽을 만들고 전면만 홍살을 돌렸다. 아랫부분은 시멘트로 고멱이 하였으며,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려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열녀 통정대부 사복시정에 증직된 김환의 처 숙인 남양홍씨의 정려[烈女 贈通訓大夫 司僕寺正 金㺭妻 淑人 南陽洪氏之閭]」(180cm×40cm)라고 새겨진 1738년(영조 14) 게판된 명정현판이 있다.

김환처 남양홍씨 정려

전의면 영당리

조사대상 진주정씨 충장공파, 사쌍 효열문

영당리靈堂里는 1914년에 전의군 소서면 영성리 당리 상만곡리 하만곡리가 합쳐져 영성과 당리의 이름을 따서 영당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에 전의면으로 이관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소서면에 만노곡리萬老谷里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55호이고, 인구는 남자 87명, 여자 122명이었다.

영성들[靈城坪, 靈城里]은 영성들에 있는 큰 마을로, '영성들'이 들 이름과 마을 이름으로 함께 쓰였다. 당마루[堂里]는 영성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제당이 있었다.

당마루 남서쪽에 있는 산(높이 137m)은 모양이 말처럼 생겼다고 하여 말미라고 불리는데, 그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말미[마산]이다. 이 말미의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마느실[말위실, 馬上谷, 晩谷]이고, 마느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마느실[하만곡], 마느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위마느실[상만곡]이다. 능골[陵谷]은 당마루 서쪽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로 당이 있었다. 이곳은 현재 군부대에 들어가 있다.

영당리 마을모습

영당리 마느실 가는길 지금은 군부대가 있다.

마느실 입구 망향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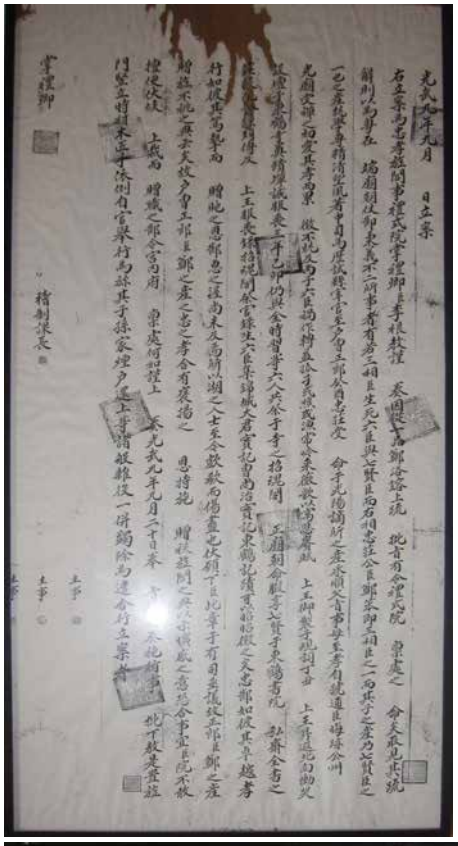
진주정씨 재실 오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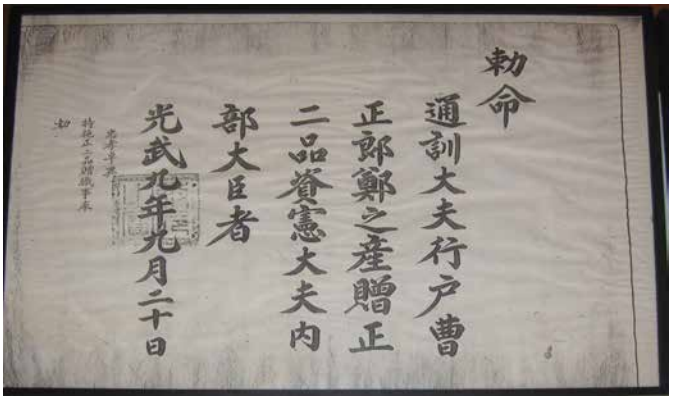
영당리 진주정씨 충장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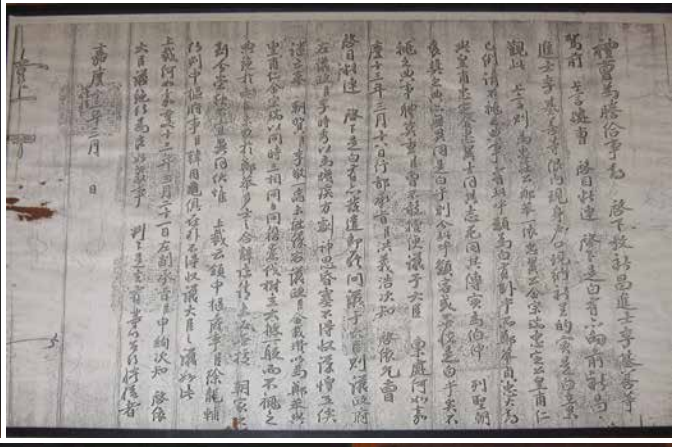
전의면 영당리 진주정씨晋州鄭氏는 충장공파忠莊公派로 단종대에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정분鄭苯(?~1454)을 파조로 한다. 이 마을의 입향조는 정분의 4세손으로 진사進士를 지낸 정윤필鄭胤弼(1400년대 후반~1500년대 초)이다.

정윤필은 원래 경기도 양평에서 살다가 영당리 만곡으로 이거하였는데, 정확한 입향사유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부인이 김익렴金益廉의 딸 안동김씨安東金氏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가와의 인연으로 인해 이 마을을 세거지로 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윤필의 묘는 전동면 미곡리 종중공원묘에 있고, 1992년에 건립된 진주정씨 재실이 영당리 102-4번지에 있으며, 예로부터 전해오는 교지敎旨를 비롯한 몇 종류의 고문서가 남아있다.







진주정씨 재실에 보관중인 자료들

후손으로는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받은 정원룡鄭元龍,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중추원의관行中樞院議官을 지냈으며 내부협판內部協辦을 증직받은 정대권鄭大權(1850~1902), 정원룡 처 효부 파평윤씨坡平尹氏, 정헌세政憲世의 처 열녀 한산이씨韓山李氏가 있으며, 이들의 효행과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4쌍 정려가 있다.

사쌍 효열문

영당리 당마루 마을 앞 도로의 서쪽 편에 인접해 있는 사쌍효열문四雙孝烈門은 진주정씨晉州鄭氏 정원룡鄭元龍과 그의 아들 정대권鄭大權, 정원룡의 처인 효부 파평윤씨坡平尹氏, 정원룡의 손부인 열녀 한산이씨韓山李氏 등 모두 네 사람의 효·열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것이다.

효자 정원룡鄭元龍(1812~?)은 본관이 진주로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의 14세손이다. 어느 날 정원룡의 부친이 외출을 하였는데 늦은 시간에 산길로 돌아오게 되어 정원룡이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그 때 커다란 호랑이가 앞에 나타났다. 아들이 급히 부친 앞으로 달려가 범을 훈계하기를, '사람은 아비를 중히 여김이 도리요, 범은 새끼를 사랑함이 도리이니 부자의 정에 있어서 사람과 범이 다를 것이 없는데 어째서 너는 우리 부친을 해치려 하느냐'고 하였다. 이에 범이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흔들어 감동한 빛을 보이며 집에까지 따라오며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1903년 전의 유생 이상옥 등이 소를 올려서 1904년 1월에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증직되고 명정 받았다.

효자 정대권鄭大權(1850~1902)은 정원룡의 아들이다. 부친과 함께 1904년 1월에 명정 받아 정려가 세워졌고,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 받은 사실이 『연기지』(1943)와 현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9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 후 어머니가 병에 걸려 위독하자 손

사쌍 효열문 전면

가락의 피를 내어 드리고, 의원이 두꺼비가 좋은 약이라고 하자 때마침 겨울이었지만 전의면의 벼락바위 밑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두꺼비를 잡아서 병을 고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 후 모친상을 당한 후에는 예를 다하여 해마다 제삿날이면 흡사 돌아가신 날과 같이 성의를 다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정대권은 1899년(고종 36) 참봉벼슬을 받았고 1902년 중추원 의관이 되었다. 1904년 1월에 내부협판內部協辦으로 증직 되었으며 명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대권의 아들 헌세憲世와 헌채憲采는 중추원의관을 지냈고, 헌빈憲斌은 전의 문묘 직원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열녀 파평윤씨坡平尹氏(1811~?, 尹濟奎의 딸)는 정원룡의 부인으로 출가한 후

1	2
3	4

1 효자 정원룡 정려 현판
2 효자 정대권 정려 현판
3 열녀 파평윤씨 정려 현판
4 열녀 한산이씨 정려 현판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었다. 시부모의 병환에 백약이 무효이어서 밤마다 목욕하고 하늘에 빌었는데 마침 훌륭한 의사가 지나가다 이 말을 듣고 약을 써서 효력을 보아 시부모는 천수를 다하였다고 한다. 1893년(고종 30)에 정려를 받았다.

1	2
3	

1 사쌍효열문 내부 현판
2 진주정씨 후손과 함께 사쌍효열문에 관한 조사를 하는 모습
3 벼락바위

열녀 한산이씨는 정원룡의 손자 며느리이자 정헌세의 부인으로 이승도李承道의 딸이다.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열녀로 1904년 4월에 명정받았다.

원래 사쌍효열문은 신방리 음달말 밭에 있었던 것을 일제시대에(1930년대) 옮겼으며, 그때 크기가 줄었다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79년 군비와 문중의 부담으로 중수한 뒤, 1996년~1997년 군비로 다시 보수하였다.

정려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화강암재질의 사각초석 위에 방형의 기둥을 올렸으며, 홑처마를 하고 있다. 정려의 전면은 홍살을 돌렸으며, 각 칸은 역시 홍살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후면은 반벽을 시설한 후에 홍살을 돌리고 있다. 정려 내부에는 4효열의 명정현판과 '정원룡사쌍효열중수기鄭元龍四雙孝烈門重修記'가 게판되어 있다. 명정현판은 정원룡, 정원룡처 파평윤씨, 정대권, 열녀 한산이씨 순이다. 명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원룡 명정현판(孝子 贈朝奉大夫童蒙教官 鄭元龍之門 聖上卽位四十一年(1904) 甲辰 正月 日 命旌, 160cm×30cm)

・파평윤씨 명정현판(孝婦 贈朝奉大夫童蒙教官 鄭元龍之妻 令人 坡平尹氏之門 聖上卽位三十年(1893) 癸巳 七月 日 命旌, 160cm×30cm)

・정대권 명정현판 (孝子 通政大夫行中樞院議官 贈嘉善大夫內部協辦 鄭大權之門 聖上 卽位四十一年(1904) 甲辰 正月 日 命旌, 160cm×30cm)

・한산이씨 명정현판 (烈女 學生鄭憲世之妻 孺人韓山李氏之門 聖上卽位四十一年(1904) 甲辰 四月 日 命旌, 160cm×30cm)

전의면 원성리

원성리元省里는 1914년에 전의군 대서면 장항리 고성리 삼성당리 원당리를 합쳐 원당과 삼성당의 이름을 따서 원성리라 하였으며, 연기군 전의면에 편입 되었다. 관련 지명을 『여지도서』나 『호구총수』 등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조사대상 양주조씨 문강공파, 삼쌍 효열문, 순천이씨 청화공파

원성리 마을모습

마을입구의 양주조씨 문중 비석들

원성리에서는 청룡 부리가 대의 뿌리 같이 마디지고 길게 나갔다는 대뿌리[대허리, 죽근]가 가장 큰 마을이고, 뒷 산의 모양이 노루의 목과 같다는 노루목[獐項], 노루목 위쪽에 있는 마을인 삼성당三省堂, 삼성당 위쪽에 있는 마을인 원당[元堂, 원당리] 등이 있다.

원성리 양주조씨 문강공파

전의면 원성리에 살고 있는 양주조씨 문강공파文剛公派는 문강공 조말생趙末生(1370~1447)을 파조로 한다. 양주조씨楊州趙氏는 중국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후손들이 고려에 귀화했다고 전해진다.

원성리 입향조는 조존외趙存畏(1575~1646)로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가 김사수金師秀(효자 김사준의 형)의 딸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연기지역의 양주조씨는 조말생의 8세 손인 조존외趙存畏(1576~1646)를 입향조로 하면서 주로 전동면 송석리에 세거하였다. 조존외의 어머니가 안동김씨 김사수金師秀(효자 김사준의 형)의 딸인 것으로 미루어 외가집을 연고로 경기도 광주에서 연기지역에 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호서읍지』(전의현 성씨조)에는 양주조씨가 우거성씨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후기에 저명가문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경기도 광주 대왕면 사촌리, 또는 양주군 마석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광해군 때 성균관에 재직했는데 상소사건에 연루되어 모친 안동김씨를 모시고 외가인 이곳으로 낙향했다고 전한다. 낙향한 초기에는 너무 가난하여 움막생활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입향조의 묘소·묘비가 대뿌리 뒷산 골신소에 있고, 원성리에 재실이 있다.

한편, 사마방목에서 확인해 보면 조존외趙存畏 조존중趙存中 조존도趙存道가 형제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아버지는 평강현감 조덕년趙德年이며, 모친은 현감 김사위金師委의 딸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그런데 1606년에 진사가 된 조존중은 사마방목에 수록되어 있는 거주지가 임실任實이고, 1605년에 생원시에 입격한 조존도는 거주지가 서울[京]이었다.

원성리 양주조씨의 배출인물로는 효행으로 이름나 정려를 받은 조수빈趙秀彬(1745~1824, 1842년 명정) 조명빈趙命彬(1749~1832, 1854년 명정)형제와, 조수빈의 종손인 조백규趙百達(1764~1816)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1764~1816)가 있다. 이들의 효행과 열행을 기리기 위해 1800년대 중반에 건립한 삼쌍정려가 있다.

삼쌍 효열문

삼쌍효열문三雙 孝烈門은 원성리 대뿌리 마을 입구의 논 가운데에 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효자 양주조씨楊州趙氏 조수빈趙秀彬(1745~1824)·조명빈趙命彬(1749~1832) 형제와 수빈과 명빈의 팔촌 조만빈趙萬彬의 손부인 열녀 경주김씨慶州金氏(1764~1816)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것이다.

효자 양주조씨 조수빈趙秀彬(1745~1824)은 조말생趙末生의 12세손으로 조태연趙泰衍의 아들이다. 자는 사종士宗, 호는 애권당愛勸堂으로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에서 태어났다.

효성이 지극했던 조수빈은 7세 때(1762) 모친이 병에 걸리자 백방으로 약을 구해 병을 고쳤다. 특히 소양증으로 고생하는 모친을 위해 특효약이라는 신초근莘草根을 구하려고 엄동설한에 눈 덮힌 산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어 병을 고쳤다고 한다. 모친이 80여세의 노령으로 사망하니 3년을 시묘하였다 한다(『연기군지』).

한편 『전성지』 효행조와 『연기지』 효자조에는 모친이 병을 얻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회생시켰으며 모친이 89세의 일기로 돌아가시자 수빈이 60살의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없어 과거 길을 못가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도와주는 등의 선행을 베풀다가 80세를 일기로 1824년에 죽었다.

『충청도읍지』 「전의현 인물조」에 의하면 조수빈의 효행에 대한 포장의 상신은 고을에서 7번, 향교의 천거가 8번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집의 당호堂號 "애근愛勤"도 그런 연유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하였다. 한 집안에서 3형제가 함께 살면서 효를 다한다 하여 칭송 받았고 시묘처에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가 찬한 유허비가 있다. 죽은 지 18년 후인 1842년(헌종 8) 효자로 명정을 받았다.

조수빈의 동생인 조명빈趙命彬(1749~1832)의 자는 성천性天, 호는 국포菊圃로 어려서부터 천성이 온화하고 머리가 총명했다고 하며, 가문에 대대로 전해지는 정훈庭訓을 익혀 효성이 뛰어 났다고 한다. 미호美湖 김원행金元行과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심성선악心性善惡』이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유림들에게 강의하기도 하였다. 1762년 가을 모친이 병에 걸리자 형 수빈과 함께 약을 구하여 효성을 다했다. 『전성지』 효행조에는 모친이 병에 걸렸을 때 손가락을 잘라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친이 돌아가신 뒤에는 3년간 형과 함께 정성으로 시묘를 했다고 한다. 1854년(철종 5)에 효자의 명정을 받았다.

열부 경주김씨(1764~1816)는 김상종金相宗의 딸로 조수빈의 종손인 조백규趙百達에게 출가하였다. 남편과 더불어 시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함은 물론 남편을 공대하였다고 한다. 남편이 병을 얻자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빈소를 마련하고 염습하여 스스로 마름질하여 상복을 지어 입은 후 남편을 따라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1832년(순조 32)에 정려를 내렸다.

이 세 효열 중 가장 먼저 명정을 받은 것은 경주김씨이다. 경주김씨는 병으로 먼저간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열녀로 1832년에 명정을 받아 그 해에 정려를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 다음은 조수빈으로 죽은 지 18년 지난 1842년(헌종 8)에 효자 명정을 받았다. 조수빈의 동생 조명빈은 1854년(철종 5) 명정을 받았다. 아마도 현재의 삼쌍 정려는 이 시기에 합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60년경에 중수되고, 1988년경에 단청을 한 효열문은 방형의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화강석재를 이용한 방형의 고주 초석을 세우고 원주를 올렸으며, 홑처마에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다. 정려의 4면은 모두 홍살을 돌려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의 각 칸과 칸 사이에도 홍살을 돌려 구분해 놓았다.

양주조씨 조수빈 삼쌍효열문

1	2
3	

1 양주조씨 조수빈 정문 현판
2 양주조씨 조명빈 정문 현판
3 양주조씨 조백규 처 경주김씨 정문현판

정려의 중앙 상단부에는 '효열문孝烈門'이라는 현판을 달았고, 정려 안에는 3개의 명정현판이 걸려 있다. 왼쪽에는 조수빈이 1842년에 명정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현판(孝子 學生趙秀彬之門 上之八年 壬寅 九月 日 命旌, 160cm×40cm)이 있고 중간에는 조명빈이 1854년에 명정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현판(孝子 學生趙命彬之門 上之五年 十一月日 命旌 翊年 乙卯 二月 建, 160cm×40cm)이 있다. 오른쪽에는 조백규의

처 경주김씨가 1832년 명정 받았음을 나타내는 현판(烈女 贈朝奉大夫童蒙教官 趙百逵之妻 贈令人 慶州金氏之門, 上之三十三年 壬辰 九月 日 建 命旌, 140cm×40cm)이 있다.

원성리 순천이씨 청화공파

전의면 원성리의 순천이씨順天李氏는 청화공파淸華公派로 이양소李陽昭를 파조로 한다.

원성리 입향조는 이희李喜(1590~1675), 이용李容(1594~1639) 형제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아버지는 이사효李思孝이며, 이사효의 배위는 우봉이씨이다. 이희는 음관蔭官으로 직장直長을 지냈고, 이용은 참봉參奉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희, 이용 형제는 원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거주하였으나,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장자인 이철李哲만 그대로 고향에 머물고, 이희·이용 형제는 외가인 전의면 관정리 상태우 우봉 이씨牛峰李氏 댁을 찾아 전의면 관정리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순천이씨 청화공파의 전의 입향은 외가인 우봉이씨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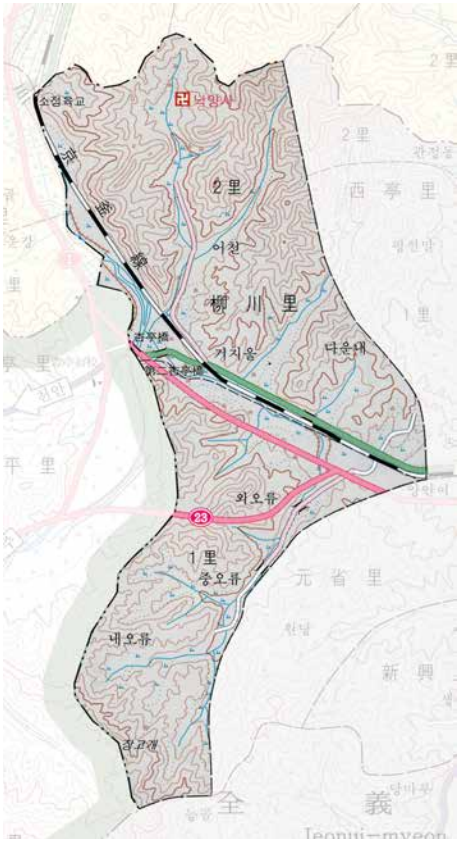
후손으로 승지承旨를 증직 받은 이수겸李守謙, 이수진李守眞과 군수郡守를 지낸 이수항李守恒, 효행으로 이름 난 이경李璟, 이정李珽, 이성李珹이 있으며 이덕신의 처 안동권씨安東權氏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가 있다.

전의면 유천리

유천리柳川里는 1914년에 전의군 대서면의 양안리 내오류동 외오류동 다운천리 어천리와 덕평면의 주점리(일부)가 합쳐져 오류동과 다운천리의 이름을 따서 유천리라 하여 연기군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대서면에 덕평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위치하였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편호는 44호, 인구는 남자 67명, 여자 104명이라고 하였다.

한편, 청주목에도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80리의 거리에 위치하는 덕평면德平面이 있었다. 청주목의 월경지로 여겨지는 이 덕평면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양성이씨 이시중파, 삭녕최씨 사직공파, 충신 이도 묘비 · 신도비

오류골 마을모습

리명	청주목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인구수		
			남	여	계
중암리(重巖里)	서쪽으로 80리	23호	38명	41명	79명
신리(新里)	서쪽으로 80리	22호	53명	53명	106명
당리(堂里)	서쪽으로 80리	40호	97명	96명	193명
삼평리(三坪里)	서쪽으로 80리	10호	52명	56명	108명
계		95호	240명	246명	486명

1974년에 발간된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유천리에는 비룡석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인 그줄[거저물]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여러 내가 마을 앞에서 합하여 넓어진 느내[於川], 그줄 남쪽 산 속에 있는 마을로, 남쪽에서 흐르는 내가 마을 앞으로 다가 와서 꺾이어 서쪽으로 흘러가는 다우내[다오내, 다운천], 다우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태사의 묘를 쓴 후 실권하였다가 다시 찾았는데, 앞으로는 안전하게 한다는 뜻에서 지었다는 양안良安 등이 있고, 양안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전의읍에서 오리가 된다는 오릿골[五柳洞]이 있는데, 오릿골 중앙에 있는 마을은 가운데오릿골[중오류동], 오릿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은 바깥오릿골[외오류동], 오릿골 안쪽에 있는 마을은 안오릿골[내오류동] 등으로 불린다.

유천리 양성이씨 이시중파

전의면 유천리 양성이씨陽城李氏 이시중파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이인부李仁富를 파조로 한다. 전의 입향조는 이인부李仁富의 4세손인 이희년李希年(1400년 후반)이다. 그의 아버지는 시위사직侍衛司直을 지낸 이영李領, 어머니는 해풍이씨海豊李氏이고, 부인은 좌랑佐郎을 지낸 송계후宋啓後의 딸인 진천송씨鎭川宋氏이다. 이희년은 선사포진宣沙浦鎭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지냈다.

이희년은 1484년(성종 15)에 고향인 공주와 인접하고 산수가 수려한 유천

양성이씨 유천리 재실

양성이씨 재실 옆 비석

양성이씨 유천리 묘역

양성이씨 유천리 입향조 이희년의 묘와 묘비

리 다운내에 낙향하였다고만 전해질 뿐, 자세한 입향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희년의 묘는 전의면 유천리 대완산에 있고, 유천리 거주동에 양성이씨의 재실이 있다.

후손으로는 호군龍驤을 지낸 이윤李昀, 노량해전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진李振·이추李推 형제가 있고, 효행으로 알려져 있는 이재호李載祜 등이 있다.

유천리에 양성이씨 이시중공파사적비와 임란공신 이진·이추 사적비가 있다. 근처의 전의면 서정리, 읍내리 일대에도 양성이씨 이시중파가 거주하고 있다.

양성이씨 묘역에서 바라본 마을 모습

양성이씨 사당으로 가는 다운내 마을 입구

다운내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시중공파사적비와 이진, 이추 사적비

유천리 삭녕최씨 사직공파

전의면 유천리 삭녕최씨朔寧崔氏는 사직공파司直公派의 후손이다. 사직공파의 파조인 최수영崔秀英은 낭장공파郎將公派의 파조인 최선보崔善甫의 7세손이며, 조선초기 영의정을 지낸 문정공文靖公 최항崔恒의 손자이다.

묘소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삭녕최씨 사직공파의 전의 입향은 낭장공의 16세손인 최종적崔宗迪부터로 여겨진다. 최종적의 할아버지 묘소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 아버지와 동생의 묘소는 청주 문의에 있는데 반해, 최종적의 묘소만 전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적의 어머니와 동생인 최종운의 배위가 경주이씨인데, 청주의 묘소가 경주이씨 산이라고 구전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향인 청주에 내려와 살다가 인근의 전의에도 터 잡아 살게 된 듯 하다. 전의에 처음 와서 살았던 곳은 영성뜰이라고 하며, 후손들은 이 지명이 영성부원군 최항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삭녕최씨에 대해 조사하는 모습

삭녕최씨 세보

삭녕최씨 대동보 표지

한편, 최종적의 증손자인 최계현崔啓鉉(1759~)은 1784년(정조 8)에 26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방목[왕세자책봉경용호방(王世子册封慶龍虎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거주지가 전의全義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최계현은 평안도 권관, 선전관, 의금부 도사, 훈련원 주부・판관・첨정을 거쳐, 영덕현감을 지냈다.

유천리 충신 이도 묘비 · 신도비

유천리 양안이 마을 입구의 야산 하단부에는 전의이씨 충신 이도의 묘비墓碑와 신도비神道碑가 북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도李棹는 전의이씨全義李氏의 시조로 고려 태조에게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전의이씨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전의현 2개의 토성 성씨 중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보아 조선전기에 벌써 전의 지역에 오랫동안 세거한 성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전의현 인물조에는 전의이씨만 10여명 수록되어 있다.

이도李棹의 원래 이름은 치齒이다. 고려 왕건이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남

전의이씨 시조 이도 묘역으로 가는길

전의이씨 시조 이도 묘 전면

전의이씨 시조묘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 건너편으로 사당이 마주 보인다.

전의이씨 시조 이도 신도비 전면

전의이씨 시조 이도 신도비 후면

1	
2	3

1 개바위. 전의이씨 시조 이도의 묘가 명당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명 '개바위'이다
2 개바위 구 표지석
3 개바위 신 표지석

쪽으로 내려오다 금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범람하여 건널 수가 없었다. 이때 이도가 태조를 보호해 금강을 건너고 군졸까지 건네주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태조는 견훤군을 크게 격파할 수 있었다.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고려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견훤군은 태만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태조가 이도의 도움으로 큰 대업을 이루게 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를 젓다.' 라는 뜻의 '도棹'라는 이름을 내리고, 태사삼중대광太師三重大匡이라는 관직을 주었다.

이도의 묘는 전의이씨 후손들에 의해서 잘 단장 관리되고 있다. 묘의 앞쪽에는 묘비와 신도비가 있고, 묘의 동북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전의이씨 사당인 경원사景遠祠가 건립되어 있다.

묘비는 구묘비와 신묘비 2기를 이도의 묘 앞쪽에 세워 놓았으며, 신도비는 묘역의 전방부에 세워놓았다. 구묘비는 1578년(선조 11)에 신묘비는 1707년에 각각 세웠으며, 신도비는 1948년에 세웠다.

경원사 묘정비

1578년(선조 11)에 세운 구비의 규모는 비신 너비 39cm, 높이 95cm, 두께 12cm이다. 비신전면에는 '고려태사삼중대광이도지묘高麗太師三重大匡李棹之墓', 후면에는 상세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

신비는 1707년에 세운 것으로 당시 22세손 이홍조李弘肇가 충청도 병사兵使로 있을 때 세운 것이다. 외손인 당시 전의현감 남석명南錫明이 도와주었고, 22세손 장령 이성조李聖肇가 글씨를 썼다.

신도비는 비신(100×72×295cm)과 귀부(233×330×114cm), 이수(122×92×100cm)로 이루어진 것으로 1948년에 세웠다. 통정대부 비

전의이씨 사당 홍살문

전의이씨 사당 외삼문

전의이씨 사당

전의이씨 사당 내삼문

서원秘書院 승지承旨 안동安東 김용한金甕漢이 비문을 지었고, 27대손 정열貞烈이 서했다. 현재의 비는 1993년에 중건한 것으로 문중의 화수회化樹會가 세웠으며 29세손 종관鍾寬이 서했다. 전면에 '고려익찬高麗翊贊 이등공신삼중대광태사공휘도신도비명병서二等功臣三重大匡太師公諱棹神道碑銘竝書'라고 새겨져 있다.

이도를 제향하는 사당인 경원사는 1996년에 준공되었다. 이태사의 재실은 이도의 묘소 전방에 있었는데 전국의 후손들이 묘역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재실을 묘소에서 길 건너편인 이곳에 건립하였다. 사당에는 시조인 이도를 비롯한 8세까지의 신위를 봉안하고 강당에는 이도의 금강호섭도錦江護涉圖를 걸어 놓았다. 한편, 신방리에는 이도 유허비가 이성산성 정상에 있다.

전의면 읍내리

조사대상 창원황씨 전첨공파, 전의향교

읍내리邑內里는 1914년에 전의군 군내면의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북부리 덕현리가 합쳐져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읍내면에 서부리 북부리 동부리 남부리가 수록되어 있고,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현내면에 서부리 북부리 동부리 남부리가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읍내면 4개리의 전의현 치소로부터의 방향과 거리,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와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리명	전의현 관문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	편호	인구수		
			남	여	계
西部里	서쪽으로 2리	81호	106명	212명	318명
北部里	북쪽으로 1리	75호	88명	131명	219명
東部里	동쪽으로 3리	67호	87명	118명	205명
南部里	남쪽으로 1리	50호	67명	114명	181명
계		273호	348명	575명	923명

『한국지명총람』 읍내리 마을 명칭에는 남부[南部里], 동부[東部里], 북부[北部里], 서부[西部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전의읍에서 유천리로 가는 고개인 덕고개 밑에 있는 마을인 덕고개[德峴], 남부 냇가 근처에 있는 마을로 처음에 두집만 있었다는 두집매 등의 마을 명칭이 보인다.

읍내리 창원황씨 전첨공파

전의면 읍내리 창원황씨는 전첨공典籤公파이다. 8세손 황박黃璞(1532~1581)은 명종조에 생원을 거쳐 벼슬은 통훈대부 공조참의에 증직되었으며, 배위는 숙부인에 증직된 경주김씨이다. 묘소가 전의 덕현에 있으며, 아들인 황인중黃仁中의 묘소도 덕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이미 전의현에 입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도 창원황씨 후손들의 묘소가 전의 모산, 덕현, 송성리, 고려산, 고등령 등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전의현에 세거하였다.

창원황씨 후손과 조사모습

창원황씨 족보

창원황씨 대동보

읍내리 전의향교

전의향교全義鄕校는 전의면 소재지인 읍내리邑內里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곳은 향교 창건당시의 위치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향교가 '현에서 동쪽으로 1리 떨어져 있다[在縣東一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위치는 현 치소에서 서쪽으로 500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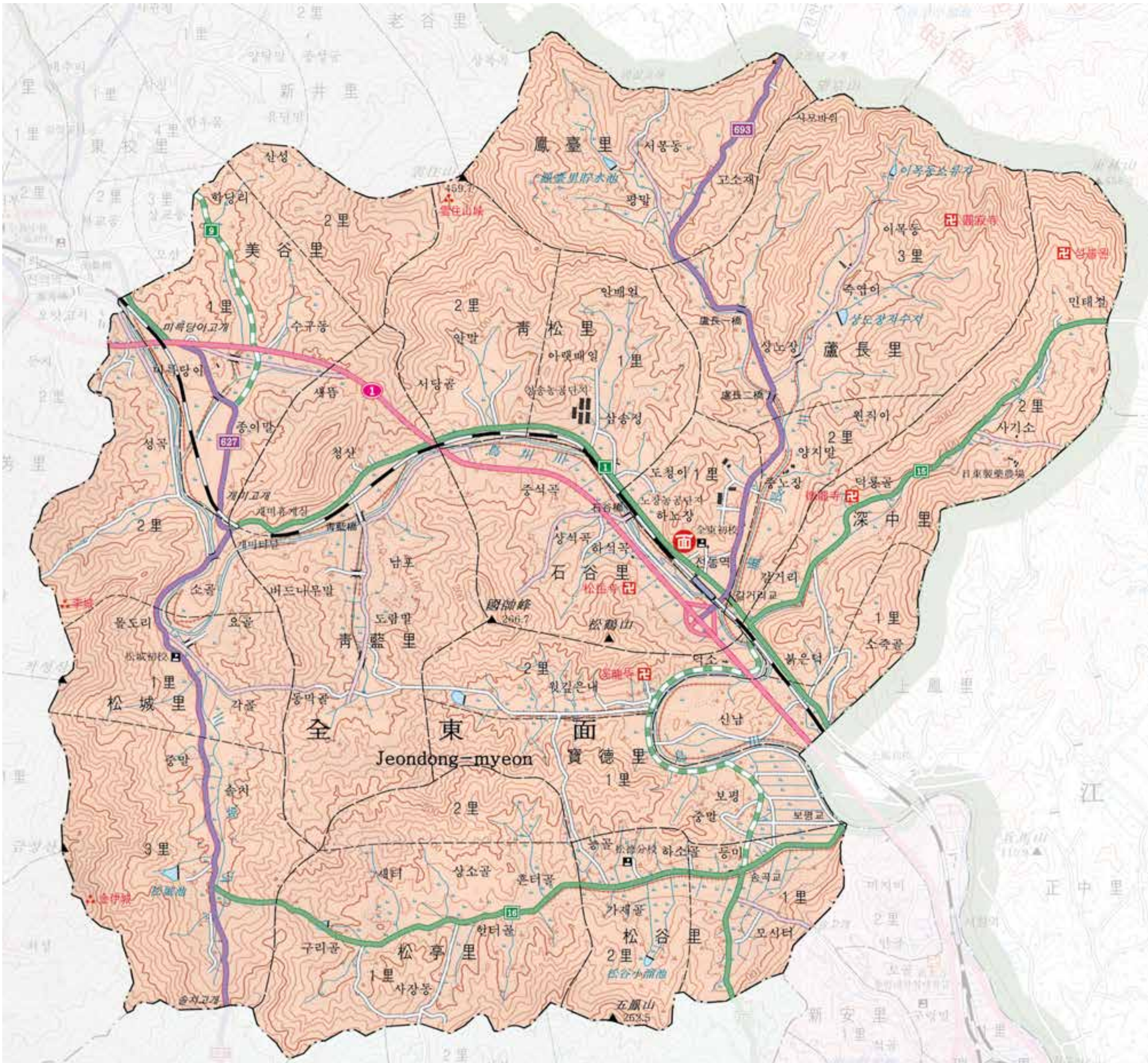
1649년(인조 27)에 타우打愚 이상李翔)이 지은 「전의향교명륜당서全義鄕校明倫堂序」에 '향교는 관아 동쪽에 있는데 지세가 협소하여 성현을 추가로 모시거나 제사를 올릴 때 법도대로 모시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고 새로 관아 남쪽에 터를 마련해서 공사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모두들 걱정만 할 때 현감 이창윤李昌胤이 공사비를 넉넉히 마련해 주어서 다음해인 기축년(1649)에 대성전이 완공되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현의 동쪽에 건립되었던 향교가 인조 때까지 그 곳에 그대로 유지되다가, 1649년에 이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의향교 측면에서 본 전체 모습 차례로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이 있다.

전의향교 외삼문

그 후 1682년(숙종 8)에 율곡 이이李珥와 우계 성혼成渾 두 현인을 새로 제향하게 되어 건물이 협소해져서 다시금 현 위치인 현청의 서쪽 100보 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사실을 수록한 『학교등록』(숙종 9년 8월 19일조) 기록에 의하면 '충청감사 윤이도尹以道가 전의 향교 이건의 일로 장계를 올렸는데 향교의 이건 문제는 일이 중대하여 가볍게 이건하지 말라는 선대의 수교受敎가 있었으므로 쉽게 결정 할 수가 없으나 전의 향교는 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본 현에서 감사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신이 직접 현지를 다녀온 바 향교 이건이 합당하여 청하여 허락을 받게 되었다' 고 한다. 결국 1649년 현청의 남쪽으로 이건 되었던 향교가 1683년에 다시 현재의 위치인 현청의 서쪽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전동면의 터전과 뿌리



全 東 面
Jeondong=myeon
鳳 臺 里
美 谷 里
靑 松 里
蘆 長 里
深 中 里
石 谷 里
靑 藍 里
松 城 里
寶 德 里
松 亭 里
松 谷 里
國師峰
266.7
松鶴山
五鳳山
252.5
서봉동
고소재
평말
안배월
삼송정
서당골
새뜸
청산
종이말
성곡
중석곡
상석곡
하석곡
남포
도장말
버드나무말
소곡
요골
몰도리
각골
동막골
중말
솔치
상소골
흔터골
구리골
사장동
가재골
모시터
보평
신남
덕소
소죽골
갈거리
양지말
원직이
사기소
덕봉골
민태정
이복동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
전동역
수구동
하당리
산성

전동면의 터전과 뿌리

전동면全東面은 전의의 동쪽에 있는 면이란 뜻이다. 과거 전동면은 전의 고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원삼국시대에는 마한馬韓의 54개국 중 하나였고 백제시대에는 구지현九知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지현金池縣이라 하여 대록군大麓郡의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전의현全義縣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1414년 연기현과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 되었다가, 1416년 다시 전의현이 되었다.

조선후기 전동면 지역은 전의현 관내의 동면 남면과 청주목 서강외일면(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여지도서』 전의현 방리조에는 동면에 4개리, 남면에 4개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호구총수』에도 각각 일부의 마을 명칭은 다르지만, 동면과 남면에 4개리씩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말의 마을명을 수록하고 있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마을명이 대폭 증가하여 동면에 22개 동리, 남면에 23개 동리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전동면 지역의 조선후기 해당 면리

마을명	『여지도서』	『호구총수』	한말
동면	수구동리(水口洞里) 대치리(大峙里) 상노장리(上芦長里) 서방동리(西方洞里) [4]	수구동리 대치리 서방동리 노장리(蘆長里) [4]	당리 미당리 지곡리 대치리 외배일리 내배일리 고소치리 죽엽리 상노장리 중노장리 하노장리 갈거리 덕소리 하석곡리 상석곡리 중석곡리 도청리 삼송정리 수구동 대동 서방동 이목동 [22]
남면	보평리(寶坪里) 상송동리(上松洞里) 남포리(藍浦里) 송치리(松峙里) [4]	심천리(深川里) 송곡리(松谷里) 남포리 송치리 [4]	도산리 성곡리 하수회리 상수회리 중리 송치리 동곡리 사정리 신대리 저치동 보평리 심천동 동막동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 각곡리 중송동 상중송리 상송동 하송동 개적동 대중송동 [23]
청주목 서강외일면		청주목 서강외일면 심천중리 심천남리 심천서리 심천북리	청주군 서강외일하면 심남리 심사리 조광동 갈거리 태고리 미원동 상심동(일부) 하심동(일부)

1914년에는 연기군과 전의군이 합쳐지면서 연기군 전동면이 처음 등장한다. 이때의 전동면은 종전의 전의군 동면, 남면, 소서면 등이 합쳐지면서, 미곡리 노장리 봉대리 청송리 석곡리 보덕리 송정리 송곡리 청남리 송성리 신방리 영당리 다방리 양곡리 달전리 금사리의 16개리로 구성되었으며, 미곡리에 면사무소가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에 금사리, 다방리, 달전리, 신방리, 양곡리, 영당리를 전의면으로 이속시켰다.

또한 1995년 3월 1일부로 연기군 동면의 갈산리를 청원군에 떼어주고, 청원군의 심중리를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하여 청원군과의 경계가 동림산 정상을 중심으로 그어졌다.

현재의 전동면은 11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등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7〉 전동면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1995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노장리 1~5	동면 상노장리(上芦長里)	동면 노장리	전의군 동면 상노장리 중노장리 하노장리 갈거리 죽엽동 이목동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전동면 노장리
2	미곡리 1~2	동면 수구동리(水口洞里)	동면 수구동리	전의군 동면 당리 미당리 지곡리 수구동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전동면 미곡리
3	보덕리 1~2	남면 보평리(寶坪里)	남면 심천리	전의군 동면 덕소리 남면 심천리 보평리	연기군 전동면 보덕리	전동면 보덕리
4	봉대리	동면 서방동리(西方洞里)	동면 서방동리	전의군 동면 고소치리 서방동 대동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	전동면 봉대리
5	석곡리			전의군 동면 상석곡리 중석곡리 하석곡리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	전동면 석곡리
6	송곡리 1~2	남면 상송동리(上松洞里)	남면 송곡리	전의군 남면 저치리 개적동 하송동 중송동 상중송동	연기군 전동면 송곡리	전동면 송곡리
7	송성리 1~3	남면 송치리(松峙里)	남면 송치리	전의군 남면 성곡리 상수동리 하수동리 중리 송치리 각곡리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전동면 송성리
8	송정리 1~2			전의군 남면 동곡리 사정리 신대리 사송동 대중송동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전동면 송정리
9	심중리 1~2		청주목 서강외일면 심천중리 심천남리 심천서리 심천북리	청주군 서강외일하면 심남리 심사리 조광동 갈거리 태고리 미원동 상심동(일부) 하심동(일부)	청주군 강외면 심중리	1995년 3월 1일자로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10	청남리	남면 남포리(藍浦里)	남면 남포리	전의군 남면 동막리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	연기군 전동면 청남리	전동면 청남리

전동면 노장리

조사대상 안동권씨 추밀공파

노장리蘆長里는 1914년에 전의군 동면 상노장리 중노장리 하노장리 갈거리 죽엽동 이목동이 합쳐져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가 되었다.

문헌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노장리' 지명은 18세기 말의 『호구총수』에서 처음 등장한다. 『호구총수』 전의현 동면에 4개의 동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蘆長里(노장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호구총수』보다 앞선 자료인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동면에 '蘆長里(노장리)'라는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上芦長里'가 있어서, 관문(전의현 고을 치소)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되는 거리이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가 100호, 인구는 남자 244명, 여자 233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芦'(지황호, 지황 부들)는 '蘆'(갈대노)의 속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지도서』의 기록은 '상호장리'라고 부르기 보다는 '상노장리'라고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상노장리가 노장리 가운데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명의 변천을 볼 때, 상노장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가 밀집해 있다가 농경지를 넓혀 가면서 거주지가 점차 주변 저지대로 확산되어 마을수

가 늘어났을 것이다. 한말의 자료에서 중노장과 하노장의 지명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노장천의 하류 방향으로 중노장과 하노장 마을이 자리한 것은 농경이 가능한 지역이 산간지대에서 평야지대로 광역화 되어 가는 현상의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20세기 초기의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1월 1일 기준)에는 죽엽리竹葉里 상노장리上蘆長里 중노장리中蘆長里 하노장리下蘆長里 갈거리葛巨里 이목동梨木洞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이들 자연촌락들이 1914년에 행정동리 노장리로 편성된 것이다.

'노장蘆長'이란 지명에 사용되는 '蘆(갈대노)'는 갈대와 관련 있는 글자이다. 원래 이곳은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노장천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조천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 하천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큰 비가 내렸다 하면 홍수피해가 심하여 농경지로 개간이 어려웠다한다. 조선후기까지도 물이 넘치는 갈대가 무성한 갈대밭으로 천변마을이었다. 원래 물에 잠겨있던 지역이 천지개벽으로 땅이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군도1호와 철도가 개설되어 전동역이 설치되면서 하천주변의 평지는 모두 옥토가 되었고 교통의 요지로 각광 받으면서 1938년에 면소재지가 되었다. 즉, 미곡1리 미륵당마을에 있던 면 행정의 중심지가 일제강점기에 노장1리로 이동하였다.

현재 노장리는 1리부터 5리까지 다섯 개 행정리로 나뉘어져 있다. 노장천과 조천천이 합수되는 지점이 노장1리이고 여기에서 물길의 흐름을 역행하여 북쪽방향으로 2리~5리까지 자리잡고 있다. 하노장(1리) 중노장(2리) 상노장(3리) 이목동(5리)이라 불리고, 노장4리는 도원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노장리[갈거리, 노장]는 본래 전의군 동면 지역으로, 갈대가 무성하므로 갈거리라 하던 것인데, 임진왜란 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곳에 살면서 갈대의 덕을 입어 무난히 왜란을 피한 후 마을 이름을 노장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

1	3
2	

1 노장리(상노장)
2 노장리(중노장)
3 노장리(하노장)

죽엽리, 이목리를 병합하여 노장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마을로 원지기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배나뭇골[梨木洞], 전에 대나무가 무성했다는 주겸니[竹葉里], 노장 위쪽에 있는 마을인 상노장[上蘆汀], 상노장 동쪽에 있는 마을로 선조 때 학자 권주가 이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였다고 하는 원지기[元直], 노장 중앙쪽에 있는 마을인 중노장[中蘆長, 中蘆汀], 중노장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 양지말[陽地村] 등을 소개하고 있다.

노장리 안동권씨 추밀공파

전동면 노장리 안동권씨 추밀공파樞密公派의 파조는 시조의 10세손인 충순공忠純公 권수평權守平(1180년 경~1250)이다. 벼슬이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추밀공파라 일컫는다. 추밀공파의 노장리 입향조는 권은權誾(1400년대)이다. 권은은 파조 권수평의 10세손으로, 조부는 태종太宗의 부마인 제간공 권규權跬이며, 아버지는 돈녕공敦寧公 권담이다. 권담은 원래 병조판서를 지낸 박습朴習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박습이 군무처리와 관련하여 퇴각 당하자, 강제이혼당하고 이어 병조판서 정연鄭淵의 딸과 혼인하였다. 권은의 부인은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황보인皇甫仁의 딸이다.

제간공 권규의 후손들을 별도로 제간공파라고도 부른다. 권규는 추밀공 권수평의 8세손으로 권근의 셋째 아들이며, 태종의 셋째 딸인 경안공주慶安公主(혹은 宮主)의 남편이다. 권규는 살아 생전에 길천군吉川君 또는 길창군吉昌君이라 불리었으며, 죽은 후에 제간齊簡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권은이 전동면 노장리에 입향하게 된 계기는 수양대군의 계유년 정변(계유정난)과 관련이 있다.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계유정난癸酉靖難(1453)이 성공한 직후, 황보인・김종서・윤처공 등이 살해되고, 일가가 전멸됨으로서 영의정 황보인皇甫仁의 사위였던 권은은 선영이 있는 용인으로 피신했다.

계유정난을 주도한 권람權擥이 그의 당숙이었으나, 쉽게 알려지지 않다가, 10년 후인 1463년에 발각되었다. 10년간 양주楊洲에 부처付處되었다가, 1463년(세조 9)에 방면되어 후손들이 전의현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노장리에 세거하는 안동권씨 추밀공파에서 배출된 인물로는 권주權柱가 있다. 그는 권은의 6세손으로 음보蔭補로 출사하여 품계는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이르고 관직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임진왜란 당시 백미 800석을 향소餉所에 헌납하였다. 권주의 아들 권봉은 주부主簿를 지냈고, 병자호란丙子胡亂(1636) 때 정동리鄭東里(현재의 정중리)에서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 권전權佺도 권봉의 아들로 훈련원訓練院 봉사奉使를 지냈으며, 권봉과 함께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이들과 관련된 지명유래도 전해진다. 노장리는 왜군을 맞아 권주와 일가족 및 마을사람들이 갈대밭에 숨어 참화를 피했으므로 권주가 그 갈대밭을 노장蘆長이라 불렀다고 하며, 배일排日이란 마을 이름도 권봉·권전 부자가 순절한 후 사람들이 일본을 배척한다며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라는 혼란기에 권주가 왜 상노장으로 입향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웃한 전의 양안에서 이곳으로 이거하였다는 전언으로 보아 전의에서 가까운 노장리에 권씨가 소유한 토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대에 들어 안동권씨가의 묘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실전했던 전의이씨 시조묘가 발견되기도 했을 만큼 안동권씨가는 수백년간 전의와 전동에서 그 위세를 이어갔다. 노장리로 입향한 전동면의 안동권씨는 점차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 인근의 청송리에서도 집성촌을 이루었다. 가문은 대대로 번성하여 한말에는 3천석 부자도 있었다. 그의 땅이 수신면에까지 있을 정도였고 봉대리로 가는 길목인 노루목 고개에 큰 창고를 지어 매년 받은 도지를 쌓아 놓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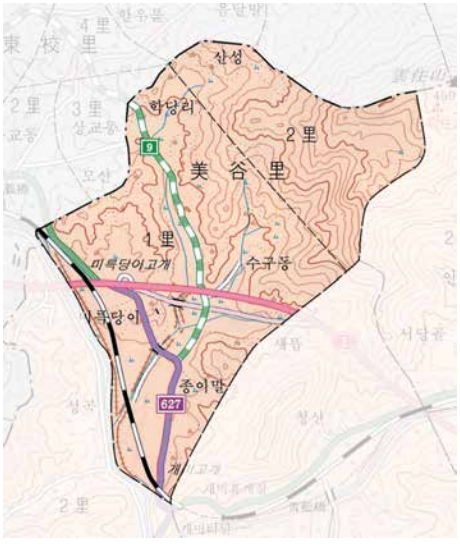
상노장 뒷산 일대가 권씨가의 세장지이다. 현 거주자의 13대조 묘가 이

곳에 있고, 그 전대의 묘소는 전의에 있다. 노장리에서 번성한 권씨집안은 한 때 상노장에서만 50호가 넘게 거주하기도 했다.

임진왜란의 혼란을 피해 권주가 노장리에 사는 동안 말을 타고 훈련하던 장소를 '말바탕', '치마대'라 하였고, 산에 막을 치고 피난을 했다 하여 산막골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권주에게는 다섯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권영의 후손들이 주로 상노장에서 살았고, 넷째인 권기의 후손이 청송리에 뿌리를 내렸다. 막내 권봉은 임진왜란 중에 순절하였다. 권봉은 조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병마산 아래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였는데, 이때에 피묻은 적삼을 말 등에 올리자 말이 스스로 상노장 종가집으로 달려가 한참을 울던 끝에 죽었다고 한다. 집안에서는 시신 대신 적삼을 묻고 말무덤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전동면 미곡리

미곡리美谷里는 1914년에 전의군 동면 당리 미당리 지곡리 수구동이 합쳐져 미곡리가 되어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미당과 지곡의 지명을 합쳐 미곡리라고 한 것이다. 한말의 자료에서도 동면에서 이 4개의 마을명(堂里, 美堂里, 紙谷里, 水口洞)이 확인된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의 자료인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동면의 4개 동리 가운데 수구동리水口洞里가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수구동리는 전의현 치소의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7리의 거리에 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가 77호, 인구는 남자 105명, 여자 159명이라고 한다. 아마 당시에는 수구동리가 대표성을 지닌 동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대상 안동김씨 전서공파, 검교공 김휴의 유허비, 학당이의 유적들

현재의 미곡리는 2개의 행정동리(1리 · 2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곡1리에는 미륵당이 종이말 수구동 학당리가 있다.

미륵당이[미력당이, 美堂, 美堂里] 마을에는 마을 모퉁이에 미륵[彌勒堂]이 있는데, 남녀 두 형상으로 높이 3척 5촌, 넓이 1척 8촌이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미륵제를 지내는데, 그 유래가 100여년 되었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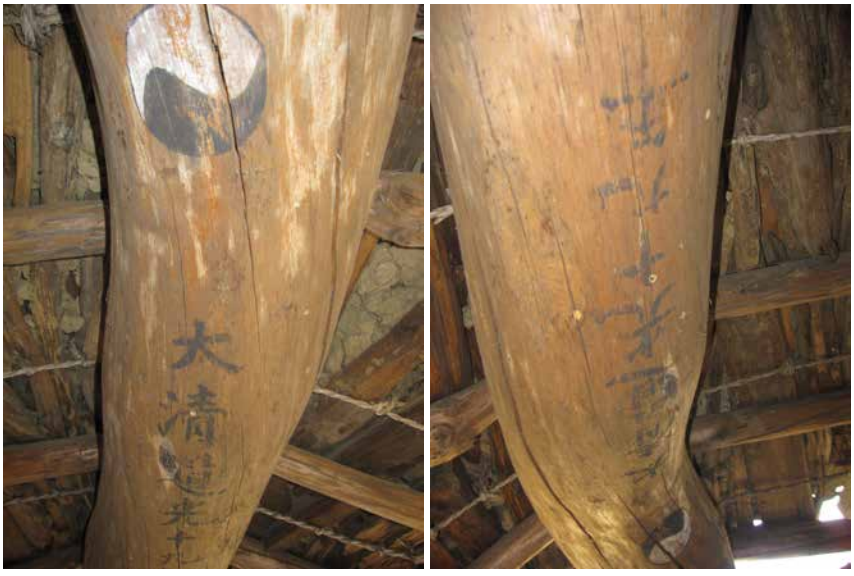
미곡리 미륵당이 마을모습. 가운데 보이는 우물은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동네사람 모두 사용했던 우물이다. 우물 뒤쪽으로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미륵당 가는길

미곡리 미륵당 이 미륵당으로 인하여 미곡리라는 지명이 생겼다 한다.

1	2
3	4

1 미륵당 내부모습
2~4 미륵당 외부



미륵당 상량과 상량문

였다. 그런데 대청 도광 19년[大淸道光十九年] 상량문이 수습되었다고 하니, 청나라 도광 19년은 1839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100여년이 아니라 200여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륵당이 건너편에는 종이말이 있다. 조일말이라고도 불리는데, 한자어로는 제지곡製紙谷, 지곡紙谷이니 곧 지곡리이다. 『한국지명총람』(1974)에서는 미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제지소가 있었다고 하였다.

미륵당이 동북쪽에는 수구동水口洞(피숫골, 피수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피란하였던 수백명이 왜적에게 피살되어 피가 내를 이루었으므로, 피숫골, 또는 피수동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흉하여 수구동으로 고쳤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구동은 18세기말의 『여지도서』나 『호구총수』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는 대표성을 지닌 마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당마을 안동김씨 묘역에서 내려다본 마을 모습

학당마을의 어느 민가

미륵당이 동북쪽 산 속에는 학당이[學堂里]라는 마을이 있다. 이 곳은 고려말에 안렴사를 지낸 김휴金休가 살면서 학당을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학당'이라는 마을 이름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을 입구에는 김휴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이상의 미륵당이 조일말 수구동 학당이 등은 한말 자료의 4개의 마을명(美堂里, 紙谷里, 水口洞, 堂里)과 관련된 마을일 것이다. 그러나 조일말 동북쪽의 새뜸[新洞]은 새로 된 마을이다. 따라서 한말의 지명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륵당 마을에는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면소터'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은 1937년에 전동면사무소가 전동역이 있는 노장리로 옮겨지기 전까지 전동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전동면사무소는 원래 청송리에 있었으나 미곡1리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미곡1리는 미륵당과 조일말 앞으로 큰 길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다. 『여지도서』 전의현 도로조에 의하면, 전의 치소에서 남방으로 연기현에 이르는 도로가 미력당리(5리) - 수회리(10리) - 송치리(15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면사무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1937년에 경부선 전동역이 있는 노장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즉 경부선 철로가 놓이기 전까지 미곡1리는 육로상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곡리의 중심 마을은 여말에 이미 학당이가 등장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수구동, 조선후기의 미륵당이, 20세기의 종이말로 점차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미곡2리는 전동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의면과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미곡리 일대는 운주산에서 남주한 능선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을 앞으로는 조천鳥川이 흐른다. 미곡2리는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에 해당한다. 미곡리는 운주산이 마을 전체를 굽이굽이 산줄기가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과 지명,

백제시대의 유물산포지, 안동김씨와의 인연 등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미곡리 안동김씨 전서공파

전동면 미곡리 안동김씨安東金氏 전서공파는 충열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1212~1300)의 5세손인 전서공 김성목金成牧을 파조로 한다. 전서典書는 고려후기와 조선 건국초 정3품의 관직이다. 안동김씨 전서공파는 전의현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전동면 미곡리 안동김씨 전서공파의 입향조는 김휴金休로 연기지역에 연고를 가진 최초의 안동김씨 인물이다. 김휴의 호는 학당學堂으로 고려 공민왕 때 검교檢校로 있으면서 왕을 시종하였다. 어려서 포은 정몽주에게

안동김씨 재실

수학하였고, 조선 개국 후에는 전의 운주산 밑 학당(현 전동면 미곡리 학당)에 은거하였다. 현재 안동김씨 재실인 학당재가 위치한 곳이 김휴가 처음 자리 잡은 터라고 전해진다. 학당이는 운주산의 중턱에 자리잡은 마을로 흔히 운주산은 호랑이 형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학당이는 호랑이의 머리부분에 해당한다. 김휴의 이전 거주지는 자세하지 않다.

김휴의 정확한 입향연대는 전해지지 않으나 후손에 의하면 선대부터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살았는데, 고려가 망하자 절의를 지키고자 아버지인 김성목과 두 아들이 곧바로 고향에 내려온 것으로 전

김성목 묘비, 김성목은 학당리 입향조 김휴의 부친이다.

학당리 안동김씨 묘역

학당리 안동김씨 묘도

안동김씨 족보

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 연기군으로 낙향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전해오는 문헌은 없다. 후손의 전언과 1997년에 발행된 연기지역 충렬공의 후예들에 의하면 안동김씨 중시조 김방경의 둘째 아들인 김흔장군이 합단적을 물리친 곳인 연기군 서면 연기대첩에 참전하여 공훈을 세웠던 인연도 결코 배제하여서는 곤란한 듯 하다고 한다. 고려말의 안동김씨들은 충렬공 김방경 부자의 행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권의 중심부에 있었다. 따라서 고려말의 인연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건국에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태조는 전의현에 은거한 김휴를 호군에 임명하지만, 그는 노친을 봉양한다는 구실로 사퇴하였다. 그러자 태조는 다시 가선대부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는데, 이때에도 끝내 새로운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의 양성에만 힘을 쏟았다. 그는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충효열 삼

강의 도리를 실천하여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김휴의 문하생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 인근에 사는 유림들이 깊은 뜻을 새기기 위하여 그가 살던 마을 이름을 김휴의 호를 따서 학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 학당마을에는 김휴의 묘소를 비롯하여 안동김씨 문중묘역과 재실, 신도비가 서 있다.

김휴의 부인은 선산김씨로 김효신金孝信의 딸이다. 한편, 1447년에 생원시에 입격하여 방목에 수록되어 있는 김승존金承尊이 선산김씨이며 거주지가 전의현으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김휴의 전의현 입향과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김휴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 김익정金益精(?~1449)은 1396년(태조 5)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문하부의 요직을 지냈고, 1409년(태종 9) 장령掌令이 되었다. 내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참판에까지 오르고, 1435년 경상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죽었다. 근검하고 사치를 몰랐으며 효성이 지극하였다. 전의면 양곡리에는 김익정의 정려가 건립되어 있다. 김휴의 막내 사위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의 조부인 박안생朴安生순천박씨이다.

현재 안동김씨는 전의면 양곡리, 신방리, 달전리, 신흥리, 금사리 등의 주변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

미곡리 검교공 김휴의 유허비

1819년(순조 19)에 세웠다. 유허비 건립은 김휴의 후손으로 전의현감에 부임했던 김규한이 주선했으며, 그 후 후손 김광순이 1896년(고종 13) 2월에 개각했다. 이 유허비는 동지들이 세워줬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우암 송시열 6대손이자 가선대부 대사헌 이조참판을 지낸 강재 송치규가 비문을 지었으며, 뒷면의 행장은 외후손 삼주 이채가 짓고 연안김씨 김광이 글씨를 썼다.

김휴 유허비 전면

김휴 유허비 조사모습

미곡리 학당이의 유적들

학당이 마을에는 안동김씨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김휴의 신도비가 서 있다. 학당이 마을 뒤편 구릉에는 안동김씨 재실과 묘소가 위치한다. 재실은 1990년대 초반에 종중회의를 거쳐 지어졌다. 묘소 제일 상단부에는 김성목의 부친인 장령공 김구의 단비가 건립되어 있다. 그 아래로는 김성목과 김휴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김성목의 묘비는 구비는 무오년에 건립된 것이고, 김휴의 묘비는 1819년(순조 19)에 세워졌다.

전동면 보덕리

조사대상 여흥민씨 강릉김씨 청주한씨, 효부 김진창 처 나주나씨 정려

보덕리寶德里는 1914년에 종전의 전의군 동면 덕소리와 남면 심천리 보평리를 합하여 보덕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보덕이라는 동리명은 보평寶坪과 덕소德沼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지명이다. 보평리寶坪里는 『여지도서』 전의현 남면에 이미 마을명이 보인다. 전의현 치소인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는 108호, 인구는 남자 160명, 여자 189명이었다. 그러나 『호구총수』에는 남면에 보평리는 없고, 대신 심천리深川里가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도 전의군 동면에 덕소리德沼里, 남면에 보평리寶坪里, 심천동深川洞 등이 보인다. 현재 보덕리는 2개의 행정리(1리 · 2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덕1리의 보평寶坪(봇들)은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앞에 넓은 들과 큰 보가 있어 물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마을보다도 농사가 잘 된다 하여 보와 들이 있는 '봇들마을'이라고 불리던 것이 '보평마을'로 표기된 듯하다. 7년 가뭄에도 모를 심을 만큼 물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일컬어졌던 곳이라 한다. 서당골은 보평 뒤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하며, 서당골 앞에는 김진창의 아내 나씨의 효열을

보덕리 마을모습과 마을입구

찬양한 정문인 열녀문이 있다. 보평 북쪽 냇가 산기슭에는 장군바위(將軍岩, 石亭)가 있다. 큰 바위가 넓은 바위 위에 얹혀 있고 그 밑에 큰 내가 흐르는데, 명종 때 학자 박곤朴坤이 토정 이지함을 찾아 바위 위에서 이학理學을 담론하였다고 전해진다.

보덕2리는 현재 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반이 덕소마을 2반이

윗지프내이다. 덕소德沼는 '큰 늪[沼]'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윗지프내[上深川]는 '지프내, 즉 깊은 내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지명이다. 지프내[深川]는 보평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깊은 내가 흐르고 있다.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조천이 마을을 휘감아서 둥그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 워낙 깊은 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붙여진 듯 하다. 이후 '지프내'라는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깊을 심深과 내천川자의 한자를 사용하여 '심천'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웠다.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로 마을을 휘감아 돌고 있는 조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은 송학산의 산밑으로 옆으로 길게 펼쳐진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마을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까지 보덕2리는 피난골로 유명했다고 한다.

여흥민씨 강릉김씨 청주한씨의 보덕리 거주

보평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성씨는 여흥민씨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흥민씨는 마을 뒷산이 전부 종산이었을 정도로 한때 마을의 터주대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여흥민씨 후손은 한 가구만 살고 있을 뿐이다. 아쉽게도 자세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여흥민씨 다음으로는 강릉김씨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한다. 강릉김씨도 마을 뒷산을 종산으로 삼을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으나, 현재는 이 마을에 한 가구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효부 김진창 처 나주나씨 정려를 통해서 이 마을에서 번창했을 강릉김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마을 이장을 통해 들은 바로는, 강릉김씨는 현재 마을을 모두 떠나간 상태라서 나주나씨 정려의 관리도 이장이 손수 정려주변 풀을 깎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정려 뒤편으로 보이는 야산의 강릉김

보덕리 강릉김씨 묘

씨 종산에 오래된 묘소 한기가 멀리서도 보였다. 오래전부터 세거하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강릉김씨가 어떤 연유로 마을을 모두 떠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현재 정려의 주인공 남편인 김진창씨 후손은 충북 강외면에 살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을에 많이 거주했던 성씨는 청주한씨이다. 청주한씨는 여흥민씨나 강릉김씨에 비할만한 형세는 아니었으나, 현재 세 성씨 가운데 마을에 가장 많은 가구가 살고 있다. 후손의 이야기에 의하면, 5~6백년전에 심중리에 먼저 터를 잡고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옆 동네인 보덕리까지 이주하여 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심중리에서 보덕리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약 130여년전 부터라고 하는데, 최초의 보덕리 이주자로는 한용희韓用羲를 지목하며, 그의 첫째 아들 한공리韓恭履와 둘째 아들 한경리韓敬履 형제는 보평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주한씨도 4~50년전에는 30여 가구까지 살았으나, 현재는 대여섯 가구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청주한씨 조사모습

청주한씨 족보

보덕리 효부 김진창 처 나주나씨 정려

전동면 보덕리 보평마을에 위치한 정려旌閭이다. 마을의 중앙부 경작지에 남향으로 위치하며 주변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정려의 주인공인 효부孝婦 나주나씨羅州羅氏는 1600년 중반경(현종조)의 인물로 나응수羅應壽의 딸이다. 강릉김씨 김진창金震敞과 혼인하여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남편을 잘 섬기었다. 남편 김진창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홀로 시부모를 더욱 극진히 모셨다. 그러다 시부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3년 시묘를 정성껏 마친 뒤 따라 죽었다. 이러한 그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효부의 행적을 조정에 알려 1676년(숙종 2)에 정려를 받게 되었다.

그 뒤 30년이 지난 1706년(숙종 32)에 1차 중수를 하였다. 그 뒤의 중수 연혁은 상세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려는 1976년 중수를 한 것이다.

정려의 구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 형식을 하고 있으며, 양 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한 8각 높은 기둥 초석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리고 4면은 홍살을 돌려 놓았으며 처마는 홑처마로 처리하였다. 정려의 내부 중앙 상단부에는 효열부 통덕랑 김진창 처 공인 나씨지려(孝烈婦 通德郎金震敞妻 恭人羅氏之閭)라는 명정 현판이 걸려 있으며, 숭정기원후 병술 12월 일 명정(崇禎紀元後 丙戌 十二月 日 命旌) 숙종조 병진 중춘 개립(肅宗朝 丙辰 仲春 改立)이라는 명정시기와 중수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주변에는 철책을 둘러놓고 잘 보호·관리하고 있다.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2호로 지정되었다. 나주나씨의 묘소는 전의면 남포에 아들의 묘소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나주나씨 정려

전동면 봉대리

조사대상 여산송씨 정가공파

봉대리鳳臺里는 1914년에 종전의 전의군 동면의 고소티리, 서방동, 대동을 병합하여 '봉대리'라 일컫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시켰다. '봉대'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서봉'(서방동이 바뀐 것)과 '대동'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와 '서봉'과 '망경대'(산)에서 유래했다는 설[한글학회의 지명총람]이 있다.

『여지도서』 전의현 방리조의 동면에는 4개의 동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방동리西方洞里가 있다. 전의현 고을 치소인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가 72호, 인구는 남자 115명, 여자 152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동면의 4개 동리 가운데 서방동리西芳洞里가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전의군 동면의 22개 마을 가운데에서 고소치리古所峙里, 대동垈洞, 서방동西方洞을 모두 찾을 수 있다.

봉대리는 전동면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산간마을로 운주산, 고소재, 망경대 등의 높은 산이 동네를 둘러싸고 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일찍이 골짜기마다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네가 아예 없어지는 일이 생겨 소봉동, 고소재, 평말 등을 제외하고

는 골짜기라 하더라도 집 한 채 없는 곳이 있다. 봉대리는 한 개의 행정리로 구획되어 있고,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전동면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고 할 수 있으나, 산골마을이어서 농경지는 좁은 편이다. 전동면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노장천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1974년의 한글학회 조사[지명총람]에서는 고싯재[고소티, 고소티리]는 봉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고싯재 고개 밑에 있으며, 서방골[쇠방골, 서봉동]은 고싯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 텃골[대동]은 고싯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봉대리 여산송씨 정가공파

전동면 봉대리 여산송씨는 정가공正嘉公파이다. 여산송씨의 시조는 송유익宋惟翊이고, 송유익의 6세손인 송서宋瑞(?~1353)가 정가공파의 파조이다. 송서는 고려후기의 문신으로, 공민왕 원년에 우정승右政丞까지 지내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죽은 후 정가正嘉라는 시호를 받았다. 봉대리의 여산송씨는 시조로부터 18세, 파조로부터 12세인 송인남이 입향조로 알려져 있다. 봉대리에는 그의 자손이 13대째 거주하고 있다.

송인남宋仁南은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한양에서 봉대리까지 걸어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망경대산에 올라 임금이 계신 북쪽을 바라보고 늘 무사안녕을 빌었다고 하며, 망경대라는 산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편, 묘소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송인남의 묘는 전동면 봉대리 운주산 아래에 있는 반면, 아버지, 할아버지의 묘가 진천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진천에서 살다가 옮겨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송인남의 배위가 달성서씨인데 이점이 입향사유로 주목된다.

봉대리의 토박이는 원래 서씨였다고 한다. 온통 서씨가의 땅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였고, 사위에게 토지를 상속시켜

송인남의 장인장모 묘 위치

송씨가 터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산골짝이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총이 많은데 이것이 모두 서씨묘라고 전한다. 서방동이 서씨동네로 풀이될 수도 있을 듯하다.

봉대리 마을에 달성서씨들이 먼저 살았고, 송인남은 여기에 다랫사위(데릴사위)로 왔다는 것이다. 송인남 처부모(장인 · 장모) 묘가 있어서, 지금도 여산송씨들이 매년 음력 10월 9일 시향을 지낸다. 달성서씨에게 첫제사를 지내주고 나서, 송씨 조상의 제사는 10월 10일 지낸다고 한다. 시향답(외손봉사답)으로 논배미가 530여평(현재는 과수원) 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여산송씨 봉대리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종친회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종중의 땅이 있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모신다. 종

여산송씨 세손보

가는 고소재 마을에 있다. 봉대리에서 고소재가 여산송씨의 집성촌이고, 그 외에는 각성받이 마을이다.

전동면 석곡리

조사대상 거창신씨 대사헌공파, 열부 신이초 처 기계유씨 정려

석곡리石谷里는 1914년에 전의군 동면의 상석곡리 중석곡리 하석곡리를 합쳐 연기군 전동면 석곡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석곡리[선돌배기, 돌꽂이, 석곡]는 마을 앞에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배기, 또는 돌꽂이라 하였고 이의 한자 표기가 '석곡石谷'이다. 조선후기의 지리지에서는 '석곡'을 찾아볼 수 없고,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상석곡리上石谷里, 중석곡리中石谷里, 하석곡리下石谷里가 모두 보인다.

돌꽂이라는 지명은 옛날 마을회관(현재는 마을 입구 데꼬지휴게소)이 위치한 곳에 원래 큰 돌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큰 돌이 꽂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돌꽂이라고 불리웠으나 병인년 장마로 폭우가 내리던 날 돌이 넘어져서 땅속으로 묻혔다고 한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그 돌을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해 현재는 그 선돌을 확인할 수 없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선돌이 없어지기 전까지 석곡리는 전동면에서도 어느 동네 못지 않게 풍족한 부자동네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선돌이 땅에 묻혀 사라지게 된 이후로 마을은 급격하게 쇠락했다는 것이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돌이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이

석곡리 마을입구에 장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석곡리 상석곡　이곳에 거창신씨들이 처음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석곡리 중석곡 이곳은 강릉김씨가 마을을 이룬 곳이다.

석곡리 하석곡리 입구 옛날 선돌이 있던 위치이며 전주이씨들이 처음 마을을 이루었다는 곳이다.

었다는 주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마을 뒤편으로는 국사봉이 마을을 감싸 안고 마을 앞으로는 조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로, 현재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반은 상석곡, 2반은 중석곡, 3반은 하석곡이다.

석곡리 거창신씨 대사헌공파

전동면 석곡리에 가장 먼저 들어와 터를 잡은 성씨는 거창신씨로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조선시대 연산군의 부인이었던 거창신씨 집안은 12대조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자, 몸을 숨기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산세 좋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석곡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거창신씨가 석곡리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게 되면서 석곡리와 이웃한 전동면의 청송리와 전의면의 관정리까지 거창신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석곡리에 거창신씨가 세거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신수준愼秀俊(1565~1629)이 이주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전의지역의 거창신씨(대사헌공파)들은 신수정愼守正이 기묘사화를 피하여 이웃한 목천으로 이거하고, 뒤에 그 후손들은 인접한 전의지역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즉 신수정의 아들 신방보愼邦輔는 대흥리에, 증손자 신수호愼秀豪와 신수준愼秀俊은 전의 관정리와 석곡리로 이주하게 되었다. 석곡리의 거창신씨 신이초(신수정의 6세손)는 기계유씨와 혼인관계를 통해 세력을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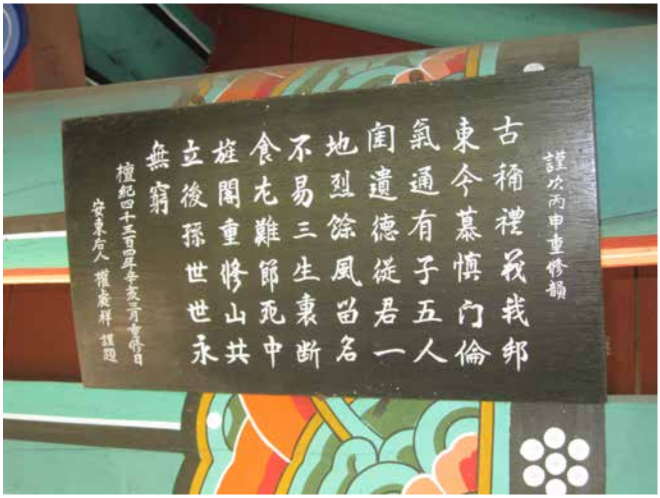
또한 거창신씨와 기계유씨 외에도 전주이씨가 석곡리에 많이 거주했는데, 전주이씨는 거창신씨의 사위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래 서울에 살고 있던 전주이씨들이 당시 서울에 돌림병이 돌면서 처갓집이었던 석곡리에 피신을 왔다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서 석곡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현재 석곡리에는 거창신씨가 절반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석곡리 열부 신이초 처 기계유씨 정려

열부烈婦 기계유씨杞溪兪氏(?~1719)는 시남 유계의 종손녀從孫女이다. 유계는 조선중기 호서지역의 대표적인 서인－노론계의 인물로 사계 김장생金長生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선거尹宣擧, 이유태李惟泰 등과 함께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인물이다. 이 같이 저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유씨는 어려서부터 부덕을 익혔으며, 나이가 차자 석곡리의 거창신씨居昌愼氏 22세손 신이초愼爾初(1663~1719)와 혼인하였다. 『호서읍지』, 『전의현읍지』, 『조선환여승람』에 따르면, 기계유씨는 남편 신이초愼爾初가 죽자 정성껏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른 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한지 7일만에 죽은 열부烈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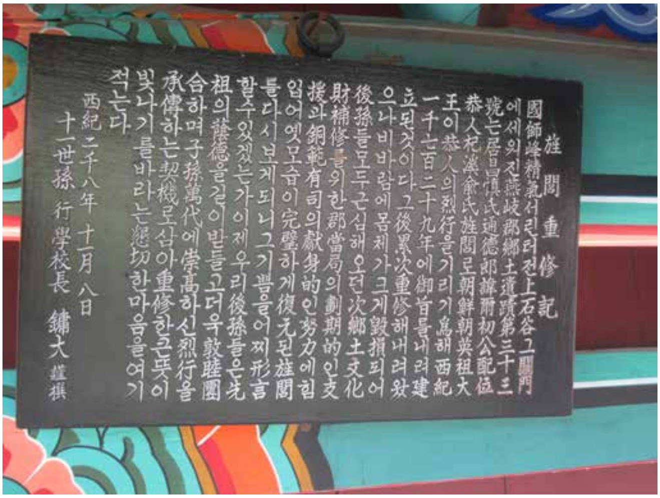
기계유씨는 본래 성품이 어질고 착했으며 또한 총명하고 도량이 넓어 이해심이 깊은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남편 신이초와는 부부 금슬이 좋아 슬하에 10남매를 두고 시부모에 대한 정성스러운 봉양과 함께 일가 친척간에는 화목을 도모하는 효부였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장례를 잘 치르고는 자식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너희 아버지를 정성껏 받들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구나. 이제 나 혼자 남아 있으니 어찌 부덕을 다한다 할 수 있으랴. 이제 나도 너희 아버지를 따름이 지어미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 하였다. 이 말에 자식들은 통곡하며 만류하였다. 그러나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형제간에 더욱 화목하게 살도록 하거라."라고 당부하고는 그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에 자식들은 울면서 자기들의 효성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죽음을 결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으나 끝내 유씨는 식음을 전폐한지 7일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다.

전의현 지역의 사림士林들은 죽은 기계유씨의 열부 행적을 기리고자 전의현감과 충청감영에 열행을 상서하여 조정으로부터 죽은지 10년만인 1729


謹次丙申重修韻
古稱禮義我邦
東令慕愼门倫
氣通有子五人
閨遺德從君一
地烈餘風留名
不易三生裏断
食乇難節死中
旌閭重修山共
立後孫世世永
無窮
檀紀四千三百四年辛亥三月重修日
安東后人 權 謹題

謹次丙申重修韻
天生孝烈全池
東貞節堂堂義
氣通芝蘭郁郁
三從地松栢青
青百代風承先
蔭德垂昆後遺
世芳名載史中
雲仍追慕修旌
閣餘運綿綿永
不窮
檀紀四千三百四年辛亥重修日
族後孫孔範 謹題

故通德郎愼甫初妻烈女恭人杞溪俞氏之門


旌閭重修記
國師峰精氣서린려전上石谷그閭門
에세워진燕岐郡鄕土遺蹟第三十三
號는居昌愼氏通德郎諱甫初公配位
恭人杞溪俞氏旌閭로朝鮮朝英祖大
王이恭人의烈行을기리기爲해西紀
一千七百二十九年에御旨를내려建
立된것이다그後累次重修해내려왔
으나비바람에몸체가크게毁損되어
後孫들모두근심해오던次鄕土文化
財補修를위한郡當局의劃期的인支
援과銅範有司의獻身的인努力에힘
입어옛모습이完璧하게復元된旌閭
를다시보게되니그기쁨을어찌形言
할수있겠는가이제우리後孫들은先
祖의蔭德을길이빛내고더욱敦睦團
合하며子孫萬代에崇高하신烈行을
承傳하는契機로삼아重修한큰뜻이
빛나기를바라는懇切한마음을여기
적는다
西紀二千八年 十一月 八日
十一世孫 行學校長 鏞大 謹撰

기계유씨 정려내부 현판

년(영조 5)에 정려를 명받아 건립되었다. 한편, 이 정려가 건립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연기지』와 『거창신씨세보居昌愼氏世譜』에서는 이 지역에 파견되었던 암행어사의 계문啓聞으로 정려를 받았다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1729년 정려를 명 받은 후 곧바로 정려가 세워졌을 것이지만, 당시의 창건사정기록이나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창건이후 세월이 오래 지나 건물이 퇴락하자 1896년에 중수를 하였고, 다시 퇴락하자 1971년 문중의 협의와 군비 보조로 재차 중수하였다.

정려旌閭는 석곡리 마을 북서쪽 야산 남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1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처마는 겹처마로 되어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만든 원형초석 위에 원주를 올리고 4면에는 홍살을 돌렸으며 정면은 문으로 시설하였다. 정려의 내부 중앙 상단에 죽은 통덕랑 신이초의 처 열녀 공인 기계유씨의 정문이라는 현판(故通德郎 愼爾初 妻 烈女 恭人 杞溪兪氏之門)이 걸려있다. 그리고 그 뒤편 벽면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각기 1896년 7대손 신종하愼宗夏의 중수기와 1971년 9대손 신혁범愼赫範의 중수기가 걸려 있으며, 정려 뒤편의 양쪽 벽면에는 안동인 권처상權處祥과 9대손 신공범愼孔範이 지은 행적시가 걸려 있다. 기계유씨의 묘소는 상석곡 후록에 위치해 있다.

전동면 송곡리

조사대상 경주김씨 계림공파

송곡리松谷里는 전의군 남면의 저치리 개적동 하송동 중송동 상중송동이 1914년에 송곡리로 합쳐져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남면에 상송동리上松洞里가 수록되어 있다. 그 위치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아마 이 상송동리가 송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여겨진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상송동리의 편호는 52호, 인구는 남자 94명, 여자 124명이었다. 『호구총수』에서는 전의현 남면의 4개 동리 가운데 송곡리松谷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1914년의 동리 통폐합 이전인 18세기 말에도 이미 송곡리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전의군 남면에서 저치동苧峙洞 중송동中松洞 상중송리上中松里 하송동下松洞 개적동介赤洞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송곡리라는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송곡리[속골, 소골, 송곡]의 유래에 대해 본래 보평 안쪽 골짜기에 있으므로 속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이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곡리 전경

송곡리는 마을의 뒷산인 장산이 마을을 감싸안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송정리 구리골 소류지에서 발원한 송곡천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현재의 송곡리는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송곡1리는 모시터[저티리]와 하소골[아래소골, 하송곡], 송곡2리는 능골[중소골, 중송곡]과 가재골로 이루어져 있다.

송곡리 경주김씨 계림공파

송곡리에는 경주김씨 계림군파가 살고 있다. 17세기 인물인 송애 김경여(1596~1653)의 후손이기 때문에 송애공파라고도 일컫는다. 김경여는 자는 유선由善, 호는 송애松厓이고, 아버지는 찬성贊成에 추증된 광유光裕이며, 어머니는 송남수宋柟壽의 딸이다. 김경여는 이귀李貴의 사위이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동문인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김집金集과 교유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독전어사가 되어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듬해 화의가 이루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회덕으로 돌아가 생활하였다. 1650년(효종 1)에는 충청도관찰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연기군 동면 응암리에 세거하고 있으며, 그곳에 송애공의 묘소와 사당, 신도비가 있다. 이러한 송애공 김경여의 후손인 김정욱(1868~1954)이 송곡리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후손의 전언으로는 일제 때 일인 지주의 토지를 관리하는 마름을 지냈으며, 일제 이후에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송곡리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 경주김씨 계림공파 김정욱의 묘소와 비석
← 경주김씨 계림공파 후손과 면담중

전동면 송성리

송성리松城里는 1914년에 전의군 남면의 성곡리 상수회리 하수회리 중리 송치리 각곡리를 합쳐 송치리와 성곡리의 머리글자를 따서 송성리라 하였으며,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가 되었다. 송치리松峙里는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모두 전의현 남면의 행정동리로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송성리의 위치가 전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5리의 거리에 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가 91호, 인구는 남자 167명, 여자 216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남면에 송치리가 수록되어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전의군 남면에 성곡리城谷里 하수회리下水回里 상수회리上水回里 중리中里 송치리松峙里 각곡리角谷里가 모두 보인다.

조사대상 예안이씨 동고파, 예안이씨 사당 충정사, 강릉최씨, 연안김씨 부원군파, 강릉김씨

송성리는 3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송성1리는 금이산과 까치산이 1반을 감싸고 있고, 도로를 건너 1반의 맞은편에 위치한 2반을 작성산이 뒤편에서 감싸고 2반 앞으로 물이 휘돌아 가는 듯이 냇가가 흐르는 아늑한 경치의 마을이다. 송성1리의 1반은 물이 돈다는 의미의 수회마을이라는 지명이 사

송성리 마을모습

용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친숙한 무드리(수회)라는 지명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물이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강바닥까지 보였다 하여 물도래, 무도리라 부르다가 무드리라 부르게 되었다. 이 지명이 한자로 변하게 되면서 물이 돈다는 의미의 수회水回, 수회리水回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2반은 요골과 각골 2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각골[각곡]은 무드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뿔처럼 생겼다고 한다. 요골은 수회마을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곳인데 각곡과는 군사도로로 구분되어 자리하고 있다.

송성2리는 마을 앞으로 조천이 흐르고 마을 뒤편은 이성산이 감싸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로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감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송성2리의 앞을 흐르는 천은 조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송성2리 주민들은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곡[잿말, 성곡리]은 작성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송성3리도 전형적으로 배산임수형의 마을이다. 솔티[송티동]는 솔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자기소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는 소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의미의 한자지명인 솔치라고 불리웠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쉬운 발음인 솔티마을로 불려져 왔다. 중말[중리]은 무드리와 솔티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송성리 예안이씨 동고파

송성 3리 송치에는 예안이씨 동고파가 거주하고 있다. 예안이씨의 시조는 전의 이씨의 시조인 이도李棹의 9세손 이혼李混(1252~?)으로 고려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지내고 예안백禮安伯에 봉해졌다. 이혼의 손자 이익李翊이 보문각제학普文閣提學을 지내고 예안군禮安君에 봉해지면서 전의이씨에서 분관하여 본관을 예안으로 삼았다. 예안이씨 동고파의

예안이씨 후손과 그분의 정원

파조는 좌의정를 지낸 이명李蓂(1496~1572)이다. 동고東皐는 이명의 호이다.

전동면 송성3리 예안이씨 동고파 입향조는 이명의 증손자인 이영길李營吉(1599~1673)이다. 이영길은 이성호李成虎와 현감 조덕년趙德年의 딸인 양주조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후에 참판으로 증직되었다. 생존시에 벼슬을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안이씨 동고파 족보

족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영길 선대의 묘소는 양주 각심사에 위치한다. 이곳은 현재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각심사로 성북역에서 조금 들어가는 곳에 있다. 동고파의 파조인 이명의 묘소도 이곳에 위치하며, 1983년에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영길과 그의 아들 손자의 묘소는 전의면 영당리 마느실에 있다. 따라서 이영길이 이 지역 입향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당리는 1995년에 전동면에서 전의면으로 이속된 마을이다. 영당리의 묘소는 1991년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모두 송성리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송성리에는 이영길의 증손자 이암李黯의 묘소부터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300여년 이전부터 송성리에 예안이씨 동고파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예전의 조사에서는 이영길의 입향사유에 대해서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살던 한양 소용동을 떠나 이곳 송성리로 입향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에서 후손들은 이영길의 입향사유는 전해들은 바가 없어 잘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영길은 제보자의 14대조이다.

중말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이 있는데, 이영길의 묘소가 이 구릉의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묘역은 새 비석과

예안이씨 동고파 송성리 입향조 이영길의 묘

충정사 외삼문

충정사 내삼문

호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양 옆의 무인석만 조선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묘비는 1957년에 세운 것이다.

송성리 예안이씨 사당 충정사

송성리에는 예안이씨 동고파의 파조 이명의 사당인 '충정사'가 있다. 충정사忠貞祠는 중말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림지역의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38호로 지정되었다. 충정사는 예안이씨 동고파의 파조인 이명李蓂(1496~1572)을 배향한 사우이다. 이명의 호는 동고東皐이며, 중종, 명종조의 문신으로 당시 권신인 이기를 탄핵하였고, 을사사화 때 피화자의 신원을 주장한 인물이다. 70세의 나이로 사직을 청하여 궤장을 하사받았고, 1551년(명종 6) 청백리에 녹

옥천전씨 유허비

충정사 측면에서 본 사당과 내삼문

선되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충정사는 후손들의 주도로 1902년에 건립하여 동고파 시조 이명을 배향하게 되었고, 1985년에 한차례 중건을 마쳤다. 충정사의 건너편으로 이상은의 처 효열부 옥천전씨의 유허비가 있다.

송성1리 강릉최씨

송성1리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강릉최씨였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어떠한 연유로 마을에 터를 잡게 되었는지는 기록도 없고 주민들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강릉최씨가 먼저 마을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뒤이어 정씨들도 마을에 입향하였다고 한다. 현재 강릉최씨는 6가구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정씨는 5가구가 마을의 일원으

로 살고 있다.

송성3리 연안김씨 부원군파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송성3리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연안김씨이고, 다음으로 예안이씨와 거창신씨, 강릉김씨가 차례로 들어와 터를 잡았다고 한다. 연안김씨의 입향조는 19대조 김개신으로 부원군파이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사화를 피해 낙향하면서 시종 한명을 데리고 송성3리의 작은 산막실에 집을 짓고 살면서 터를 잡게 되었다고 전한다. 전동면에서 연안김씨가 터를 잡고 산 곳은 송성3리가 유일한데, 현재도 연안김씨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작은 산막실에서는 밭을 갈다가 기와장이 나오는 일도 있다고 한다. 현재 마을에는 연안김씨 3가구가 살고 있다. 연안김씨는 매봉재에 선조의 묘를 썼는데 현재도 통훈대부, 가선대부를 지냈던 윗대 산소 6기가 보존되어 있다. 다만 매봉재는 매의 형국을 띠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매가 날라가 묘를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현재는 이곳에 묘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안김씨의 시향은 매년 10월 보름에 매봉재에서 지내고 있다.

송성3리 강릉김씨

강릉김씨는 1900년대 초에 송성리 마을로 들어왔다. 현재 강릉김씨는 3대째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연기군 서면에 살고 있던 친척의 영향으로 송성3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마을에 강릉김씨가 7가구 정도 살고 있으나, 1960년대에는 10가구 이상이 살았을 정도로 많았다. 전동면과 이웃하고 있는 서면의 쌍류와 청라마을은 강릉김씨가 150가구나 살 정도로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전동면 송정리

조사대상 순천박씨, 정선박씨 제학공파, 양주조씨, 조계원 묘소와 신도비, 독송정 터[址]

송정리松亭里는 1914년에 전의군 남면 동곡리 사정리 신대리 상송동 대중송동이 합쳐져 송동과 사정의 이름을 따서 송정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상송동리上松洞里는 『여지도서』 전의현 남면에도 보인다. 전의현 치소의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의 거리에 있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는 52호, 인구는 남자 94명, 여자 124명이었다. 그러나 『호구총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전의군 남면에 동곡리銅谷里 사정리沙亭里 신대리新垈里 상송동上松洞 대중송동大中松洞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정리의 지명에 대해서 유래를 살펴보면, 구리골[동곡, 동곡동]은 옛날에 구리가 많이 났던 마을이라 하며, 사장골[사장동, 사정리]은 고려 때 사기점이 있었던 마을, 상소골[상송동, 상송곡]은 송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송곡리 소골 위쪽이 되며, 큰중소골[대중송동, 대중송곡, 흔텃골]은 상소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는 중소골보다 컸던 마을인데, 점점 쇠퇴하여 흔텃골이라고도 하였다. 새터[신대]는 상소골 남서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이 외에 독송

송정리 상소골 모습

정터는 상소골 앞 냇가에 있던 독송정의 터로, 숙종 때 좌의정을 지낸 조사석趙師錫이 만년에 그 선영을 따라 이 곳에 은거하면서 정자를 짓고 놀았다고 한다. 일설에는 송정의 지명유래가 조사석이 솔밭부근에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다고 하여 송정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현재의 송정리는 1990년대 초반에 1리와 2리로 나뉘었다. 송정1리는 2개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반은 구리골과 사장골, 2반은 안터와 새터가 포함된다. 북쪽으로는 매봉재가, 남쪽으로는 오봉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줄기가 마을을 양쪽으로 감싸고 있으며, 집너머들, 양지들, 늠앞들 등의 지명이 설명하듯 넓은 들이 펼쳐진 마을로 구리골 저수지에서 발원한 물이 마을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송정리 순천박씨

전의면 관정리 순천박씨 입향조인 박안생에게는 슬하에 4남이 있었다. 박중림도 외가가 있는 관정리 학당에서 탄생하여 박동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중림은 전의면 관정리 부근을 맏형 박맹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전의 남쪽 쇳골(金谷, 전동면 송성리 증송동)로 이사하여 그 부근에 부모 산소를 마련하였던 듯하다.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이 세종 21년(1439)에 사직을 청하면서 한 상언에서, '지금 아비가 상을 당하여 전의현에 여막을 짓고 있고, 신의 어미도 따라가 있는데 또 병이 있사오니…'라고 하였으며, 세종 28년(1446)의 실록 기록에는 집현전 교리를 지내고 있는 박팽년이 아버지 박중림의 무죄를 상서하면서, '신의 아버지는 갑자년(1444)에 부친상을 당하여 전의현 남촌南村에서 여묘廬墓를 살았는데…' 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박중림은 그 부친 박안생과 김휴의 딸인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시묘살이를 전의 남촌에서 하였다.

또한 박선생유고의 〈아우에게 주는 시〉의 머리글에, '아버지께서 전의현 읍치 남쪽 금곡에서 시묘를 사시니 아우 3인이 쫓아가서 수업을 받았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현재 상송동과 중송동(현재의 송정리 상소골) 마을의 경계 지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박중림의 묘비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린 것으로 방형의 화강석좌 위에 비신을 올렸다. 일설에는 이 묘로 인하여 박팽년에게 사육신의 참화가 왔다는 풍수적 소견이 있기도 하다.

송정리 정선박씨 제학공파

송정리에 400여년전부터 살았다는 정선박씨 제학공파는 '사장골 박가'라고도 불릴만큼 송정리에서는 터주대감이다.

정선박씨 족보에 의하면, 중조中祖인 박도朴塗(1335~1428)는 고려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직제학에 이르렀는데,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와 동년 동월 동일 동시에 태어났다고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으며, 태조가 즉위 직후 정흥군旌興君에 봉했다고 한다. 그의 호는 화은花隱이다.

정선박씨는 인근에서 일명 '사장굴 박가'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본래 진천 내수에 많이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400여년 전쯤 보덕리로 이거하면서 연기에 처음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연기에 입향한 인물이 박민헌朴敏憲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연기에 입향하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족보의 묘소 위치를 살펴보면,

정선박씨 세보

송정리 정선박씨 선산 상소골 맞은편에 있다.

중조인 박도부터 6세손 박제朴霽까지는 진천에 있는 반면, 7세손 박홍간朴弘衎(1585~1634)은 전의 심천, 박홍간의 배위인 경주김씨는 전의 상사정 괴목곡槐木谷에 위치하며, 이후의 후손들 묘소도 심천, 기곡基谷, 하사정 등에 있다. 또한 혼인도 보성오씨, 전의이씨, 단양우씨, 평산신씨 등과 하고 있다. 따라서 박민헌의 고조인 박홍간 시기에 이미 진천에서 전의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기는 400여년전인 임란 전후로 추측된다.

11세손 박민헌으로부터 계자 박행근, 손자 박명희의 묘소 등이 하사정동에 위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송정리로 이주하여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정리로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온한 마을로 넓은 영토가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은 환경 때문에 이거한 것이 아닌가 후손들은 추측하고 있다. 그 후 후손들이 점점 퍼져 나가며 송정리 일대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송정리 양주조씨

양주조씨와 송정리의 인연은 조계원에 의해서 시작된다.

조계원은 1616년(광해군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시종하였고, 충청도관찰사 예조참의 동부승지 강화유수 도승지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로 파천하는 인조를 호위하여 공주에 머물기도 하였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조계원이 1674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지금의 송정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송정리의 자리가 좋아서 그곳을 눈여겨 보았고, 첫째 아들인 조진석이 일찍 졸함에 따라 미리 봐 두었던 상소골에 아들의 묘를 썼다고 한다. 이후 조계원이 1670년에 졸하면서 아들 위에 묘를 썼고 후대 자손들이 터를 잡고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다.

양주조씨 묘역에서 바라본 마을모습

조계원은 양조조씨 충정공파의 중시조로 7형제를 두었는데 숙종 정조 시대에 걸쳐 그 세력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넷째 아들 조사석은 선영을 따라 송정리에 내려와서 정자를 짓고 살기도 하였다. 7형제 중 둘째 조구석, 셋째 조희석, 넷째 조사석, 다섯째 조가석 등 4형제의 손이 번창하였다. 숙종 때에는 노소론으로 갈라져 조희석의 후손은 노론, 조사석과 조가석의 후손은 소론으로 갈라져 집안끼리 당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송정리 조계원 묘소와 신도비

전동면 송정리 상소골 마을의 뒷편 야산에 위치한다. 신도비神道碑는 묘역의 중하단부에 남향으로 세워져 있다.

약천藥泉 조계원趙啓遠(1592~1670)은 병자호란 때 군량을 보급하고 심양에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를 보좌한 인물이다. 본관은 양주陽州, 자는 자장子長, 호는 약천藥泉이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존성趙存性과 이진충李蓋忠의 딸 용인이씨龍仁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에게 수학하며 뛰어난 학문의 경지를 보였다. 그는 장성하여 신흠申欽의 딸

양주조씨 조계원 신도비와 비각

과 혼인하였고, 슬하에는 모두 7남 4녀를 두었다. 1616년(광해군 8)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인조반정시에는 의금부 도사로 재직하였으며,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나자 공주로 파천하는 인조를 호위하여 공주에 머물기도 하였다. 1628년(인조 6)에는 별시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1631년(인조 9)에는 사간원 정언을 거쳐 형조 좌랑이 되었다가 1636년(인조 14)에 정랑正郞으로 천거되었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김자점金自點을 도와 군량보급에 노력하였으며 호란 이후 사헌부 장령을 거쳐 춘추관 수찬이 되었는데 당시 김상헌金尙憲이 무고로 곤경에 빠지자 상소를 올려 구원하기도 하였다. 1641년(인조 19)에는 볼모로 심양瀋陽에 갔던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청淸의 요구로 명明의 금주錦州 공격에 참가하게 되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輔德으로 소현세자를 시종하였고 귀국 후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가자加資를 받았다. 이어 수원부사, 충청도관찰사, 예조참의, 동부승지, 강화유수, 도승지,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4년(효종 5)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정사 구인후와 청나라에 다녀 왔으며 그후 경기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를 지냈다. 함경도관찰시로 있던 1659년 대기근이 발생하여 도민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남지방에 진휼賑恤의 긴박성을 호소하여 식량을 급히 보내오게 조처하는 등 구휼에 힘쓰기도 하였다. 1662년(현종 3) 형조판서를 지내다 노령으로 사직하고 고향인 보령(현재는 대천시 남곡동)으로 내려가 말년을 마쳤다. 사후 1671년(현종 12) 장남長男 조진석趙晋錫이 원종공신의 훈록을 받음에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었고 이어 1676년(숙종 2)에 다섯째 아들인 조가석趙嘉錫이 등과하여 영의정領議政에 가증되었으며, 1685년(숙종 11)에는 충정忠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조계원의 묘소에는 중앙에 묘비(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判書諡忠靖趙公啓遠之墓 贈貞敬夫人平山申氏祔左)가 세워져 있다. 이 묘비의 음기陰記는 현암玄岩 박세채朴世采가 짓고 넷째아들 조사석이 쓴 것으로 건립년대가 명확하지 않다. 추측컨

↑ 양주조씨 조계원 묘
← 양주조씨 조계원 묘비
↓ 송정리 양주조씨 조계원 묘소 앞에서 후손과 함께 입향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대 조계원의 관직이 '증 좌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그가 죽은 1670년에서 영의정으로 증직되기 이전인 1676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1685년에 받은 충정이란 시호가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더 늦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묘소의 앞 좌우에는 2개의 문인상과 4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다.

조계원 신도비는 액면이 "贈領議政忠靖趙公神道碑"로 되어 있으며, 복련이 조각된 화강석재의 방형대좌 위에 비신(107×208×42cm)을 세우고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조사석趙師錫이 서書하였으며, 조태기趙泰期가 두전頭篆을 썼다.

송정리 독송정 터[址]

송정리 상소골 마을회관 우측에는 숙종때 좌의정을 지낸 조사석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선산이 있는 상송동에서 거처하면서 정자를 짓고 지내던 곳이 전해진다. 독송정의 모습은 조선중기의 고지도에서 확인이 된다. 대략적인 위치는 오봉산 북쪽의 기슭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소골 마을 야산에는 조사석의 아버지인 조계원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충청남도읍지에는 현의 남쪽 20리 상송동 냇가에 있다. 고 조사석이 만년에 물러나 하나의 정자를 짓고 소요하였다. 위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으므로 이름을 '독송정獨松亭'이라 지었고, 지금도 유지가 있다고 하였다.

조사석趙師錫(1632~169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공거公擧, 호는 만회晩悔 또는 조만휴趙晩休・향산香山・나계蘿溪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조계원趙啓遠이고, 어머니는 영의정 신흠申欽의 딸이며, 조태구趙泰耉의 아버지이다.

1660년(현종 1) 진사가 되고, 1662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의

관직과 주서 등을 거쳤다. 1666년 사관史官인 검열이 되고, 이어 봉교・겸설서로 승진하였다. 사관으로 있을 때인 1667년 왕이 지난해에 정태화鄭太和・홍명하洪命夏・허적許積을 탄핵한 이숙李翻・박증휘朴增煇 등 7명의 간관을 유배보내면서 사관들에게 이를 사초史草에 기록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나, 왕의 거둥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하고 이를 사초에 기록하였다. 이 일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하였으나, 파직의 왕명이 곧 철회됨으로써 복직되었다.

그뒤 전적・정언・사서・지평 등을 거쳐 1672년말에 접위관接慰官이 되어 동래에서 왜인을 접대하였다. 그뒤 부교리・헌납・이조정랑 등을 거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였다.

1675년(숙종 1)에 수원부사를 거쳐 이후 황해도관찰사・예조참의・승지・강원도관찰사・충청도수사・경기도관찰사・이조참판 겸 수어사守禦使・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고, 1680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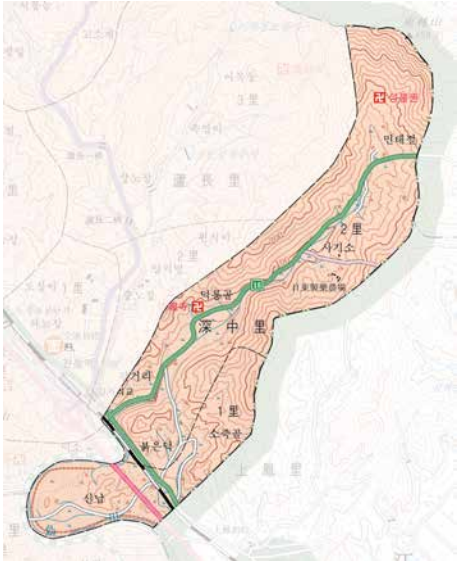
이어 대사헌・호조판서・강화유수・병조판서・판의금부사・우참찬・좌참찬・이조판서 등을 거쳐 1687년에 우의정이 되었다. 그 사이 1683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688년 좌의정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의 손자인 동평군東平君 항杭의 횡포를 논하다가 처벌된 박세채朴世采・남구만南九萬 등을 변호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다음해 판돈령부사가 되었고, 이어 영돈령부사가 되었으나, 1691년 전해에 있었던 왕세자책봉하례에 참석하지 않은 죄로 고성固城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죽은 뒤인 1694년 갑술환국으로 복관되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전동면 심중리



조사대상 청주한씨 송재공파, 경주김씨 계림군파

심중리深中里는 1914년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일하면西江外一下面의 심남리 심서리 조광동 갈거리 태고리 미원동彌院洞 상심동(일부) 하심동(일부)이 합쳐져 충청북도 청주군 강외면 심중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충청도 청주목 서강외일면西江外一面에 심천리深川里가 청주목 치소의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50리의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이 심천리가 심중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심천리의 호구수는 편호 52호에 인구는 남자 73명, 여자 59명이었다. 『호구총수』 충청도 청주목 서강외일면에서는 심천중리深川中里 심천남리深川南里 심천서리深川西里 심천북리深川北里 등이 확인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일하면에 상심동上深洞 하심동下深洞 심남리深南里 갈거리葛巨里 조광동早光洞 심서리深西里 태고동太古洞 등의 지명이 보인다. 충청북도에 있던 심중리는 1995년 3월 1일자로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로 행정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중리 마을모습

깊으내와 청벽

깊으내를 가로지르는 국도 1호선 다리　　윗깊으내를 바라보고 물이 윗깊으내로 흐르고 있다.

심중리는 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1리와 2리의 사이에는 동림산에서 뻗어내린 긴 산줄기가 남주하고 있어 두 마을 간의 접근성은 좋지 않다. 남쪽이 1리, 북쪽이 2리이다.

심중1리는 소죽골(1반), 붉은덕(2반), 아랫지프내(3반, 아래깊은내) 등 3개의 자연마을로 나뉘어 있다. 아랫지프내를 끼고 도는 조천천의 물길이 마을을 휘돌아 흐르는데, 조천천이 이곳에 와서 심천이라 불리웠고 우리말로 깊은내가 된다. 이 물길의 동서방향을 나누어 상심천, 하심천이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상심천을 지프내, 하심천을 아랫지프내라 한다. 지프내는 보

덕리에 속하는 땅이고, 아랫지프내는 심중리 3반에 해당한다. 지프내의 앞에 있는 산을 너덜봉이라 하는데, 이 봉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즉 행주형의 명당형국이라 너른 바다 위의 봉우리란 뜻으로 너덜봉이라 한다. 소죽골은 덕룡굴 남쪽에 있는 마을로 뒷 산형이 소가 죽을 먹는 형국이라 하며, 불근덕[단에]은 갈거리 동남쪽에 있는 고개인 불근덕 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뒷산의 흙이 붉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심중2리는 동림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산줄기 사이의 길고 좁은 골짜기에 위치한다. 이 골짜기는 북쪽의 민태절골에서 남쪽 갈거리까지 4km가 넘는다. 예로부터 이곳을 10리길이라 불렀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동림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갈거리까지 길게 흐르는데 주민들은 이를 덕용천이라 부른다.

10리길 골짜기에 자연마을은 세군데에 형성되어 있다. 가장 북쪽에는 사기소, 중간쯤에 가장 큰 마을인 덕용동, 남쪽에 위치한 덕용천 하류의 갈거리가 그것이다. 전에는 사기소보다 더 북쪽에 민태절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몇 가구만 남아 있다. 미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이 민태절이라 불리었고, 절이 폐사되면서 절이름이 마을이름으로 된 것이다.

심중리 청주한씨 송재공파

심중리 청주한씨 송재공파는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올랐던 한란韓蘭(853~913)을 시조로 한다. 송재공은 17세손 문정공文貞公 한충韓忠(1486~1521)으로 송재松齋는 호이다. 심중리 조광동 청주한씨 송재공파의 입향조는 한용희韓用羲(1833~1915)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용희 일가가 입향하기 전의 심중리에는 여흥민씨와 강릉김씨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용희를 비롯한 청주한씨의 묘는 전동면 심중리 66-1에 선산을 이루고 있으며, 재실이 있다. 원래 비석산은 지프내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청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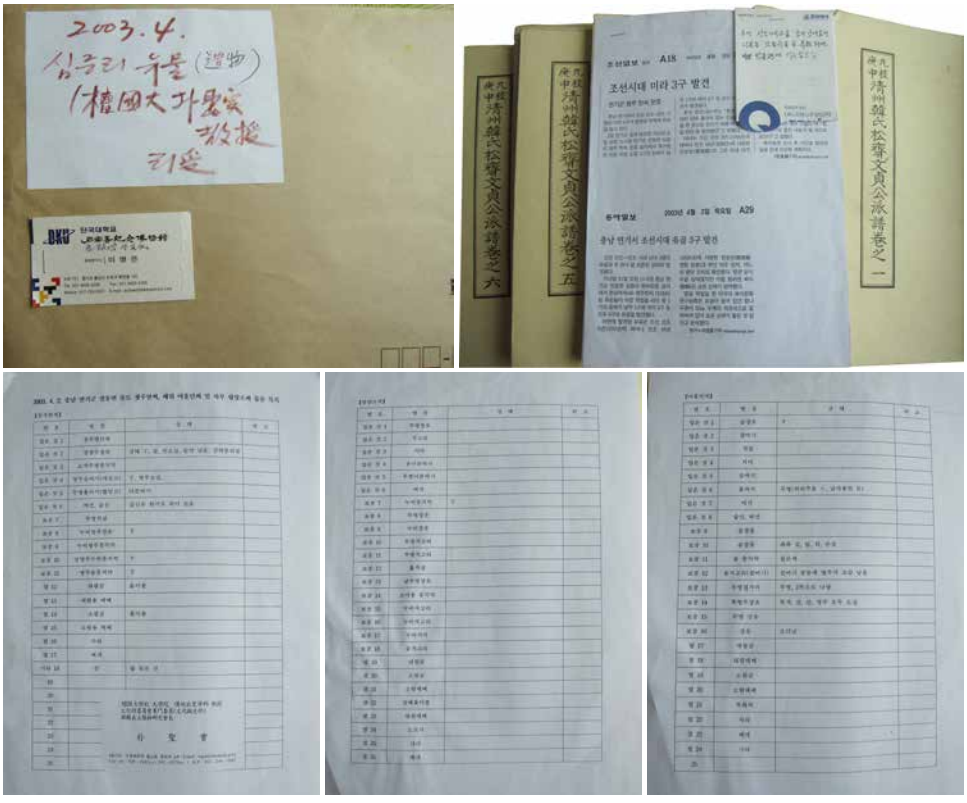
씨의 선산이다. 비석이 많아 비석산이라고 불리웠다. 비석이란 것은 묘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지난 2003년 전동면 심중리 선산에 납골묘를 세우기 위해 이장하던 중, 조선 선조 때 영릉 참봉英陵參奉을 지낸 한준민韓俊敏(1570~1638)과 그의 부인 여주민씨, 그리고 며느리 평양조씨의 유골이 미이라의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때 함께 묻었던 조선시대의 많은 복식이 출토되었다. 묘의 내부는 물기가 가득했고 매우 두꺼운 향나무관의 뚜껑을 열자 방금 매장한 듯 신체의 모습으로 생생한 미이라가 있었다고 한다. 한군데는 남녀 합장된 형태이고, 그 하단부의 묘에는 여인의 미이라 한구였다.

上 청주한씨 문중 납골묘
下 심중리 청주한씨 심중리 입향조 한준민의 묘비
원래는 이곳이 한준민의 묘가 있던 곳인데, 여러 조상을 함께 모신 납골묘 앞에 묘비를 세울 수 없다하여 우측면으로 옮겨 세웠다.

청주한씨 세보(구보)

청주한씨 파보

청주한씨 조사모습



청주한씨 문중 유골 및 복식유물 출토관련 서류

당시 발굴에 참여한 단국대 박성실 교수(전통의상학과)는 부부 합장의 형태로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매우 드물다며, 합장묘 연구의 좋은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의류는 조선초기의 의상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으며 단국대에 보존되어 있다.

송재공의 손자인 한우韓宇(1551~1572?, 1632?)의 묘소부터 심중리에 있으며 [족보의 기록은 청주군 강외면 심중리 심천 내청룡 끝], 증손자인 한준민의 미이라 발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주한씨는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이미 심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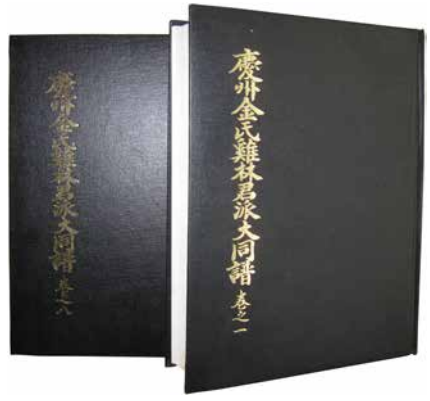
또는 인근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한우의 배위는 전의이씨이다. 현재 청주한씨는 근방의 전의면 동교리, 조치원 번암리, 전동면 보덕리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심중리 경주김씨 계림군파

심중리 덕용골 일대는 1900년대 초반까지 경주김씨 계림군파 자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다. 계림군파의 파조 김균金稛(1341~1398)은 조선 개국 후 개국공신 3등에 해당하는 (추충)익대개국공신(推忠)翊戴開國功臣에 책록되어 중추원부사가 되고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다.

덕용골에 있는 느티나무

경주김씨는 전동면 일대에 번성했던 성씨로 몇 개의 파가 별개로 입향하였다. 그 중 심중리 경주김씨 계림군파는 전의 운주산 아래의 학당(현재의 미곡리 학당마을)에 묘가 있었던 김춘무金春茂(1595~1676)의 후손이다. 김춘무의 선대는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 세거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전의에 묘를 두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일화가 없다. 다만 김춘무의 처는 안동권씨 권태원의 딸로 당시 노장리에서 세거했던 안동권씨가의 인물이 아닌가 추측된다.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동보

김춘무의 외아들 김석근(1624~1691)이 심중리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처가 바로 파평윤씨이고, 파평윤씨는 심중2리에 전설로만 전해지는 성씨이다. 덕용동이 원래는 파평윤씨 집성촌이었는데, 윤씨 집안에서 터를 내놓고 떠났다는 것이다. 김석근의 아들들의 묘는 전부 덕용동에 있고 그 후 대대로 덕용동에 거주하여 오늘날 집성촌을 이루었다. 현대에 들어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성받이 마을이 되었으나, 여전히 경주김씨의 비율이 높다.

전동면 청남리

조사대상 경주김씨 계림군파, 김승로 묘소(墓所)와 묘갈(墓碣), 충신(忠臣) 변응정(邊應井) 사당(祠堂)

청람리青藍里는 1914년 전의군 남면의 동막동, 상남포리, 하남포리, 청산리를 병합하여 푸른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청산과 쪽빛 같은 푸른 뻘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남포의 이름을 따서 청람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남면에 남포리藍浦里가 있다. 위치는 전의현 치소의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의 거리이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는 67호, 인구는 남자 120명, 여자 167명이었다.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남면에 남포리가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전의군 남면에 동막동東幕洞 상남포리上藍浦里 하남포리下藍浦里 청산리青山里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청람리는 6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청람교 서쪽의 1반 청미마을, 동쪽의 바드남말, 큰말, 도람말, 양지말, 동막골 등이 그것이다. 영화 '웰컴투동막골'을 연상케 하는 동막골[동막]은 버드나무말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움집을 짓고

동막골 마을모습

동막골 할머니들의 외출 곧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다.

살던 것이 점점 큰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청미[청산]는 증미 밑에 있는 마을이라 증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청미, 또는 청산靑山이 되었다고 한다. 청미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 쪽개[조캐, 남포]로, 앞 냇가에 쪽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 쪽개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위조캐[상남포]이고,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조캐[下藍浦, 버드나무맬]로 아래조캐는 냇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버드나무말이라고도 하였다. 큰

청람리 마을 상여집 오랜세월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있는 장소이다.

말은 조캐의 큰 마을이고, 양지말은 버드나무말 산등성이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며, 도라말은 큰 말 옆 산을 돌아가서 있는 마을이다.

마을 전체가 산으로 빙 둘러져 있어 산이 마을을 안고 보호하는 듯한 형세를 갖고 있다. 조천이 흘러 농업용수로 부족함이 없고, 1번국도와 철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살기 좋은 마을이다.

변응정 사당 충장사 올라 가는길

새마을 지도자 김항식
공적비

청남리 경주김씨 계림군파

경주김씨 계림군파의 파조 계림군鷄林君은 김균金稛(1341~1398)으로 조선 개국 뒤 익대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계림군에 봉해지고, 중추원부사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전동면 청남리에 처음 입향한 경주김씨 계림군파 입향조는 김철원金喆元(1500년대 초반 인물)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원이 전동면 청남리로 입향하게 된 계기는 김철원의 백조부인 김천령金千齡(1469~1503)이 연산군 때 갑자사화甲子士禍(1504년)로 부관참시 됨에 따라 그 일가족이 각처로 분산되었는데, 바로 이를 계기로 김철원은 조부 김백령金百齡을 따라 전동면 청남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족보를 통해 확인해 보면 김철원의 묘소와 부친의 묘소가 전동면 청남리 조캐너머에 있으며, 여기에서 계림군 7세손 철원파(동막문중)가 시작된다. 김철원의 부친은 김백령의 3형제 가운데 둘째아들이며, 김백령 묘소는 전동면에 있지 않고, 김철원 부친의 이름은 실전되었기에 문중에서는 '철원파'라고 일컫는다.

김승로 묘소墓所와 묘갈墓碣

김승로金承露의 묘소墓所와 묘갈墓碣은 청남리 남포마을의 서향사면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김승로金承露(1359~1438)는 강릉인江陵人으로 자字는 천뢰天賚, 호號는 송오松塢. 개성開城 종제宗第에서 고려때 왜구토벌에 공훈이 있는 충절공忠節公 김사혁金斯革과 군기시사軍器寺事 김영리金英利의 딸 광산김씨光山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후에 안유安裕의 증손녀曾孫女인 순흥안씨順興安氏와 혼인하였다. 일찍이 2형제와 함께 태학太學에서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게 수학하였다. 이후 벼슬에 나아가서는 헌사憲司의 형부刑部와 4개의 주현州縣에서 벼슬을 지내었다. 그러다 인주仁州의 지주사知州事로 있을 당시

김승로 묘소와 묘갈

고려조 기운이 쇠함을 보고 사간司諫 김휴金休, 처사處士 최호崔浩,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장령掌令 서견徐甄과 함께 송악강사松岳講舍에서 강론講論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고려가 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강론을 하던 동지들과 함께 조복朝服을 찢어 동문 밖에 걸고서 서로 작별의 악수를 나누고는 통곡하며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조선 태종은 그 청절淸節을 가상히 여겨서 대사헌大司憲의 직을 내리고 조정으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그후 1438년(세종 20)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으며 1439년(세종 21)에 우의정右議政에 증직贈職되었다. 시호諡號는 충의忠義이며 두문동杜門洞 72현七十二賢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김승로가 죽은 뒤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신을 운반하던 도중 일진광풍이 불어서 공포功布가 청람리 뒷산으로

김승로 묘소 문인석

김승로 신도비

날아가 떨어졌다고 한다. 이때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이는 분명히 하늘이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바로 지금의 묘소 위치라 전해진다.

김승로의 묘소는 장대한 석재를 이용하여 봉토의 하단부에 방형의 호석을 두른 전형적인 예장묘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거기 왕릉하나 있슈'라는 마을 노인의 표현에 걸맞는 규모이다.

묘 앞에는 우의정에 증직되었던 1439년(세종 21)에 세워진 구묘갈舊墓碣과 1986년 후손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묘갈新墓碣이 나란히 서있다. 그리고 묘갈 바로 앞 중앙에는 오래된 석등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으며, 조금 더 앞으로는 2개의 문신상과 새로이 만들어진 2개의 망주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1961년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구묘갈은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만든 옥개형 귀부(61×20×30cm)와 비신(44×90×20c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438년(세종 20)에 세워졌다는 기록 외에 비가 심하게 마모되어 알아 볼 수 없다. 1986년에 세워진 신묘갈

청람리 김승로 신도비 조사중

은 비신(42×150×18cm)과 옥개형의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비 앞면에는 비가 세워진 연대와 연혁에서 보인 김승로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세겨져 있으며 부인 순흥안씨順興安氏와 함께 묻혀 있음이 적혀 있다.

1961년 세워진 신도비는 화강암 재질의 장방형 대좌에 오석으로 비신(67×36×115cm)을 세우고 화강암 석재의 귀부(117×84×35cm)를 올린 것으로 17대손 김진화가 찬撰하고 최영헌이 서書했다. 비 앞면에는 충의 강릉인 김승로의 비(朝奉大夫知仁州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春秋館成均館觀象監事 諡忠義江陵金公承露之碑 配 贈貞敬夫人順興安氏)를 나타내는 글이 새겨져 있으며 전면에는 그의 행적이 적혀 있다.

충신忠臣 변응정邊應井 사당祠堂

충신 변응정 사당은 청남리 큰말에 위치한다. 이곳은 원주변씨가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곳이지만, 현재 종가는 오송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변응정邊應井(1557~1592)의 본관은 원주이고 자字는 문숙文淑이다. 변윤중邊胤中의 손자이고 공조좌랑을 지낸 변열邊悅의 아들로 어머니는 이혼李昕의 딸 철성이씨鐵城李氏이다. 일찍이 문예에 능숙하였으나 문과에 여러번 실패하여 1585년(선조 18) 무과에 응시, 급제하였다. 월송진 만호와 선전관 등을 거쳤으며 1592년에는 전라도 해남현감에 이르렀다. 이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관내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한 뒤, 금산에서 전투를 하던 조헌과 합류하기 위하여 행군하였으나 차질이 생겨 조헌이 전사한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제군수金堤郡守 정감鄭湛과 함께 싸워 큰 전과를 올리다 적군의 야습을 맞아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 끝내 웅령熊嶺에서 전사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미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임명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전사한 것이다. 이해 12월 성혼成渾의 상소로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증직되었다. 시호諡號는 충장忠壯이다.

임진왜란 때 변응정의 충의에 탄복한 왜적들은 큰 무덤을 만들고는 표지목標識木을 세워 조문하여 이르기를 '조선의 충간이요. 의열의 담력이다[朝鮮國忠肝義膽]'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유성룡柳成龍은 『징비록懲毖錄』에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용맹한 충신들이 모두 웅령에서 전사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전라도 일대가 홀로 온전穩全해서 중흥의 기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만세불사萬世不死'라 칭송 하였다.

한편 변응정은 출전하기에 앞서 구국의 마음으로 죽음을 결심하고는 동생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임금이 욕을 당하였으나 신하로서 죽음이 마땅하다.'라 하였다. 또한 자신이 전사하고 나면 홀로 남으실 노모를 걱정하며 작별의 뜻으로써 입던 옷과 머리카락, 손톱을 함께 보내드리고 죽은

1	2
3	4

1~3 변응정 사당
4 변응정 사당 옛자리

변응정 추모비

뒤 이것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부탁하는 등 전투에 앞서서 그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다. 당시 변응정의 혈서가 원주변씨 종가에 남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당은 이러한 그의 충절을 기리는 유적으로 원주변씨原州邊氏 종가집 뒤편 야산에 1930년대에 건립하였다. 2001년 5월 31일에 연기군 향토유적 34호로 지정되었는데, 퇴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2009년에 보조금을 받아 전면 3칸으로 새로 단장하였다. 한편 금산錦山 종용사從容祠(현재 금성면 의총리에 소재)에도 조헌, 고경명高敬命 등과 함께 제향되어 있다. 변응정의 당기堂記와 축문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만들었으며 행장은 우계牛溪 성혼成渾, 죽천竹泉 김진규金鎭圭, 지재趾齋 민진후閔鎭厚 등 3선생이 지었다.

전의향교 유림들은 1988년 전동면 청남리 산 18-1(속칭 개미고개)에 변응정의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충장공 변응정 추모비는 전면에 "忠壯公 贈資憲大夫 兵曺判書 行通訓大夫 海南縣監 原州 邊公諱應井 追慕碑"라 적혀있고, 화강석재의 방형대좌 위에 귀부상을 놓고 그 위에 오석의 비신을 세웠다. 변응정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다. 묘소는 경기도 미금시 양전동 산 6번지에 있다.

전동면 청송리

청송리青松里는 1914년에 종전의 전의군 동면 대치리 내배일리 외배일리 삼송정리 도청리가 합쳐져 도청과 삼송정의 이름을 따서 청송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도 전의현 동면에 대치리大峙里가 있다. 『여지도서』에는 전의현 치소의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편호는 89호, 인구는 남자 167명, 여자 215명이라고 하였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전의군 동면에 대치리 외배일리外排一里 내배일리內排一里 도청리都靑里 삼송정리三松亭里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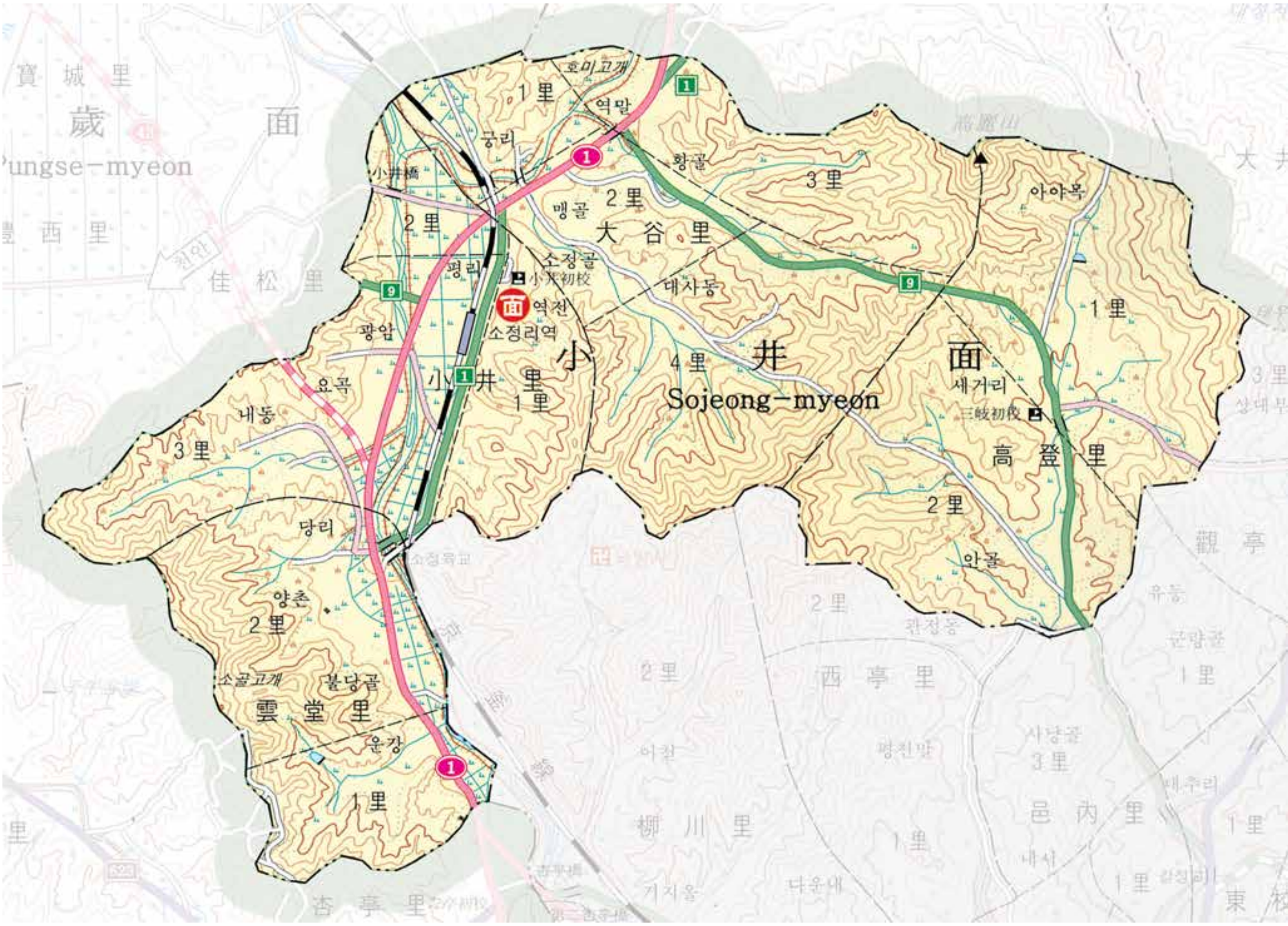
현재 청송리는 2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청송1리는 운주산에서 동남향한 산줄기의 남향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조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도청, 삼송정, 아랫배일, 안배일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배일[배울, 梨谷 · 梨逸]은 운주산 남쪽 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뒷 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배울, 배일 또는 이곡이라 하였는데, 정조 때 학자 권복權復이 살면서 호를 이일이라 하고 또한 마을 입구에 이일동천梨逸洞天이란 비를 세웠다고 한다. 배일 안쪽에 있는 마을이 안배일

청송리 마을모습

[내배일, 내이일]이고, 배일 아래 곧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 아래배일[외배일, 외이일]이다. 삼송정三松亭은 배일 남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 정자 세 주가 있었으며, 삼송정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 도청이[도청리]이다. 전의 이씨와 거창 신씨가 살면서 서로 의좋게 모이는 도회청을 두었으므로 도청都廳이라 하였는데, 일제 때 쉬운 글자를 취하여 도청都靑이 되었다고 한다. 안배일에서 원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었고, 도청의 뒷산에도 백제시대 유물이 흩어져 있다고 한다.

청송2리는 운주산에서 남향하는 산줄기가 마을의 좌우를 감싸고 전방에 조천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마을이다. 산이 높고 계곡이 10리길이라 할 만큼 골이 깊어 오랜 세월 계단식 논을 일군 흔적이 남아 있다. 대재, 안말, 섭장골의 큰 마을이 있다. 대재[대티]는 아랫배일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쪽에 큰 고개가 있다. 대재의 한자 표기가 대치大峙인데, 앞서 거론했듯이 이는『여지도서』『호구총수』에도 수록되어 있는 마을명이다. 일찍이 대치리가 이 골짜기를 대표하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안말은 대재 안쪽에 있는 마을이고, 섭장골은 안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제4장 소정면의 터전과 뿌리



小井面
Sojeong-myeon
小井里
大谷里
高登里
雲堂里
歲面
Pungse-myeon
寶城里
佳松里
西亭里
柳川里
邑內里
觀亭
1 里
2 里
3 里
4 里
호미고개
역말
궁리
황골
맹골
小井橋
평리
소정골
小井初校
역전
소정리역
대사동
광암
요곡
네동
당리
양촌
소골고개
불당골
운강
아야목
새거리
三岐初校
안골

소정면의 터전과 뿌리

소정면小井面은 1995년에 신설된 면이다. 소정면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전의현과 천안군의 경계지역이면서 청주목의 월경지가 있던 곳이다. 조선후기 전의현(군) 북면과 천안군 소동면, 청주목(군) 덕평면의 동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소정면 지역의 조선후기 관련 면리

	여지도서	호구총수	한말
전의 북면	전의현 유점리(鍮店里) 상타우리(上打愚里) 갈정리(葛井里) 거노곡리(居老谷里) [4]	전의현 고등리(高登里) 대부리(大夫里) 갈정리 거노곡리 신대리(新垈里) [5]	전의군 갈정리 한정리 음한곡리 양한곡리 신대리 상노곡리 중노곡리 하노곡리 중대부리 하대부리 고등리 삼기리 아야목리 맹곡리 역리 유동 내동 상대부리 [18]
천안 소동면	천안군 소동면 작본리(作本里) 중리(中里) 이곡리(梨谷里) 남관리(南館里) 두지동리(斗支洞里) 석우리(石隅里) 웅주리(熊走里) 역리(驛里) 대사동리(大寺洞里) 송정리(松亭里) 신기리(新基里) [11]	천안군 소동면 작본리 오리동 용정리 중리 이곡리 남관리 두지동 웅리 나분곡 상정리 역리 궁리 대사동 송정리 [14]	천안군 소동면 오리동 중리 신리 송정리 죽계리 궁리 소정리 용경리 신대리 이곡리 석우리 웅리 소시리 대사동 평리 작본리 남관리 두지동 토정동 대야동 [20]
청주 덕평면	청주목 덕평면 중암리(重巖里) 신리(新里) 당리(堂里) 삼평리(三坪里) [4]	청주목 덕평면 중암리 신리 당리 평리 [4]	전의군 덕평면 당리 광암리 평리 요곡리 운강리 양리 부곡리 주점리 내동 [9]

현재 소정면은 고등리 대곡리 소정리 운당리의 4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4개리는 조선후기까지 주로 고등리는 전의현(군) 북면, 대곡리는 천안군 소동면, 소정리와 운당리는 청주목 덕평면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1914년에 군면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연기군 전의면에 속하게 되었고, 1995년에 소정면의 신설과 함께 별도의 면으로 독립되었다.

소정면 4개리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등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8〉 동면 마을의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1995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고등리		북면 고등리	전의군 북면 고등리 내동 삼기리 아야목리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	소정면 고등리
2	대곡리	천안군 소동면 역리(驛里) 천안군 소동면 대사동리(大寺洞里)	천안군 소동면 역리 궁리 대사동	전의군 북면 역리(일부) 맹곡리 천안군 소동면 대사동 궁리 소정리 대야동 소시리 일부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소정면 대곡리
3	소정리	청주목 덕평면	청주목 덕평면 평리	전의군 덕평면 내동 요곡리 광암리 평리 북면 소정리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소정면 소정리
4	운당리	청주목 덕평면	청주목 덕평면 당리	전의군 덕평면 운강리 부곡리 양리 당리	연기군 전의면 운당리	소정면 운당리

소정면 고등리

조사대상 경주이씨 석탄공파, 강릉김씨 송오공파, 광산김씨 전의파, 김해김씨 횡성공파, 효자 김충열 정려, 광산김씨 상호군파

고등리高登里는 1914년에 종전의 전의군 북면 고등리 내동 삼기리 아야목리가 고등리로 통합되어 연기군 전의면 고등리가 되었다가, 1995년에 소정면이 신설되면서 소정면 고등리로 이관되었다. 『여지도서』에서는 관련지명을 찾을 수 없으나, 『호구총수』에서는 전의현 북면에 고등리가 수록되어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전의군 북면에 고등리高登里 삼기리三岐里 아야목리我也目里 내동內洞이 수록되어 있다.

고등리에서 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고등이고개[고등이재, 高登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한양으로 통하는 삼남대로가 되어 행인이 연락부절하였으며, 고등이재 밑에 있는 마을을 주막이 있어서 고등이주막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고등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 안골[내동]이다. 안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은 마을 앞에 동, 서, 북 세 곳으로 가는 갈랫 길이 있어서 세거리[시거리, 三岐]라고 했다. 아야목은 세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성 아래가 되는데, 고려 홍건적 난리 때, 고려성에서 피란하는데, 먹을 물이 떨어져 견딜 수가 없어서 "아야 목아"하고 울면서 산 밑에 내려와 살았다고

고등리 마을전경

회관앞 모습

전해진다. 고려성에서 발원한 고등이내[高登川]가 서정리를 거쳐 전의읍 앞에서 사기소내와 합하여 조천이 된다.

'고려의 오래된 성[高麗古城]'은 연기팔경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졌다.

고등리 길가에 세워진 조성연도와 연유를 알수없는 조각상

고등리 경주이씨 석탄공파

고등리 경주이씨 석탄공파의 입향조는 이영필李永弼로 아버지는 감찰을 지낸 이근李根이며 어머니는 진천송씨, 부인은 함양여씨이다. 관직으로는 통훈대부로 장판을 지냈다.

이영필이 200여 년 전 어떠한 이유로 고등리 아야목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충북 오창에서 이거했다는 사실만 전해온다. 이영필의 묘는 고등리 아야목에 있다.

고등리 강릉김씨 송오공파

고등2리 강릉김씨江陵金氏 송오공파松塢公派는 전의 관정리로 입향했던 송오공 김승로金承露(1359~1438)를 파조로 한다.

김승로는 고려 말 전의면 관정리에 터를 잡아 세거하였으며(전의면 관정리 참조), 소정면 고등 2리에는 그의 6세손인 김흡金翕이 자리를 잡았다. 김흡의 아버지는 천안군수天安郡守를 지낸 김수례金守禮이며, 어머니는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조윤성曺允成의 딸인 창녕조씨昌寧曺氏이다.

전의면 관정리에 살던 김승로의 후손들은 연기군의 여러 지역으로 분파하는데, 이 중 김흡이 1500년대 말 소정면 고등 2리로 옮겨왔다. 김흡은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부인이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그가 왜 고등 2리 안골로 입향하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김흡의 부인과 같은 성씨인 청주한씨가 고등 2리 안골에 살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가 근처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흡이 소정면 고등 2리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청주한씨淸州韓氏와 방씨方氏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

김흡의 묘소에는 상석이 있으며, 전의면 서정리 지산동에 재실이 있다. 전해오던 고문서는 6·25전쟁 중에 유실되었으며, 유물로 시저匙箸를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김승로의 9세손으로 1665년에 효행으로 명정받은 김충열金忠烈(1585~1668)의 정려가 소정면 고등리 안골에 있다.

고등리 광산김씨 전의파

고등리 광산김씨 입향조는 김남길金南吉(1610~1683)로 알려져 있다. 김남길의 자는 중숙仲淑이고, 묘소는 전의 구리동九里洞(소정면 고등리 산 99-1번지)에 있으며, 배위는 능주구씨와 죽산박씨이다.

광산김씨가 전의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김남길의 할아버지인 김정수金廷秀(1541~1572)이다. 족보에도 김정수가 '처음으로 전의에 살았다[始居全義]'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정수는 진사로 배위는 진천송씨 생원 송항宋沆의 딸이며, 묘는 우수리에 있다. 김남길의 아버지 김온휘金韞輝(1567~1624)는 묘소가 사사리沙士里(현 전의면 신흥리)에 있으며, 배위가 동래정씨(무후)와 원주변씨原州邊氏 군수 변근邊瑾의 딸이다.

광산김씨 전의파 족보

김남길이 어떠한 이유로 소정면 고등 1리 세거리에 입향하게 되었는지는 전해오는 바가 없다. 다만 김남길의 할아버지 이전 선대의 묘소는 연산현(현재의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전의에 살기 시작한 후에 그 자손들이 근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후손의 전언에서도 진사공이 이곳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김남길의 아들 가운데 4남인 김영金楹(1642~)은 수직壽職으로 가선에 오르기도 하였다.

김해김씨 족보

고등리 김해김씨 횡성공파

고등리 김해김씨 횡성공파는 묘소의 위치를 통해 추적해 볼 때, 김녕군의 11세손이며, 횡성공의 고손자인 김진현부터 고등리에 입향하여 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조인 김녕군金寧君 김목경金牧卿은 고려 충혜왕 때 인물로, 과거에 급제하여 중대광김녕군에 봉해졌다고 한다. 횡성공파는 김녕군의 7세손인 김영서金永瑞를 파조로 하는데, 그는 사헌부 감찰을 거쳐 횡성현감을 지냈다. 이후 후손들 묘소의 위치를 추적해 보면, 경기의 장단(8세손), 수원(9세손)을 거쳤으며, 김영서의 손자 김경수金慶壽와 증손자金希春의 묘소는 천안군 목천면 소사곡, 고손자인 김진현金盡賢의 묘소는 전의 아야목 고려성 아래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후 김진현 자손들의 묘소도 아야목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리의 김해김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천안 목천을 거쳐 고등리로 입향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등리 효자 김충열 정려

효자 김충렬金忠烈 정려旌閭는 고등리高登里에서 가장 큰 마을인 안골마을의 동쪽편 낮은 구릉의 남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 정려는 강릉김씨江陵金氏 효자 김충열金忠烈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것이다. 효자 명정은 1665년(현종 6)에 받았다.

효자 김충열(1584~1668)은 본관이 강릉이고, 호는 왕호王壺 또는 운봉雲峰이다. 김충렬은 강릉김씨의 전의현 입향조인 김승로金承露의 9세 손으로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생인 김해수金海壽의 손자이며, 김산두金山斗의 아들이다.

효자 김충렬 정려비

10세의 나이에 이미 어른같이 의젓했던 김충렬은 아버지 김산두가 병으로 고생하자 동생 김신열金信烈과 함께 지성으로 간호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열이 11세, 신열이 9세였을 때 아버지가 30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 후에는 조모와 모친을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이에 현감이 그의 이름을 알고 환곡 때마다 반드시 효자 김충렬이 왔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가 61세 되던 1644년 모친상을 당하자 역시 3년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후 충열의 나이 70세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0년이 되던 날에 충열은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당하여 상례가 미진했음을 애석히 여겨 다시 상복을 입고 시묘살이를 시작하여 3년을 마쳤다.

1666년(현종 7)에 왕이 온양으로 행차했을 때 대사헌 조복양趙復陽의 상언으로 음식물을 하사 받고, 2년 후인 1668년에 죽었다. 이렇듯 뛰어난 그의 효행을 보고 고을 사람들이 조정에 실상을 알리자, 현종조(1660~1674)에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行龍讓衛 부호군副護軍을 증직받고 효자로 명정받아 정려가 건립되었다.

그의 묘는 전의면 탑현리塔峴里에 있다. 이상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다.

김충열의 아들 김백련金百鍊도 역시 효자로 이름이 높아 『전성지』 '효열미몽질'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련은 부모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구해드리고자 60평생을 하루같이 힘썼다. 그의 부친인 충열이 나이 80에 이르고 병세가 위독할 때 의원이 말하기를 소의 양(위)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소의 도살을 엄금하고 있었던 당시였지만 소를 잡아 양만 약으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묻어 버렸다. 이와 같은 일을 두 세번이나 되풀이하였지만 관에서도 그의 효성을 알고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이상李翔이 그의 효성을 높이

칭찬하였고, 편지에 신후윤愼後尹의 제자 중에서 백련의 인물됨이 향약의 규범으로 크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김충렬 정려는 1965년에 최종 중수되고, 1997년에 새로 단청한 것이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초석은 화강석재를 이용한 8각 고주 초석을 세우고, 그 위로 둥근 기둥을 올렸다. 이익공 양식이며,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4면에 홍살을 돌린 정려의 내부에는 효자 김충열에게 명정을 한 현판(孝子 折衝將軍 行龍讓衛副護軍 金忠烈之閭, 191cm×31cm)이 있다. 현판 아래에는 김충렬의 효행에 대해서 기록된 비석(孝子 折衝將軍 行龍讓衛副護軍 金公旌門碑銘 竝書, 비신 46cm×118cm×18cm, 비좌 82cm×57cm×13cm)이 있는데 손孫 김흥도金興道가 서書하고 유상운柳尙運(1636~1707)이 찬했다. 연대는 '숭정기원후 신미'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상운의 생몰년이 1636~1707년임을 비추어 볼 때 1701년(신미년)으로 추정된다.

김충렬의 묘소는 전의면 탑현리에 위치한다. 이상이 찬하고 송준길이 서했다는 묘비가 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없다. 충열의 동생인 김신열의 효자비는 온양에 있다고 한다.

고등리 광산김씨 상호군파

광산김씨 상호군파는 김정수金廷秀(1541~1572)가 처음 전의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김정수는 자가 사언士彦이고, 진사에 입격하였으며, 진천송씨 생원 송항宋沆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또한 묘는 우수리牛首里에 있고, '전의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했다[始居全義]'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의 기록을 통해 묘소 위치를 추적해 보면, 김정수의 아버지 김방윤金芳胤(1518~1550)의 묘소는 논산 연산의 고정리에 있으며, 김정수의 형이며

고등리 광산김씨족보

김방윤의 장자인 김정한金廷翰(1536~1558?)의 묘소도 연산에 있는데 반해, 김정수의 아들 김온휘金韞輝(1567~1624)의 묘소는 사사리沙士里에 있고, 손자인 김남길金南吉의 묘소는 전의 구리동에 있으며, 이후 후손들의 묘소도 사사리, 구리동, 상대부리, 장재동, 삼기리 등 전의 지역에 있다. 따라서 광산김씨 상호군파의 전의 입향조는 김정수임이 입증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그 입향시기는 1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소정면 대곡리

조사대상 밀양박씨 연안공파, 청송심씨 곡산공파, 금구온씨 생원공파, 밀양손씨 소윤공파

대곡리大谷里는 1914년에 종전 전의군 북면의 역리(일부)와 맹곡리, 천안군 소동면의 대사동 궁리 소정리 대야동 소시리(일부)를 합쳐서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로 삼았다가, 1995년 소정면이 신설되면서 소정면 고등리로 이관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천안군 소동면小東面(천안군 치소의 동남쪽에 위치)에 역리와 대사동리가 보인다. 역리驛里는 관으로부터의 거리가 20리이며,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호구수가 호수는 48호, 인구는 남자 78명 여자 80명이었으며, 대사동리大寺洞里는 관으로부터 거리가 20리이고, 호구수는 호수 37호, 인구는 남자 67명 여자 68명이었다. 『호구총수』에는 천안군 소동면에 역리驛里 궁리宮里 대사동大寺洞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여지도서』 천안군 역원조에는 김제역金蹄驛이 소동면에 있다. 위치는 관으로부터 남으로 20리의 거리에 있으며, 말이 15필, 노 45구, 비 12구이고, 성환역도에 속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 김제역의 위치는 곧 역리에 해당한다고 추측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천안군 소동면에 궁리宮里 소정리

1	2
3	4
5	6

1 한절골 입구 표석　　2 한절골 삼층석탑
3~6 한절골 마을 풍경

대곡리 맹골

대곡리 맹골표석

小井里 소시리所柴里 대사동大寺洞 대야동大也洞이 소속되어 있고, 전의군 북면에 맹곡리孟谷里와 역리驛里가 소속되어 있다. 18세기까지 천안군 소동면에 속해 있던 역리가 조선말에는 언제인가 전의군 북면으로 이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대곡리는 4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대곡1리 궁리마을은 나지막한 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으며 대곡천이 마을을 크게 한번 휘감고 돌아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농촌마을이다. 마을 앞을 지나는 대곡천은 천안 도리티 고개와 고려산에서 발원하여 궁리 앞에서 크게 휘감아 돌아 삽교천과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마을 앞으로 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는 궁리, 관터골 등 궁宮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궁宮'자라는 지명은 예부터 임금이 행차하거나 궁성이 있는 곳에 붙여지는 것으로 마을의 역사가 궁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궁리마을은 소정면에서 가장 높고 영험한 산인 고려산이 정면으로 보이는데, 고려산은 백제 때부터 북방을 막는 산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져 그와 관련한 것이 아

닌가 추측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궁말[宮里]이 역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명총람』의 설명처럼 앞 들에 궁땅[宮畓]이 많이 있어서 궁리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궁답은 각 궁가宮家에서 소유 관리하는 논을 일컫는 말이다.

대곡2리 맹골마을은 마을 전체를 나지막한 산이 둘러싸고 있고, 마을 앞으로 1번국도가 지나간다. 맹골이라는 마을 이름은 옛날에 맹씨가 살았다고 하여 맹골, 맹곡이라고 했다고 전하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 현재 맹씨는 살고 있지 않다. 맹골마을은 1980년대 4개의 행정리로 분구되기 전까지는 대곡리의 중심지로 새마을 운동 때 마련한 도정공장은 물론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곡2리 마을이 자리한 터는 풍수상 키 형국이라고 한다. 키는 곡식을 까부르는 것인데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키질을 할 때 곡식의 알맹이는 가운데로 모이게 되고 껍데기는 밖으로 쓸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곡식이 모이는 자리인 가운데에 사람이 살면 잘 산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대곡3리 학수동 마을은 학수동과 황골 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맹골 북쪽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을 역말 또는 역리, 김제역말, 진계역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본래 천안군 소동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교통 통신 및 숙박시설이었던 역원 중 김제역이 있었던 마을이다. 마을에는 이러한 역원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마을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은 조선시대 역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황골에 있는 밭을 개간할 당시에는 각종 토기편 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학수동 마을은 과거의 역말로 7~8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1979년도 농촌 취락구조 사업으로 정부와 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 자체를 모두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동시켰다. 역말이라 불리우다가 학수동으로 지명이 바뀌어 불리

게 되었는데, 학수동이라는 이름은 마을의 형국이 학이 날아와서 물에 앉아 노는 형국이라고 하여 학수鶴水를 쓴 것이라 한다.

김제역은 충청도 성환도 찰방이 관할하는 11개역 가운데 하나로 천안에서 공주, 연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부터 1895년 편찬된 『호서읍지』와 1900년경의 각종 공문서상에 관련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성환역지』 가운데 김제역 관련 기록을 보면, 김제역은 천안군 경역에 있는데, 성환역으로부터 60리의 거리에 있으며, 감관 1인, 수리 1인, 행병 2인, 장계군 3인, 서자 6인, 창사 3칸, 마호 15명, 마부 15명, 역장 1인, 복호 77결 30부, 마위전답기결 23결 82부 중에서 7결은 해마다 묵은 것이니 실지로는 16결 82부이고, 환자미는 13석 10두 9홉 5작(갑자년의 환자미를 합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곡4리의 대사동 마을은 한절골, 혹은 한적골, 한적동, 대적동(한적골의 한자명)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다. 마을 입구는 북서쪽으로 동구가 터져 있으며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는 장승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마을 동쪽으로 해발 300m 고도의 명산인 고려산이 차령산맥의 일환으로 분수령을 이루며 고등령, 차령으로 이어져 있고, 동내수는 소정, 풍세평야를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대사동에는 갈마음수형, 노서하전형, 옥토망월형, 금구망월형 등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곡리 밀양박씨 연안공파

대곡 4리의 밀양박씨密陽朴氏 연안공파延安公派는 연안공 박승조朴承祖(1564~1640)를 파조로 한다.

대곡 4리의 입향조는 파조인 박승조로 자가 효선孝先, 호는 지지당止止堂이다. 아버지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를 지낸 박안세朴安世(1542~1617)와 어머니 이조판서 황림黃琳의 딸인 창원황씨昌原黃氏(?~1618)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이

영의정을 지낸 박승종朴承宗(1562~1623)인데, 그의 손녀가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박승조의 부인은 직장直長을 지낸 남궁식南宮湜의 딸인 함열남궁씨咸悅南宮氏이며 후손을 낳지 못하였다. 계배繼配는 감찰을 지낸 구극인具克仁의 딸인 능성구씨綾城具氏(1573~?)로 4남 4녀를 두었다.

박승조는 광릉참봉光陵參奉 경리아문經理衙門 도감都監 낭청郎廳 한성漢城 참군叅軍 상의원尙衣院 주부主簿 삼등현령三等縣令 안산군수安山郡守 양양부사襄陽府使를 역임했다. 또한 양양에서의 치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받았으며 1617년 연안도호부사延安都護府使 겸 해주진병마첨절제사海州鎭兵馬僉節制使를 지냈으나, 이듬해 부친상에 이어 모친상을 당한 후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박승조는 광해군 때의 혼란한 정국을 피하고자 낙향을 결심하고 형인 박승종에게도 누차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유하였으나, 박승종의 손녀가 세자빈으로 책봉되는 등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박승조는 혼자 일가를 이끌고 어머니 창원황씨의 묘가 있는 소정면 대곡 4리 대사동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박승조가 소정면 대곡 4리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성씨가 세거한 적이 없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소정면 대곡 4리에는 박승조의 셋째 아들인 박자강朴自强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의면 노곡리에 박승조의 여섯째 아들인 박자동朴自同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천안 풍세면 미중리, 소사리, 삼성리 일대에도 연안공파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박승조의 묘는 처음에는 대사동 은적산에 있다가 1726년(영조 2)에 남면 고정리 가학동(가락골) 모항곡으로 이장하였다. 박승조와 사돈이며 당시 좌의정을 지낸 포저浦渚 조익趙翼이 지은 묘지명이 있고, 족 증손 박성원朴聖源이 지은 묘갈명이 있으며 이중명李重明이 지은 제문이 있다.

박승조의 어머니인 창원황씨의 묘소 근처에는 재실이 있으며 창원황씨

로 인해 이 마을에 밀양박씨 연안공파가 비롯되었음을 기리는 상량문이 있다.

후손으로는 무과에 오른 박대후朴大厚와 박대후의 아들로 선달先達을 지냈고 효행이 깊어 효행록에 기록된 박지온朴之溫이 있다.

박승조가 소정면 대곡 4리에 입향하여 은거한 이후 이 마을에 세거하게 된 밀양 박씨 연안공파 후손들은 한적골 박씨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또 대사동 마을 입구에는 성황당과 장승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 민속유적이 박승조가 입향하면서 풍수지리상 마을의 서북쪽이 허虛함을 보고 숲과 장승을 조성하고 보완한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장승제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추정한다.

대곡리 청송심씨 곡산공파

대곡4리 청송심씨靑松沈氏 곡산공파谷山公派는 심수를 파조로 한다.

대곡 4리의 청송 심씨 곡산공파谷山公派 입향조는 승지承旨를 지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된 심한기沈漢紀(1650~1677)로 자는 기지紀之이다. 그의 아버지는 한림翰林 응교應敎를 지낸 심사홍沈思泓이며 어머니는 박자신朴自新(1607~1682)의 딸인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배위는 전주유씨全州柳氏이다.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심한기의 일가는 원래 한양에서 거주하였다 하며, 질병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대곡 4리 한적골로 입향했다고 전하는데, 어머니가 밀양 박씨 연안공파 박자신朴自新(1607~1682)의 딸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전부터 이 일대에 세거 하고 있던 밀양 박씨 연안공파와의 연고로 인해 이 곳으로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대곡 4리에 심한기의 묘가 있으며,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가에 유품이 전해지고 있다.

대곡리 금구온씨 생원공파

소정면 대곡리에는 '맹골孟谷'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곳에는 오래전에 금구온씨가 들어와 터를 잡아 살아왔다고 한다.

온씨溫氏의 시조는 고구려의 온달溫達 장군이고, 금구온씨金溝溫氏는 온신溫信을 중시조로 하고 있다. 온신의 호는 수신재守愼齋이며, 왕명으로 금구金溝(현재의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에 살게 되면서 후손들이 금구를 본관으로 삼았다. 금구의 옛 이름은 봉성鳳城으로, 금구온씨는 봉성온씨鳳城溫氏라고도 부른다. 온신의 자손은 온림溫琳(자) – 온윤溫潤(손) – 온후溫厚(증손)로 이어지며, 온후의 네 아들 가운데 셋째인 온치순溫致順이 맹골 금구온씨의 조상이다. 온치순은 문종조에 성균생원을 지냈다고 한다.

금구온씨 문중에 이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입향설에 따르면, '7세손 온승손溫勝孫이 어느 왕인지 알 수 없지만 왕을 업어 피난을 시키고 그 공으로 대곡리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으므로 대곡리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실증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다.

족보의 기록에서는 온치순의 아들인 온원손溫元孫에 대해 '그의 처자가 충청도 천안에 이거했다'고 수록되어 있으며, 온승손에 대해서도 '이거천안移居天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14세손인 온계명溫啓明(1665~?)까지의 묘소는 그 위치를 족보상에서 확인 할 수 없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온계명의 아들인 15세손 온이재溫以載(1712~1792,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의 묘가 천안 대사동에 있으며, 그의 어머니, 즉 온계명의 배위가 전의이씨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대곡리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금구온씨는 늦어도 200여년 전부터 이미 대곡리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다. 금구온씨 생원공파는 현재 대곡리의 맹골, 한절골 등에 10여호가 살고 있다.

대곡리 밀양손씨 소윤공파

대곡1리 밀양손씨 소윤공파는 입향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 80세인 손석주孫錫周(1932~)의 조부인 손창조孫昌朝(1868~?)가 처음 대곡리에 터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1900년대 초 쯤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선대 묘소가 아산 목천 논산 전의 등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곡리 정착 이전에는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곡리 입향조로 여겨지는 손창조는 조선말기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냈는데, 일제의 강점으로 조선이 망하면서 대곡리로 이거하여 터를 잡아 살았다고 한다. 1937년에는 가산을 희사하여 소정보통학교를 공동으로 설립한 공적이 있어서 현재 소정초등학교 교정에 그를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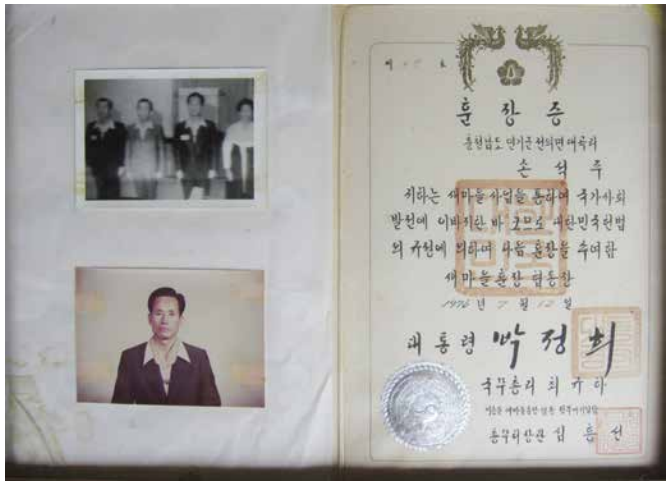
한편, 손석주 옹은 어릴 때 할아버지께 남다른 귀여움을 받아 논 다섯

개교창설송덕비
소정초등학교 교정에 있다

개교창설송덕비 후면
손창조, 최우식, 이승규 세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

손석주 송덕비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다

손석주옹과 송덕비



표창장 1976년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마지기를 별급받기도 했으며, 그 보답으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다른 후손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 1970년대에 서울 법대를 졸업한 후,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향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 돌아와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소정면 향토지에는 할아버지인 손창조의 소정초등학교 개교창설 송덕비(소정초등학교 위치)와 손자인 손석주 송덕비(마을회관 옆 위치)를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 조손祖孫 간의 송덕비가 한마을에 나란히 세워지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데, 연기군민 대상을 받기도 한 손석주 옹은 지금도 스스로 조손간에 소정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소정면 소정리

조사대상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회덕황씨 세마공파, 해주오씨 문양공파

소정리小井里는 1914년에 전의군 덕평면의 내동 요곡리 광암리 평리와 북면의 소정리小井里를 합하여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로 삼았다가, 1995년 소정면小井面이 신설되면서 소정면 소정리로 이관되었다.

덕평은 원래 고려시대에는 덕평부곡德平部曲이었다. 조선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부곡은 아니지만, 청주목의 월경처로서 전의로 넘어가 있다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서는 덕평향德平鄕이 전의현 서쪽을 넘어서 들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시대 청주목의 덕평부곡(혹은 덕평향)이 조선시대에도 월경지로 있었다. 월경지는 소속된 고을과 경계를 접하지 않고 엉뚱한 지역에 동떨어져 있지만 조세는 소속고을에서 거두었다. 이는 과거의 연고지, 생선 소금과 같은 물자의 조달문제, 조운 조창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덕평은 아산만 삽교천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곡교천의 상류 부근으로 서해바다에서 아산만을 통해 내륙으로 배가 들어오던 뱃길에 접한 곳이었다. 소정리 앞 들인 배뜰은 배가 들어왔던 곳이라는 의미의 지명이기도 하다. 현재의 지형을 보면 곡교천이 배가 뜰만한 하천이 아니지만 삽교호에서 아산시 배방읍 앞들을

소정리역

거쳐 소정면까지 이어지는 길고 넓은 평지는 과거의 물길이 어떠했을지 짐작케 한다.

조선후기에 면리제가 시행된 후에도 덕평은 청주목 덕평면으로 편제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는 덕평들이 청주에서 흘러온 땅이라는 전설이 있다. 청주에서 흘러온 땅이라 이곳의 도지를 모두 청주에서 거두어 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는 월경지의 운영방식이 설화적으로 전래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후기『여지도서』청주목 방리조에는 덕평면에 아래의 표와 같이 중암리 신리 당리 삼평리가 수

록되어 있다. 이들 4개리의 명칭은『호구총수』청주목 덕평면에도 삼평리가 평리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리명	청주목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인구수		
			남	여	계
중암리(重巖里)	서쪽으로 80리	23호	38명	41명	79명
신리(新里)	서쪽으로 80리	22호	53명	53명	106명
당리(堂里)	서쪽으로 80리	40호	97명	96명	193명
삼평리(三坪里)	서쪽으로 80리	10호	52명	56명	108명
계		95호	240명	246명	486명

조선말기 월경지가 정리되면서 덕평면은 1895년에 청주군(목)에서 전의군으로 이관되었다.

그리하여『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전의군 덕평면에 당리堂里 광암리廣岩里 평리坪里 요곡리蓼谷里 운강리雲岡里 양리楊里 부곡리富谷里 주점리酒店里 내동內洞의 9개리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소정리는 3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다. 1리는 곡교천 동쪽이고, 2리와 3리는 서쪽에 위치한다. 곡교천으로 배가 들어왔다는 전설은 소정면 곳곳에 남아 있다. 현재의 지형과는 달리 조선후기까지는 배가 통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덕평이 청주의 월경지였던 것도 그러한 환경 때문이었다. 넉바위 사람들도 전의까지 새우젓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한다. 전의로 가는 덕고개까지 뱃길이었고, 청룡안쪽에는 바위가 튀어나와 배가 부딪쳐 전복되었다는 전설도 전한다. 곡교천은 원래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물길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하천을 직선으로 정비하였다. 곡교천은 소정면 사람들의 생명줄이었지만 때로는 무서운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소정1리는 지형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곡교천의 동쪽 지역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줄기의 서향사면에 마을이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7개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정2리 넙바위[넉바위, 廣岩]는 마을 뒤에 있는 지름 5m 가량 되는 넓은 바위에서 유래한다. 넉바위는 1반과 2반으로 구성되는데, 풍수지리에 따라 1반이 청룡자리이고, 2반이 백호자리라고 한다. 청룡안 백호뿌리 등의 지명에서 보이듯 마을의 지형은 좌청룡 우백호로 불리우는 긴 산줄기가 양쪽에 뻗어내려 동네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좌청룡 편이 짧아 마을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속설이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이 수살이다. 마을입구에 왕버들 고목 수십 그루가 자라는 울창한 숲이 있다. 동네가 북동쪽으로 너무 열려 있는 형국이라 하여 옛 사람들은 마을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네가 훤하게 드러나는 것도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 숲은 풍수지리나 인문적 경관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북동풍을 막아주는 방풍림 구실을 하기도 한다. 단순한 동네숲이 아니므로 수살이라 불렀다. 오랜 옛날에 넉바위에서 아이가 죽으면 그 시신을 수살에서 풍장하기도 하였다.

소정3리는 곡교천의 서쪽으로 천안시 풍세면 신흥리 풍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안말(내곡)과 요골(요곡)의 2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발 195m의 투구봉과 207m 매봉재가 마을의 서쪽에 우뚝 솟아 여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안말과 요골을 감싸 안고 있는 지형이다. 욧골[蓼谷]은 넉바위 남서쪽 오목한 곳에 있는 마을이고, 안골[內洞]은 욧골 서남쪽 산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청룡안은 원래 한산이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그후 전주이씨, 전주최씨, 창원유씨가 입향하였고, 풍세면 가송리에 살던 한산이씨 후손들도 넉바위에 터를 잡고 살았다. 이중 전주이씨가 전통도 있고 부유하여 넉바위의 터주대감이라 할 만한 집안이었다. 청룡안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

으며 수살 숲을 만든 것도 이 집안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수적으로 좌청룡 산줄기가 짧아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넉바위 마을 중앙에서 보면 좌청룡이 짧지 않고 오히려 우백호 쪽이 너무 밖으로 벌어진 형국이다. 그런데 마을 중앙이 아닌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청룡안 동네에서 보자면 당연히 좌청룡이 매우 짧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주민들은 수살을 조성한 사람들이 아마 청룡안에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렇다면 청룡안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세거한 전주이씨가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넉바위에는 이서방이나 묘쓰는 자리라 일컬어지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이씨의 역사가 깊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서 5가구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소정리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소정2리 전주이씨全州李氏 양녕대군파讓寧大君派는 전주이씨 시조로부터 25세손인 양녕대군讓寧大君(1394~1462)을 파조로 한다. 소정 2리의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의 입향조는 양녕대군의 6세손인 원룡공元龍公 이원룡李元龍으로 그의 아버지는 온양현감을 지낸 이효당李孝堂(1530~?)이고, 어머니는 진사進士를 지낸 유자기柳自淇의 딸인 문화유씨文化柳氏이다. 배위는 진도김씨珍島金氏로 2남을 두었으며, 이원룡은 건공대부建功大夫 행대구진관行大邱鎭管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비안현감比安縣監에 증직되었다.

이원룡의 일가는 원래 여주 이천에서 살고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소정 2리 넉바위에 입향 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아버지가 온양현감을 지낸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하고 입향시기는 이원룡의 생존시기를 토대로 1500년대 말로 추정한다.

이원룡의 묘는 연기군과 천안시 풍세면의 경계인 수토미 종산에 있으

며 이승문이 지은 표석이 있다. 후손으로는 호조정랑戶曹正郞을 지낸 이유청李幼淸과 이유청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판서判書를 지낸 파곡坡谷 이성중李誠中, 그리고 이성중의 손자로 음직으로 교관敎官을 지낸 이명시李命蓍가 있다. 또한 이명시의 아들 이진선李震選과 손자 이흥령李興齡은 모두 생원이다.

소정리 회덕황씨 세마공파

소정3리 회덕황씨懷德黃氏 세마공파는 세마공 황삼외黃三畏를 파조로 한다.

소정 3리의 회덕황씨 세마공파의 입향조는 묘소 위치를 통해 추정해 보면, 황석남黃錫男이다. 황석남의 친부는 황삼계黃三戒이며 황삼외는 양부이다. 어머니는 한양조씨漢陽趙氏이며,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황덕함은 원래 대전에서 거주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소정 3리 안골로 입향 하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황덕함이 소정면 소정 3리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떠한 성씨가 세거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으며, 회덕황씨가 들어온 이후 안동김씨가 들어와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입향시기는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으나,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약 40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덕황씨 세마공파는 천안시 풍세면 호정리와, 아산 신창면 등에도 거주하고 있다.

황덕함의 묘는 소정 3리 안골[內洞]에 있으며 묘소 근처에는 1982년에 건립되어, 1993년에 중수한 숭령사가 있다.

황석남의 당질인 황세정黃世楨은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수학하였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황세정의 아들 황렴黃爓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사어司禦와 현감을 지냈다. 황세정도 전의에 거주했다.

회덕황씨 재실

회덕황씨가 풍세파라는 이름으로 보아 가까운 천안 풍세에서 파조가 비롯된 듯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 처음 자리잡은 사람은 10세 황석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석남은 확삼계의 아들인데 황삼외에게 출계하였다. 그의 처는 한양조씨 조원지의 딸이며 김충남의 외손녀였다.

김충남은 청주에 사는 조관으로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천안의 별감 김응신과 더불어 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유성룡의 증언으로 혐의를 벗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김충남의 외손녀 사위였던 황석남이 이러한 인연을 통해 소정리 지역에 입향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안골 남쪽을 조텃골이라 하는데 그 지명유래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조씨가 살았던 터로 본다면 황석남의 처가와도 연결시켜 생각해 볼수 있다. 황석남의 생몰년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600년대의 인물로 보인다. 무과급제하여 관직이 지중추에 이르렀고, 청주 덕평 내동에 묘를 썼다. 족보에 기록된 청주 덕평 내동은 현재의 소정리 안말이다. 그후 후손들이 소정리와 풍세 일대에 대대로 거주하였고 황석남의 아버지인 황삼외를 모신 사당이 1982년 안말에 건립되었다. 이웃한 풍세 여수물[弧井]에 종가가 위치해 있다.

소정리 해주오씨 문양공파

소정3리 해주오씨海州吳氏 문양공파의 입향조는 오백안吳百安(1600년대)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냈다. 그의 부인은 파평윤씨坡平尹氏이다, 오백안이 어떠한 이유로 언제 이 마을로 입향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오백안의 묘는 소정3리에 있으며 그 주위에는 해주오씨의 선산이 있다. 6·25 전쟁 당시 족보를 분실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으며, 묘비에 입향조의 행적이 나와 있다고 한다.

소정면 운당리

운당리雲堂里는 1914년에 전의군 덕평면 운강리 부곡리 양리 당리가 합쳐져 운강과 당리의 이름을 따서 연기군 전의면 운당리가 되었다가, 1955년에 소정면小井面이 신설되면서 소정면 운당리로 이관되었다.

조사대상 안동김씨 안원군파

덕평은 원래 고려시대에는 덕평부곡德平部曲이었다. 조선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부곡은 아니지만, 청주목의 월경처로서 전의로 넘어가 있다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서는 덕평향德平鄕이 전의현 서쪽을 넘어서 들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청주목의 덕평부곡(혹은 덕평향)이 조선후기 면리제가 시행되자 청주목 덕평면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여지도서』 청주목 방리조에는 덕평면에 중암리 신리 당리 삼평리가 수록되어 있으며, 『호구총수』에도 청주목 덕평면에 삼평리가 평리로 바뀌어 있을뿐 4개리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운당리 가는 길

리명	청주목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인구수		
			남	여	계
중암리(重巖里)	서쪽으로 80리	23호	38명	41명	79명
신리(新里)	서쪽으로 80리	22호	53명	53명	106명
당리(堂里)	서쪽으로 80리	40호	97명	96명	193명
삼평리(三坪里)	서쪽으로 80리	10호	52명	56명	108명
계		95호	240명	246명	486명

덕평면은 조선말기 월경지가 정리되면서 청주군(목)에서 전의군으로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전의군 덕평면에 당리堂里 광암리廣岩里 평리坪里 요곡리蓼谷里 운강리雲岡里 양리楊里 부곡리富谷里 주점리酒店里 내동內洞의 9개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당리 운강리 양리 부곡리가 운당리에 해당한다. 덕평면소재지가 운당리 앞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덕평면의 치소 자리는 철도가 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운당리는 2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리보다 2리의 규모가 더 크다. 소정면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곡교천의 서쪽으로 소정리와 운당리가 있는데, 상류쪽에 운당1리와 운당2리가 있다.

운당1리의 동서로 이어진 긴 골짜기인 은골은 해발 150~165m의 산줄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과정에서 형성된 골짜기여서 양쪽으로 야산이 길게 감싸고 있다. 골의 깊이도 1km가 넘을 정도이고 폭은 좁은 편이며 마을 안쪽의 농경지가 넓지는 않다. 1번 국도에 접하여 운강마을과 도랑말이 있다.

운당2리는 산줄기가 좌우로 감싸고 있는 동향마을로 당리와 양촌의 2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살기 좋은 환경이어서 절터, 요지터 등이 확인되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서당이 있었다는 전설을 비롯해 수백년간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다. 운당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불당골[佛堂谷, 富谷里]에는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 운당1리에 있는

운강雲岡은 불당골 위에 있는 마을이고, 당말[堂里]은 불당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며, 양촌楊村(楊里)은 불당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운당리 안동김씨 안원군파

운당리 안동김씨安東金氏 안원군파安原君派는 안원군安原君 김공량金公亮(1472~1544)을 그 파조로 한다.

운당리 안동김씨 안원군파의 입향조는 김공량의 아들 김완金浣(1500년대 초)으로 자는 정숙靜叔이다. 그의 어머니는 이팽수李彭穗의 딸 전의이씨全義李氏이며, 부인은 첨사僉使를 지낸 강석경姜碩卿의 딸 진주강씨晉州姜氏이다.

김완은 안렴사공파의 8세손으로 진천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증직贈職으로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추증 받았다.

운당리 안동김씨 족보표지

김완의 일가는 원래 경기도 여주에 세거하고 있었으나 김완의 아버지인 김공량이 전의현 덕평면 운당리와 원덕리(현 소정면 운당리) 일원의 토지와 임야를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받아 아들인 김완에게 관리토록 함에 이때부터 안원공의 자손들이 운당리 운강에 들어와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안동김씨 안원군파는 운당 1리 운강, 운당 2리 당너머, 양촌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입향조인 김완 이하 9대 34위의 묘소를 1995년에 이전하여 현재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에 있으며, 묘소입구에는 해방이후 이전

한 안원군파 재실이 있다. 김공량의 묘소를 율목동에서 이장할 때 명기明器, 목관, 복식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은 사손인 김용식씨가 보유하고 있으며, 김태윤씨가 교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후손으로는 김완의 아들로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증직 받은 김충남金忠男(1530~1618)이 있다. 김충남의 9대손 김영범은 안동에서 영장을 지냈고 10대손은 훈련원 판관을 지냈다고 한다. 도랑말에는 영장댁과 판관댁이라 부르던 고택이 있었다. 영장이 살았다는 집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고, 판관댁은 아예 없어졌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문과방목』
『사마방목』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충청도읍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지』, 1934.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편, 1912.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한국지명총람』 4 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문중소장 족보

『전의향토지』, 전의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97.
『전동면지』, 전동향토지발간위원회, 2011.
『소정면향토지』, 소정면향토지편찬위원회, 2011.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98.
『연기군 충·효·열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연기군, 1998.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Ⅰ, 임선빈 외, 연기문화원, 2011.

❑ 도움을 주신 분

강용규 (47세. 전의면 금사리)
권순백 (73세. 전동면 노장리)
고노춘 (89세. 전의면 다방리)
고태순 (71세. 서울시 거주)
김광남 (75세. 전동면 심중리)
김기환 (76세. 전의면 동교리)
김대경 (72세. 전동면 청람리)
김종태 (60세. 전동면 송곡리)
김진덕 (81세. 전의면 관정리)
김철규 (56세. 전동면 송곡리)
김태영 (56세. 전동면 미곡리)
김평회 (66세. 소정면 운당리)
김화중 (44세. 전동면 보덕리)
박병환 (65세. 전동면 송정리)
박종남 (73세. 전의면 동교리)
박주영 (63세. 전의면 달전리)
변영관 (67세. 조치원읍 교리)
손석주 (80세. 소정면 대곡리)
송원창 (76세. 전동면 봉대리)
신용벽 (60세. 전동면 석곡리)
신형재 (78세. 전의면 동교리)
여우현 (63세. 전의면 관정리)
온상학 (소정면 대곡리)
유기만 (82세. 전의면 신방리)
유장호 (70세. 전의면 신방리)
윤갑중 (79세. 전의면 동교리)
윤길중 (60세. 전동면 미곡리)
이남배 (73세. 천안시 거주)
이병하 (73세. 전의면 달전리)
이석근 (57세. 전의면 신흥리)
이종국 (73세. 전의면 유천리)
이효선 (83세. 전동면 송성리)
조태식 (72세. 송정리 상소골)
최도웅 (70세. 전의면 유천리)
최도학 (83세. 서울시 거주)
한길수 (79세. 전동면 보덕리)
한상억 (59세. 전동면 심중리)
홍승칠 (70세. 전의면 동교리)
황봉서 (59세. 소정면 소정리)
황우성 (61세. 전의면 읍내리)

❑ 조사후기

힘들게 두 번째의 성씨조사 작업이 끝나려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면이나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은 1차 때와 다름이 없다. 두 번째 작업이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처음의 마음은 오래전 취소했다. 한 문중의 역사를 들여다 보는 일은 조사자의 경험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후손들이 선조들의 문중 역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려는 열린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작업에서 깨달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조사위원 강현숙

세종시건설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서 사라져가는 이름 연기군의 뿌리찾기라는 작업은 내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었다.
내가 동참했던 이 작업이 먼 훗날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아 이 지역의 많은 후세인들이 이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야기 할수있는 자료로 활용될것을 기대한다. 이미 1권이 발간되었고 이제 2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3권의 작업도 곧 하게 될것이다. 마지막 까지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협조를 다하고 싶다. 함께했던 임선빈 박사님과 황우성, 강현숙 조사위원님들의 노고가 빛나는 자료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 가득하다

조사위원 남정환

'역사는 기록하고 전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잊혀 진다'. 라는 말을 새롭게 생각하며 한 문중의 뿌리를 기록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온 문중의 역사와 더불어 그들의 터전의 변화 모습들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 7월 1일자로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우리지역의 발전상을 보면서 뿌듯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뿌리 찾기 조사사업에 도움을 주신 문중대표님들과 책이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며 변화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이 더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조사위원 황우성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Ⅱ)
－전의면・전동면・소정면

2012년 6월 20일 인쇄
2012년 6월 30일 발행
집 필 : 임선빈
사 진 : 강현숙
조 사 : 임선빈・강현숙・남정환・황우성
발 행 : 연기문화원
인 쇄 : 민속원

본 책은 충청남도 및 연기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연기문화원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